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Su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

Nationalist Movement and Social Movement in Suwon

#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수원시사  
8



# SU WON

TheHistory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  
TheHistoryofSuwonCity

수원시사편찬위원회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  
TheHistory  
TheHistory  
The Suwon  
The Suwon

수원시사 8

#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 일리두기

### 기획 방향과 구성

□ 수원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1	수원의 지리적 환경	11	수원 토박이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
2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12	수원 이주민의 정착과 정체성
3	수원의 통치체제와 지방세력	13	수원 여성의 생활과 정체성
4	수원의 정치 변동과 지방자치	14	수원 노동자의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5	수원의 토지 소유구조와 농업 경영	15	수원 아파트 주민의 생활과 문화
6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16	이곳에 가면 수원의 역사가 보인다
7	수원의 사회 변동과 주민생활	17	수원 화성
8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18	세월과 함께한 수원의 옛 문서
9	수원의 문화와 예술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1960-1970년대 수원
10	수원의 종교와 교육	20	수원 자료 목록집

- 제1~10권은 수원시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분야별로 구성하였다.
- 제11~15권은 수원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토박이, 이주민, 여성, 노동자, 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였다.
- 제16권은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답사기의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제17권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다루었다.
- 제18~20권은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문서와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18권에서는 수원 지역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를, 제19권에서는 1960~1970년대 사진 자료를 통해 수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20권에는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주요 근현대 문서의 목록과 해제를 수록하였다.

###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수원시를 대상으로 하여 서술하되, 역사적 연원을 공유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주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로 주제 및 특성에 맞게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권별로 주제와 기획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주제가 요구하는 범위에 부합하도록 서술하였다. 수원시사의 전체적인 체제 통일과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원고에 대한 윤문과 첨삭이 이루어졌다.

### 저작권과 출처 표기

- 이 책의 저작권은 수원시에 있다. 이 책에 사용된 도표와 사진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와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 두었으며, 출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원시가 제작·소장하거나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이다. 집필자가 제출한 자료로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도표·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별도의 원 저작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 사용해야 한다.

● 일러두기

제1부  
한말 농민항쟁과  
국권수립운동의 전개

제1장 수원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 성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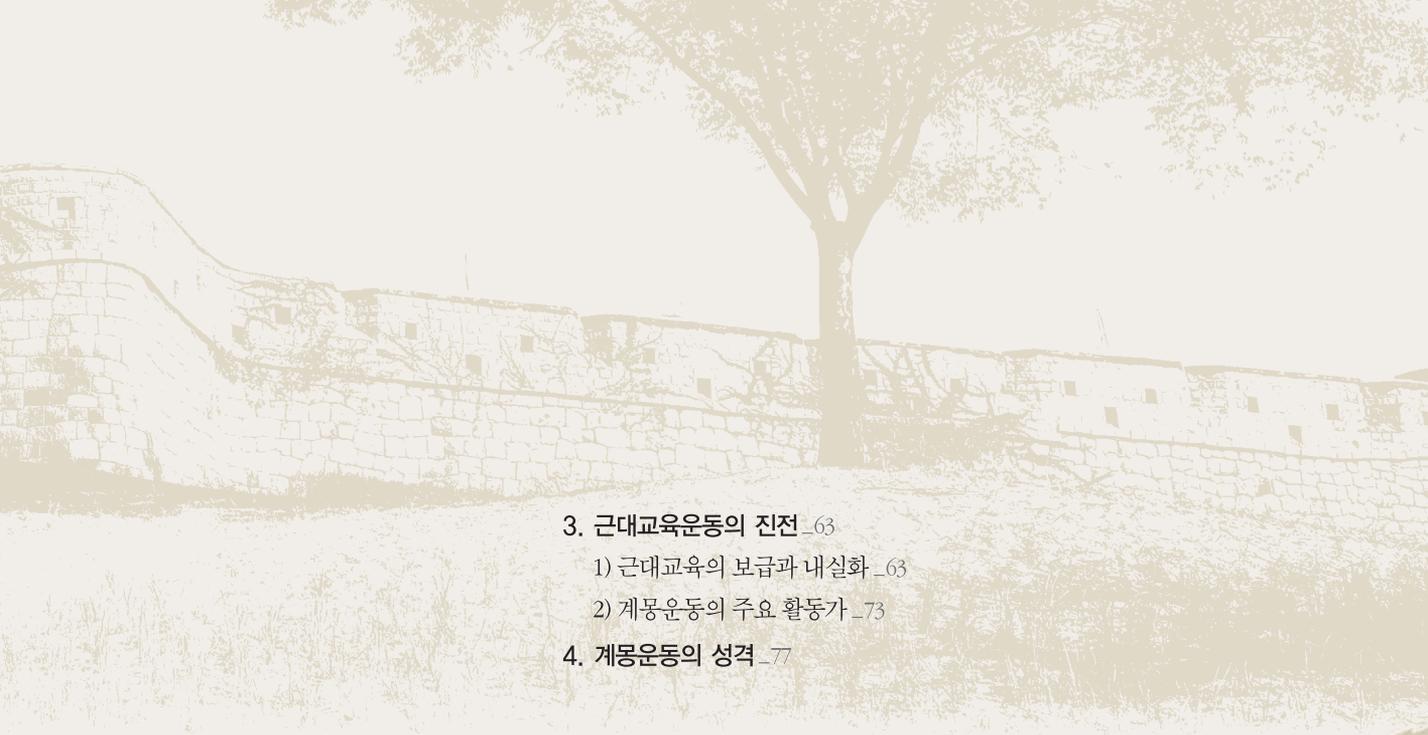
1. 조선 후기 사회 변동과 민란의 발생 \_17
2. 동학의 창도와 동학사상의 특성 \_22
3. 수원의 초기 동학 교세 \_25
4. 수원의 동학과 척왜양창의운동 \_28
5. 동학농민혁명과 수원 동학군의 활동 \_30

제2장 수원의 국채보상운동 ————— 김형목

1. 국채보상운동의 배경 \_41
2.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 \_45
  - 1) 국채보상취지서의 배포 \_45
  - 2) 자발적인 의연금 모집 \_47
3. 국채보상운동의 특성과 의의 \_51

제3장 수원의 애국계몽운동 ————— 김형목

1. 수원 사회의 근대적 변화 \_57
2. 계몽단체의 활동과 인식 변화 \_60
  - 1) 계몽단체의 조직과 활동 \_60
  - 2) 민지 계발과 인식 변화 \_61



- 3. 근대교육운동의 진전 \_63
  - 1) 근대교육의 보급과 내실화 \_63
  - 2) 계몽운동의 주요 활동가 \_73
- 4. 계몽운동의 성격 \_77

**제4장 수원의 의병전쟁** ————— 박민영

- 1. 한말 의병전쟁 \_81
- 2. 전기의병(을미의병)의 활동 \_83
  - 1) 역사적 배경 \_83
  - 2) 전기의병 투쟁 \_85
- 3. 중기의병(을사의병)의 활동 \_88
- 4. 후기의병(정미의병)의 활동 \_90
  - 1) 수원의병의 항일전 \_90
  - 2) 홍원식(洪元植) 부대의 의병투쟁 \_95

**제2부**  
일제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전개

**제1장 수원의 3·1운동 전개와 성격** ————— 이동근

- 1. 수원면의 만세운동 \_103
- 2. 송산면의 만세운동과 순사의 처단 \_107
- 3. 발안장과 우정면·장안면의 만세운동 \_109
- 4. 기타 지역의 만세운동 \_114
- 5. '제암리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 \_118



## 제2 장 수원혈복단과 구국민단의 결성과 활동 ——— 박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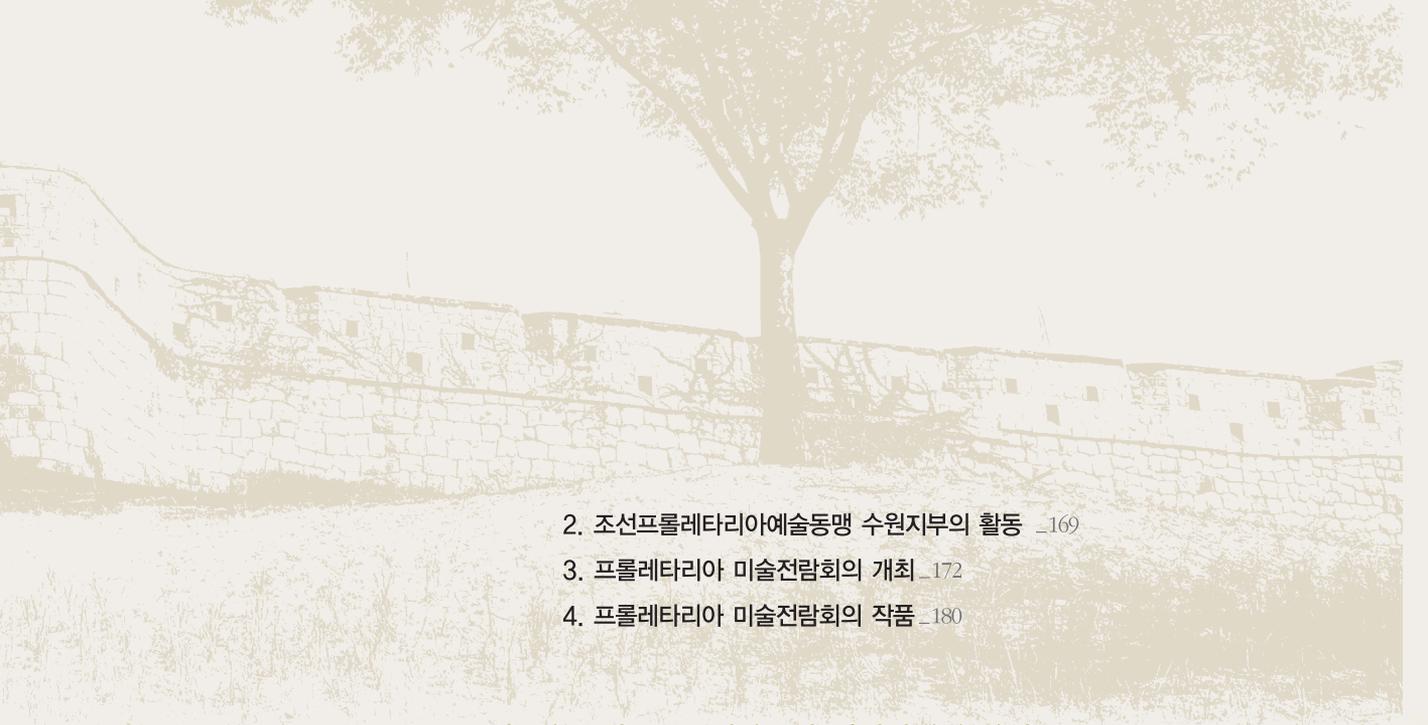
1. 수원 혈복단의 결성 \_125
2. 구국민단의 결성과 활동 \_127
3. 혈복단과 구국민단의 성격 \_133

## 제3 장 수원의 청년운동과 수원청년동맹 ————— 조성운

1.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_137
  - 1) ‘청년’의 성장 \_137
  - 2) 청년단체의 창립과 조직 구성 \_139
  - 3) 청년단체의 활동 \_143
2. 청년단체의 혁신과 수원청년동맹의 조직 \_144
  - 1) 청년단체의 혁신 \_144
  - 2) 수원청년동맹의 결성 \_148
3. 수원청년동맹의 활동과 해소 \_154
  - 1) 지부 설치 활동 \_154
  - 2) 일반적인 활동 \_156
  - 3) 조선청년총동맹 해소 활동 \_159
4. 수원 청년운동의 특징 \_162

## 제4 장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와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 ————— 조은정

1.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의 설립 \_165

- 
2.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의 활동 \_169
  3.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의 개최 \_172
  4.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의 작품 \_180

## 제5장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비밀결사와 학생운동 — 박 환

1. 수원고농 학생비밀결사의 조직 배경 \_191
  - 1) 수원고농의 설립과 한국인 학생 \_191
  - 2) 수원고농 학생들의 민족의식 성장 \_197
2. 1920년대 학생비밀결사 \_ 건아단과 조선개척사 \_203
  - 1) 수양단과 건아단의 조직과 활동 \_203
  - 2) 조선개척사의 조직과 활동 \_209
  - 3) 1920년대 '수원고농사건' 의 특성 \_215
3. 1930년대 수원고농 학생운동 \_ 상록수운동과 독서회 \_216
  - 1) 독서회의 조직 배경 \_216
  - 2) 독서회의 조직과 활동 \_217
  - 3) 체포와 와해 \_219

## 제6장 신간회 수원지회의 조직과 활동 — 조성운

1. 신간회 수원지회의 조직 배경 \_225
2. 신간회 수원지회의 조직 \_230
3. 신간회 수원지회의 활동 \_234
4. 신간회 수원지회 회원의 성격 \_239

## 제7장 수진농민조합의 결성과 활동 ————— 조성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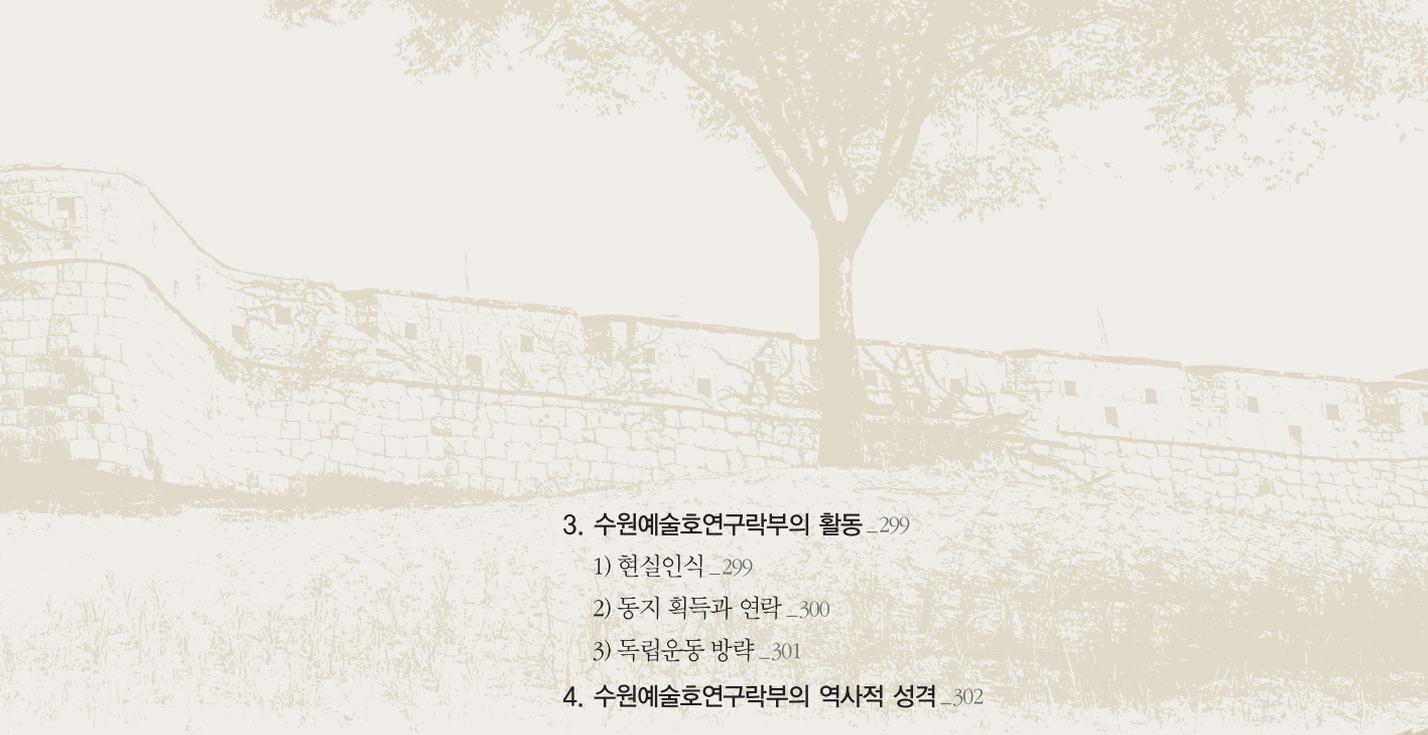
1. 수진농민조합의 결성 \_246
2. 수진농민조합의 주요 활동가 \_253
3. 수진농민조합의 운동방침 \_257
4. 수진농민조합의 조직방침 \_260
5. 수진농민조합운동의 성격 \_262

## 제8장 수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운동 ————— 박철하

1. 노동조건과 생활상태 \_265
2.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_271
3. 노동쟁의의 전개 양상 \_277
  - 1) 토목건설노동자 파업 \_278
  - 2) 인쇄직공 파업 \_278
  - 3) 자동차운전수 파업 \_279
  - 4) 직물 여자직공 파업 \_282
  - 5) 도축노동자 파업 \_284

## 제9장 수원의 반일낙서사건과 수원예술호연구락부 활동 ————— 박철하

1. '반일낙서(反日落書)' 활동 \_289
2.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결성 \_293



### 3.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활동 \_299

- 1) 현실인식 \_299
- 2) 동지 획득과 연락 \_300
- 3) 독립운동 방략 \_301

### 4.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역사적 성격 \_302

## 제3부 해방 후 사회운동의 전개

### 제1장 1960~1990년대 수원의 민주화운동 — 유문종

#### 1. 4·19혁명부터 1980년까지 민주화운동 \_310

- 1) 학생들의 4·19투쟁 \_310
- 2) 서울대 농대생들의 한일협정 반대투쟁과 유신 반대투쟁 \_313
- 3) 수원양서조합운동 \_314
- 4) 야학 활동 \_316

#### 2. 제5공화국부터 1987년 6월민주항쟁까지 민주화운동 \_317

#### 3. 6월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운동 \_324

## 제2장 1970~1990년대 수원의 학생운동 — 유문종

#### 1. 1980년대 수원 지역 학생운동 참여 대학생의 사회인식 \_336

#### 2. 서울대학교 농대 학생운동 \_339

- 1) 상록수정신을 이어받은 야학운동 \_340
- 2) 유신시대에 맞선 김상진 열사 \_342
- 3) 1980년대 학생운동 \_343
- 4)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농대 이전투쟁 \_343



- 3. 한신대학교와 경기대학교 학생운동 \_344
- 4. 수대협과 경기남부총련 활동 \_349

### 제3장 1980~1990년대 수원의 노동운동 ————— 이창언

- 1. 대학생·종교인과 노동자 \_360
- 2. 노동운동단체의 태동과 수원 지역 노동운동 \_365
- 3. 전국적 연대조직의 탄생 \_ 전노협과 민주노총의 출범 \_372
  - 1)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삼성 노동자의 민주노조 건설 시도 \_372
  - 2) 경기 남부 노동조합운동의 중심, 경기노련의 출범 \_374
  - 3) 전노협을 둘러싼 조직 논쟁과 전노협의 출범 \_377
  - 4) 민주노총의 출범과 두 개의 민주노총 \_381
  - 5) 노동운동의 혁신과 전망 \_383

### 제4장 1980~1990년대 수원의 통일운동 ————— 유문종

- 1. 6월민주항쟁 이후 통일운동 \_387
- 2. 1990년대 통일운동 \_392

## 제4부 시민운동의 성장과 흐름

### 제1장 수원의 시민운동 ————— 이상명

- 1. 시민운동 태동기(1987~1993년) \_400
  - 1) 시민운동의 태동 \_400
  - 2) 1990년대 초반 시민운동 연대활동 \_403

- 2. 시민운동 성장기(1994~2002년) \_405
  - 1) 시민운동의 성장과 지역 정치 \_405
  - 2) 지역문제와 시민운동 \_406
- 3. 시민운동 위축기(2003~2009년) \_411
  - 1) 민관협력의 위축 \_411
  - 2) 사안별 시민운동 \_413
- 4. 시민운동 활성화기(2010년 이후) \_415
  - 1)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수원시정 참여 \_415
  - 2) 수원 지역 시민운동 연대와 시민운동 \_416
- 5. 수원 지역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 \_418

## 제2장 수원의 환경운동

김충관

- 1. 환경운동의 태동과 대중화를 위한 노력 \_423
- 2.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을 통한 환경운동의 발전 \_427
  - 1) 환경오염조사와 정책 제안 \_428
  - 2) 수원 지역의 흐름을 바꾼 지역환경운동 \_429
  - 3) 미완의 쓰레기 시민운동 \_431
  - 4) 생태보전운동 \_433
  - 5) 도시개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요구 \_436
  - 6) 현재진행형인 항공기 소음문제 \_442
  - 7) 환경교육,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지역이 변화한다 \_444
- 3. 새로운 모색 \_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 수도 만들기 \_446
  - 1) 지방의제21
    - \_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의 변화와 환경운동의 지평 확대 \_446

- 2)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_ 하천살리기 운동의 중심 역할에 나서다 \_447
- 3) 시민참여를 통한 환경 수도 지향과 과제 \_449

### 제3장 수원의 마을공동체운동 유문종

1. '마을공동체 만들기운동'이란 무엇인가? \_453
2. 마을공동체운동의 출발 \_ 아파트공동체운동과 2000년대 초·중반 마을만들기운동 \_454
  - 1) 아파트공동체운동 \_454
  - 2)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 마을만들기운동 \_457
  - 3) 2000년대 중반 마을공동체운동 \_459
3. 마을공동체운동의 정착  
\_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마을공동체 활동 \_460
4. 마을공동체운동의 개화  
\_ '마을르네상스' 활동 \_460

### 제4장 수원의 생활협동조합운동 서정리

1. 1980~1990년대 경인 지역 생활협동조합 \_ 469
2. 수원생활협동조합의 출범과 활동 \_472
  - 1) 수원생활협동조합의 출범 \_472
  - 2) 법인 창립과 매장사업의 재도전 \_474
  - 3)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지역활동 \_477

### 3. 새로운 생활협동조합의 설립 \_ 478

- 1)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_ 478
- 2) 한살림 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 수원지부 \_ 480
- 3) iCOOP수원미래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창립 \_ 481
- 4) 두레사업연합회 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 수원지구 \_ 481
- 5) 바른생활협동조합 \_ 482
- 6) 대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창립 \_ 482
- 7) 수원협동조합네트워크 \_ 482

### 4. 생활협동조합 관련 법 개정과 제정 활동 \_ 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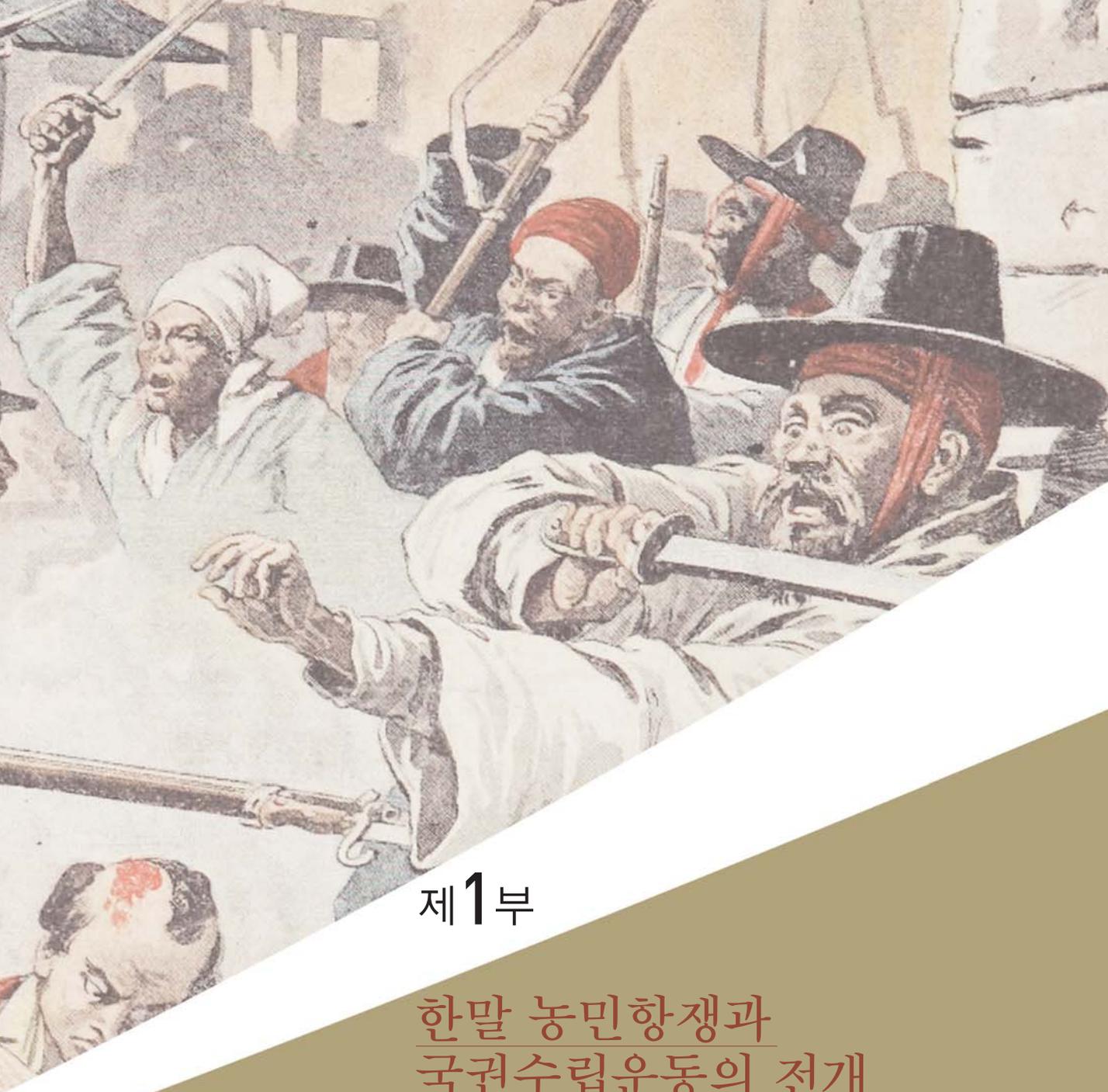
- 1) 「생활협동조합법」 개정 \_ 484
- 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_ 486

● 참고자료 \_ 488

● 찾아보기 \_ 492

● 집필위원





## 제1부

# 한말 농민항쟁과 국권수립운동의 전개

제1장 수원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제2장 수원의 국채보상운동

제3장 수원의 애국계몽운동

제4장 수원의 의병전쟁



성주현 청암대학교 제일코리안연구소 연구교수

---

1. 조선 후기 사회 변동과 민란의 발생
2. 동학의 창도와 동학사상의 특성
3. 수원의 초기 동학 교세
4. 수원의 동학과 척왜양창의운동
5. 동학농민혁명과 수원 동학군의 활동



## 제1장

# 수원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 1. 조선 후기 사회 변동과 민란의 발생

19세기 후반, 특히 개항 이후를 일반적으로 '민란의 시대'로 일컫는다. 이는 기존의 성리학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는 봉건적 질서가 해체되고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동했음을 의미한다. 17세기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농업생산력은 상품화폐경제 발달의 한 요인이 되었으며, 나아가 농민층의 분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개항 이후 신분제의 해체가 가속화되면서 계층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이와 같이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고, 농민층의 분화가 심화되면서 생활 터전인 토지로부터 격리된 농민들은 점차 반봉건적 의식이 강화되었다. 더욱이 삼정(三政)의 문란, 홍수와 한해 등의 자연재해, 그리고 외국상품의 유입과 미곡 유출로 농촌사회의 위기의식이 가중되면서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저항을 전개하였다.<sup>1</sup> 그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들어 '정감록' 신앙이 널리 퍼지면서 '역성혁명론'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각지에서 수많은 '민란' 또는 '변란'<sup>2</sup> 등의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1811년 '홍경래 난'과 1862년 '임술민란'

이 대표적인 농민항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농민항쟁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까지 지속되었다.

농민항쟁은 19세기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임술민란기에는 전국 70여 지역에서 농민항쟁이 발생하였다. 이들 농민항쟁은 주로 호남, 호서, 영남 등의 삼남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지역 중 호남의 경우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는 1894년까지 38개 지역에서 봉기가 발생하였다. 이 외에도 1893년까지 전국 각지에서 항쟁이 발생하였는데, 많게는 연간 10회 내지 20회 정도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sup>3</sup>

당시 농민봉기는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머리에 흰 두건을 쓰고 몽둥이와 죽창으로 무장한 수십 명의 농민들이 읍성(邑城)을 습격하여 동헌(東軒)을 점령한 후 수령을 쫓아내거나 수령의 인부(印符)를 탈취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방식이었다. 또한 관아의 문서, 즉 세금장부를 태우고 수탈을 일삼는 향리를 죽이고 그들의 집을 부수거나 불태우고 해당 군현에서 자행되던 폐단을 고쳐 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은 철종 대에서 고종 대까지 지속된 삼정의 문란과 지방관의 탐학에 한재(旱災)까지 겹쳐 더욱 고조되었다. 정부에서는 초기에 삼정의 문란 때문에 농민봉기가 일어났다고 인식하고 수령을 처벌하는 것으로 수습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1862년 5월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을 설치하고 「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을 반포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민란의 주요 요인은 삼정의 문란이었다. 그중에서도 환곡의 폐단이 가장 컸다. 그렇다면 삼정의 문란 중 가장 폐해가 컸던 환곡의 운영과 향촌의 동향은 어떠하였을까.

환곡제도는 춘궁기에 관청에서 곡식이 떨어진 농민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가을 추수

1 개항 이후의 민란의 발생과 전개에 대해서는 김양식, 「제1부 19세기 말 농민항쟁의 두 흐름」, 『근대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신서원, 1996을 참조.

2 '민란'과 '변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민란은 첫째, 향촌사회에 뿌리를 두고 그 속에서 생산활동이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던 사람들이 둘째, 국가권력에 의한 부세(賦稅)수탈이나 수령과 이서배의 부정부패에 대항하여 셋째, 발통취회(發通聚會)와 정소(呈訴)를 거쳐 봉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란은 투쟁공간이 고을 단위에 국한된 지역적 제한성을 보이고 투쟁의 목표 역시 대체로 특정 고을의 부세수취와 관련된 부당함을 반대하는 고을 단위의 경제투쟁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변란은 첫째, 향촌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훈장, 의원, 지관 등을 생업으로 삼아 각지를 편력하던 소외되고 가난한 한유(寒儒), 빈사(貧士) 중 일부가 둘째, 정감목류의 이단사상을 이념적 무기로 조선왕조 자체에 불만을 품고 셋째, 빈민과 유랑민 등을 동원하여 특정 고을을 장악한 다음 감영을 거처거나 아니면 곧바로 서울로 공격하기 위해 일으킨 병란이다. 따라서 변란은 민란과 달리 참여층이 특정 고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을 단위를 벗어나 지역 간에 연계된 조직을 가지고, 투쟁 목표 역시 읍제의 개혁이나 이서배의 정치를 위해 읍권을 장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를 전복하고 중앙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다(배항섭,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경인문화사, 2002, 103·114쪽).

3 김양식의 연구에 의하면 1880년부터 1893년까지 54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들 발생건수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외에도 1893년에만 최소 66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기에 1할의 이자를 더하여 거두는 것으로, 원래 소농민 경영의 재생산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빈민구휼제도였다. 즉 원곡(元穀)을 대여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원곡을 회수하고 원곡의 10분의 1인 모곡(耗穀)을 덧붙여 징수하였다. 그런데 구휼을 목적으로 운영되던 환곡이 명종 대에 이르러 호조 경비가 부족하게 되자 모곡 중 10분의 1을 회록(會錄)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취모보용(取耗補用)’이 시작되면서 그 기능이 점차 변화되었다. 회록제도는 원곡의 부족분을 메워 주거나 궁민(窮民)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하던 모곡의 일부를 공용(公用)으로 전환시켜 중앙과 지방의 재정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중앙에서는 재정의 부족분을 지방의 관아에서 보충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별도로 환곡을 증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지방 관아에 그대로 전이되었다. 즉 지방의 관아도 중앙 상납분의 증가로 재정이 부족해지자 대동미의 유치분을 환곡으로 이용하거나 독자적으로 환곡을 설치 운영하여 지방재정을 보충하였다.<sup>4</sup> 이로써 환곡제도는 점차적으로 ‘부세적(賦稅的) 성격’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환곡의 분급을 비롯하여 전 과정에서 많은 폐단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들어 국가재정 중 환곡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민 수탈로 이어졌으며, 환곡제도는 소농민 경영의 재생산 기반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sup>5</sup>

이처럼 19세기 들어서면서 재정 과탄이 만성화되면서, 중앙의 관청은 물론 지방의 감영·병영·진영, 그리고 군현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으로 환곡을 설치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각 관아는 환곡을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 삼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농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철종 대에 수원에서는 대홍수가 났는데 이 때문에 표류되고 붕괴된 가옥들에게 홀전(恤典)을 주었다.<sup>6</sup> 고종 대에도 수원 지역은 홍수로 마을이 잠기고 압사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sup>7</sup> 이처럼 홍수 등 자연재해는 농민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농민이 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삼정의 문란, 즉 수령, 토호, 서리, 향리의 토색과 탐학에 의한 수탈로 민란이 속출하고, 대외적으로 서구 제국주의 열강과 일본의 침략이 대두되던 19세기 말 경기도 지방에서도 민란이 일어났으며, 점차 확대되었다.

4 양진석, 「18·19세기 환곡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9, 239-241쪽.

5 고동환, 「19세기 부세운영의 변화와 그 성격」, 『1894년 농민전쟁연구』 1, 한국역사연구회, 1994, 84쪽.

6 『철종실록』 권2, 1850년 7월 13일; 『철종실록』 권3, 1851년 8월 22일.

7 『고종실록』 권2, 1865년 7월 19일.

경기도의 경우 1862년 10월 광주민란을 시발로 하여 1876년 12월 파주에서 명화적(明火賊)이 금천군의 상납전(上納錢)을 약탈하는 등<sup>8</sup> 도적이 각지에서 빈발하자 이듬해 2월 「경외집도령(京外戡盜令)」을 공포하였다.<sup>9</sup> 1885년 2월에는 여주에서 퇴리(退吏)와 사민(士民)이 주동이 되어 과도한 결세의 남징(濫徵)에 반발하여 농민들이 관아를 점령한 후 이를 불태우고 옥을 부수어 죄수를 석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sup>10</sup> 그리고 이듬해 1890년 안성에서 읍민이 군수의 탐학에 대한 민소를 하기 위해 발통취당(發通聚黨)하여 민란을 일으켰다.<sup>11</sup> 1893년 인천에서도 관속인 이교(吏校), 수리(首吏), 수교(首校) 등이 주동이 되어 관아를 습격하고 관예(官隸)를 구타하는 등 소요를 일으켰고,<sup>12</sup> 이해 11월 개성에서는 수령의 과도한 탐학에 대해 현감과 농민이 봉기하여 관아와 양반의 집을 부수는 민란을 일으켰다.<sup>13</sup>

이처럼 조선 후기 들어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났으며, 수원에서도 1889년과 1891년 두 차례의 민란이 발생하였다. 먼저 1889년의 민란에 대하여 살펴보자. 1889년 10월 중순경 수백 명이 한밤중에 화성 안으로 모여 관아와 관리들의 집을 습격하였다. 수원유수 김홍집(金弘集)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본 수원부 성 안에서 수백 명의 무뢰배가 밤을 타 소란을 일으키고 인가를 파괴했습니다.<sup>14</sup>

1889년 민란이 일어난 배경은 전 승지 김명기(金命基)와 전 군수 윤수영(尹守榮)의 가렴주구 때문이었다. 즉 김명기와 윤수영에게 “평소에 쌓인 원한”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김홍집이 “조정에 수치를 끼친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들의 탐학은 심각한 것이었다.<sup>15</sup> 민란의 주모자 이흥완(李興完)은 체포되었으나 중군(中軍) 이민고(李敏皐)의 실수로 도주하였다.<sup>16</sup>

그 후 잠잠하던 수원 지역 민란은 2년 뒤인 1891년 6월 다시 발생하였다. 이 민란의 원인은 참봉 민병성(閔丙星)의 남작과다(濫斫過多)였는데, 현릉원 원군과 지역 주민이 합세

8 『일성록』, 고종 13년 12월 2일; 『일성록』, 고종 13년 12월 14일.

9 『일성록』, 고종 14년 1월 25일.

10 『일성록』, 고종 22년 2월 27일; 『일성록』, 고종 22년 3월 29일; 『일성록』, 고종 22년 6월 25일.

11 『일성록』, 고종 27년 1월 28일; 『일성록』, 고종 27년 10월 29일; 『비변사등록』, 고종 27년 윤2월 14일.

12 『일성록』, 고종 30년 8월 13일.

13 『일성록』, 고종 30년 11월 23일; 『일성록』, 고종 30년 11월 24일.

14 『고종실록』 권26, 고종 26년 10월 17일.

15 『고종실록』 권26, 고종 26년 11월 14일.

16 최홍규, 「경기지역의 동학과 동학농민군 활동」, 『경기사학』 창간호, 81쪽.

各司謄錄第 冊 (本府大皇橋作掣罪人等行  
查文案)

光緒十七年三月 日

行查文案

軍洞官龍仁縣令為牒報事本府作掣罪人團  
年三十一日守僕白松鶴年五十一守僕朴允石  
灣閣文內汝矣等以顯隆園守僕來告以為本  
國參奉姓于本家之路行到陽山里團軍幾許  
名與附近洞民數百名作黨突出結縛團軍舉  
措疑悖是如為置汝等所謂幾許名團軍果是  
誰某是喻一汝等所謂幾許名團軍果是  
洞民亦是汝等所謂幾許名團軍果是  
納招為汝等所謂幾許名團軍果是

措何等疑悖是喻一從所見無隱納招為汝等  
掣本事必有疑許作掣諸漢必有首從矣紀律  
自在情節亦矣等俱以守僕名色稍解奉公之  
是臥卒在亦矣等俱以守僕名色稍解奉公之  
事體是白半中今月十一日自松山金注書亮  
招致崔信通曰園軍之除案頻數今至難保之  
境何不詐言而再立卒崔信通曰角立云者初  
無事端不可聞命此洞園軍除案者今於營直  
前入來懇訴復屬無失農時耕作為可而退矣  
十二日參奉案前呈假官量早朝發行矣黃入  
落後待假官之入來午時量隨去後陪蒼黃名  
來若急曰參奉主行到陽山里近洞民幾百名  
猝地突出碎破乘驛曳出案前裂破衣冠裸身  
結縛驅去大皇橋云故矣身等聞來驚惶顛倒  
急急至大皇橋店所見果如所聞冒犯生被眾

1891년 제2차 수원민란 전개과정 『각사등록』, 광서 17년 3월)

하여 민란을 일으켰다.<sup>17</sup> 수원유수 윤영신의 장계에 따르면 “현룡원의 화소(火巢)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죄인들을 명확히 조사하였더니, 변고를 격발시킨 것은 실로 해당 참봉 민병성이 평소애 원망을 샀고 또 함부로 많은 나무를 베어 낸 데 있습니다.”<sup>18</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참봉 민병성의 민폐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민폐가 계속되자 김준기는 현룡원 원군과 지역민을 규합하여 봉기를 주도하였다. 이에 박진상(朴振商) 등이 적극 호응하였다.<sup>19</sup> 그런데 이 민란에 참가하였던 김용규(金容圭)는 사족 출신이었지만 몰락한 잔반(殘班)으로 현룡원 원토에 의지할 정도로 생계가 빈한하여 사회경제적으로는 일반 소작인과 다름이 없었다.<sup>20</sup> 이 외에도 윤흥만(尹興萬), 마희손(馬希孫), 이원용(李元用),

17 『비변사등록』 권272, 고종 28년 6월 23일.

18 『고종실록』 권28, 고종 28년 6월 23일.

19 『비변사등록』 권272, 고종 28년 8월 6일.

20 김용규는 “그 생계는 원토(園土)에 의지하였으나 이작(移作)에 감정을 품고 마음속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박윤석(朴允石) 등이 민란에 적극 참여하였다.<sup>21</sup> 이 민란은 ‘현룡원군작요(顯隆園軍作擾)’로 알려져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수원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민란과 경기도 지역의 민란은 토호들의 가렴주구에 대해 몰락한 잔반 계층과 일반 민중이 저항한 조선 후기 전형적인 민란임을 보여 주고 있다. 민란에 참여한 민중들은 봉건적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갈구하였고, 여기에 동학이 그 역할을 하였다.

## 2. 동학의 창도와 동학사상의 특성

1860년 4월 5일 최제우가 창도한 동학의 사상적 특성은 크게 다시 개개(開開)<sup>22</sup>의 혁세사상(革世思想), 시천주(侍天主)<sup>23</sup>의 평등사상(平等思想), 유무상자(有無相資)<sup>24</sup>와 동귀일체(同歸一體)<sup>25</sup>의 대동사상(大同思想), 척왜양(斥倭洋)<sup>26</sup>의 민족주체사상(民族主體思想)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제우는 『용담유사』에서 자신의 득도 이전까지의 세계를 ‘개벽후오만년(開闢後五萬年),<sup>27</sup> ‘하원갑(下元甲),<sup>28</sup> 전만고(前萬古),<sup>29</sup> ‘효박한 이 세상<sup>30</sup> 등의 표현을 통하여 비판하면서 득도 이전의 시대는 온갖 모순이 가득찬 시대이므로 극복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제우는 동학의 새로운 출발 시기인 1860년 4월 5일을 기점으로 ‘다시 개벽’, ‘상원갑(上元甲),<sup>31</sup> ‘후만고(後萬古),<sup>32</sup> ‘오만년지운수(五萬年之運數)<sup>33</sup> 등의 표현으로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역설하고 있다. 즉 최제우는 모순에 가득찬 지금까지의 혼란한 시대는 반드시 무너지고 다가오는 새 시대, 다시 개벽의 시대야말로 지상천국의 이상적 사

21 『고종실록』 권29, 고종 29년 5월 14일.

22 「안심가」, 『몽중노소문답가』, 『용담유사(龍潭遺詞)』 계사(癸巳)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23 「논학문(論學文)」, 『동경대전(東經大全)』 계미(癸未)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24 유무상자(有無相資)라 함은 최제우 초기부터 그의 제자 중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위하여 적극 돕는 것으로 이 같은 초기 동학의 공동체적 분위기가 빈궁자(貧窮者)로 하여금 동학에 입교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유무상자는 최제우의 순도 후에도 수십 년간 지하조직으로 존립하였다.

25 「안심가」, 『용담유사』 계사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26 「포덕문(布德文)」, 『동경대전』 계미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27 「용담가」, 『용담유사』 계사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28 「몽중노소문답가」, 「권학가」, 『용담유사』 계사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29 「교훈가」, 『용담유사』 계사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30 「몽중노소문답가」, 『용담유사』 계사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31 「몽중노소문답가」, 『용담유사』 계사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32 「교훈가」, 『용담유사』 계사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33 「용담가」, 『용담유사』 계사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회가 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제우는 무위이화(無爲而化)라는 개념을 통하여 제국주의의 침략과 조선 왕조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제시하였다. 최제우는 다시 개혁과 무위이화를 통해서 낡은 시대와 낡은 문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현실 비판사상이며 천도(天道)를 회복하는 새 시대, 새 문명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진보적 사상의 일면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일면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며 반봉건 반침략의 사상적 연원이 되고 있다.<sup>34</sup> 최제우는 『동경대전』에서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sup>35</sup>과 ‘천심즉인심(天心卽人心),’<sup>36</sup> 『용담유사』에서 “나는 도사 믿지 말고 한울님만 믿었어라. 네 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하단 말가.”<sup>37</sup>라는 표현을 통해 한울님과 인간이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내 몸에 모셔져 있는 한울님을 체험함으로써 시천주사상은 조선왕조 신분제를 타파하고 근대적 평등사상을 확립하고 있다.

최제우의 시천주사상은 최시형에 의해 “천지만물이 시천주 아님이 없나니 만물을 일체 공경으로 대하라.”<sup>38</sup> “사람은 한울이라 평등이요 차별이 없나니라. 사람이 인위로써 귀천을 가리는 것은 한울님의 뜻에 어기는 것이니 제군은 일체 귀천의 차별을 철폐하여 선사(先師)의 뜻을 맹세하라.”<sup>39</sup> “어린 아이를 때리는 것은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다.”<sup>40</sup>라는 범천론적 동학사상으로 확대되어 민중 속에서 실천됨으로써 1894년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군을 결속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었다.

최제우는 동국(東國)의 학(學)인 동학(東學)<sup>41</sup>이 당시 민중들 사이에 이미 널리 포교되고 있는 서학(西學)을 제압하고자 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최제우의 반외세적 척왜양사상은 줄곧 동학의 기본사상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1893년 전개된 교조신원운동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보은 장내에서 전개된 보은집회에서는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기치로 내걸고 수만 명의 동학도인이 모여 20여 일간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어 1894년 기포된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수많은 격문(檄文)과 포고문(布告文)을 통해 반침

34 장영민, 「최시형과 서장옥-남북집 문제와 관련하여」,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자성격』,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997, 134쪽.

35 「논학문」, 『동경대전』 계미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36 「논학문」, 『동경대전』 계미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37 「교훈가」, 『용담유사』 계사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38 「천도교서(天道敎書)」, 『신인간(新人間)』 통권 377호, 1980년 5월, 75쪽.

39 「천도교서」, 『신인간』 통권 374호, 1980년 1월, 75쪽.

40 「천도교서」, 『신인간』 통권 377호, 1980년 5월, 78쪽.

41 「논학문」, 『동경대전』 계미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략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외에도 최제우는 포교 과정을 통해 경제적 여력이 있는 제자들에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적극 돕도록 가르쳤다. 유무상자(有無相資)라 하여 경제적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형성된 동학의 조직은 최시형에 이르러 더욱 견고하게 다져졌으며 교조신원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그대로 계승 실천되었다.

최제우가 확립한 동학의 사상적 특성은 최시형에 이르러 더욱 확대 발전되었다. 특히 시천주사상은 “천지만물이 한울님 아님이 없다(天地萬物 莫非侍天主).”<sup>42</sup>로 재해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최시형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자체가 바로 한울님이므로 어린이도, 며느리도, 남의 종도, 날아가는 새도, 들에 핀 꽃도 모두 한울님으로 인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기본사상으로 하여 최시형의 사상적 특성도 ‘만민평등(萬民平等),’<sup>43</sup> ‘천주직포(天主織佈),’<sup>44</sup> ‘새소리도 한울님 소리,’<sup>45</sup> ‘이천식천(以天食天)’<sup>46</sup>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최제우 당시 교인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근본이 되었던 유무상자의 대동사상(大同思想)은 최시형에 이르러 더욱 활성화되었다. 1875년부터 1892년에 이르기까지 최시형은 통문을 통해 유무상자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최시형도 몸소 실천하였다. 이와 같은 유무상자의 대동사상은 교조신원운동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시형은 어린 시절 매우 불우하게 보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청소년 시절 내내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와 제지소(製紙所) 직공으로 일한 적이 있다. 특히 최시형은 이때의 불우한 생활에 대해 “내가 가장 한스러웠던 것은 머슴을 살면서 ‘머슴 놈’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야 했”<sup>47</sup>던 것이라고 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 과정은 그에게 사상적 특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최시형은 최제우의 가르침에 충실하였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바로 최제우가 두 명의 여자 몸종을 며느리와 수양딸로 삼은 것이었다. 최제우의 이러한 실천행동은 머슴 생활을 했던 최시형에게 충격이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최시형은 동학에 입도한 후 수련에 힘쓰는 한편 적서차별, 남녀차별, 귀천차별의 철폐를 철저하게 강조하였다.<sup>48</sup>

42 「천도교서」, 『신인간』 통권 377호, 1980년 5월, 75쪽.

43 「천도교서」, 『신인간』 통권 374호, 1980년 1월, 75쪽.

44 「천도교서」, 『신인간』 통권 377호, 1980년 1월, 75쪽.

45 「천도교서」, 『신인간』 통권 377호, 1980년 5월, 78쪽.

46 「천도교서」, 『신인간』 통권 374호, 1980년 1월, 79쪽.

47 표영삼, 『최시형과 금등골』, 『신인간』 통권 485호, 1990년 8월, 14쪽.

최시형의 가르침은 당시 신분제에서 고통받고 있던 서얼과 중인층, 그리고 일반 평민과 천민들에게 새로운 메시지였으며 동학 교세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경상도 영해와 영덕 지방의 새로운 신분 상승세력으로 등장했던 신향(新鄕)들이 1863년 대거 동학에 입도했던 것<sup>49</sup>이나 1891년 천민 출신의 남계천(南啓天)을 호남좌우도 편의장(便義長)으로 과감하게 임명한 사실<sup>50</sup> 등은 모두 최시형의 평등사상이 영향을 미친 실천적인 사례이다. 또한 다시 개혁의 혁세사상은 최시형에 이르러 “이 세상 운수는 천지가 개혁하던 처음의 운수를 회복한 것이니 세계만물이 다시 포태의 수를 정치 않는 것이 없나니라. …… 새 한울 새 땅에 사람과 물건이 또한 새로워질 것이라.”고 확대 해석하고 있다.

### 3. 수원의 초기 동학 교세

수원 지역에 동학이 처음 포교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1861년경으로 보인다. 수운 최제우는 1860년 4월 5일 동학을 창도하였으나 이보다 1년 뒤인 1861년에 경주를 중심으로 포교를 하였다. 그 후 교세가 크게 확장되자 1862년 12월 흥해(興海)에서 접(接)을 조직하고 접주(接主)를 임명한 바 있는데, 접소(接所)와 접주는 다음과 같다.

경주에 이내겸(李乃謙)·백사길(白士吉)·강원보(姜元甫), 영덕(盈德)에 오명철(吳明哲), 영해(寧海)에 박하선(朴夏善), 대구 청도(淸道) 겸 경기(京畿)에 김주서(金周瑞), 청하(淸河)에 이민순(李敏淳), 연일(延日)에 김이서(金伊瑞), 안동(安東)에 이무중(李武中), 단양(丹陽)에 민사엽(閔士爓), 영양(英陽)에 황재민(黃在民), 신령(新寧)에 하치욱(河致旭), 고성(固城)에 성한서(成漢瑞), 울산(蔚山)에 서군효(徐君孝), 장기(長鬢)에 최희중(崔羲仲) 제인(諸人)이라라.<sup>51</sup>

경기 지역에도 접주로 김주서가 임명될 정도로 동학의 접 조직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천도교백년약사』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접주로 이창선(李昌善)이 임명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52</sup> 이 두 기록에서 경기 지역의 동학접주가 김주서와 이창선으로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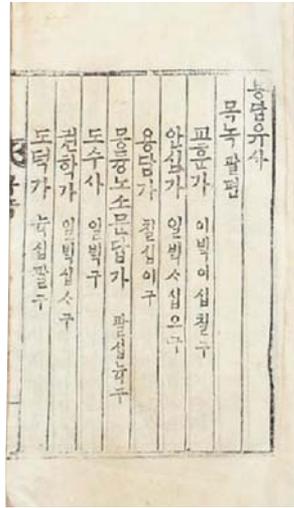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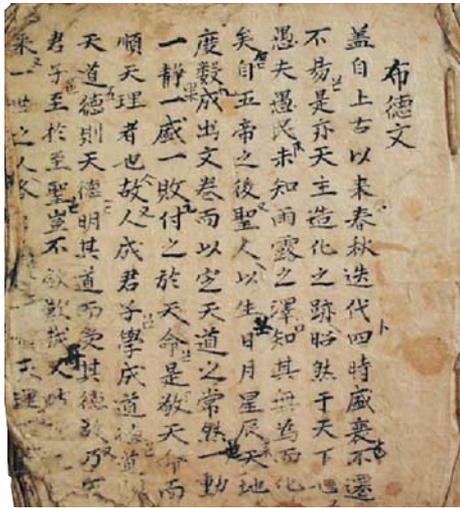
48 해월 최시형이 동학 최고지도자로 부각된 이후 처음으로 행한 법설은 적서차별(嫡庶差別) 철폐와 만민평등(萬民平等)에 관한 것이었다(『천도교서』, 천도교중앙총부, 1920).

49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영민, 『1871년 영해(寧海) 동학관』, 『한국학보』 47, 일지사, 1987 참조.

50 『천도교서』, 『신인간』 통권 377호, 1980년 5월, 79쪽.

51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천도교중앙총리원, 1934, 42쪽.

52 『천도교백년약사』 상,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1981, 96쪽.



동학의 핵심경전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제공)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적어도 1862년 동학교단에서 접소와 접주를 임명할 정도로 경기도 지역에도 상당수의 동학이 전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동학이 포교된 지역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수원을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으로 추정된다.

수원 지역에 동학이 본격적으로 전래된 것은 이보다 20여 년 후인 1880년경이었다.<sup>53</sup> 1880년대는 동학교단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정세가 급변하던 시기였다. 1880년 고종이 개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개화파 인사들이 중앙정계로 진출하였고, 1882년에 조선과 미국이 수교한 후 서양 열강과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동학교단도 초기의 위기에서 벗어나 점차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1871년 영해교조신원운동(寧海敎祖伸冤運動)으로 한때 교단 존립의 극한 상태에 이르기도 하였지만 1873년 태백산 적조암(寂照庵) 기도를 계기로 동학의 포교는 점차 강원도 지역에서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여 1880년과 1881년에 동학의 핵심 경전인 『동경대전(東經大典)』과 『용담유사(龍潭遺詞)』를 각각 간행하였다. 동학 경전의 간행은 동학 창도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었던 관의 탄압에서도 동학교단이 새로운 차원에서 포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도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53 조성운, 「일제하 수원 지역 천도교의 성장과 민족운동」, 『경기사론』 4, 2001, 183~184쪽.

## 水原郡宗理院沿革

우리郡의大道에感運을受한時機는 布德二十五年甲申二月頃이었나 湖南人安教善氏의傳道로安承寬金鼎鉉氏가先導가되야僅僅發展하다

布德三十一年庚寅에徐丙學、張晚秀、李圭根、金永根、羅天綱、申李植諸氏가六任이되고安承寬氏는畿湖大接主로金鼎鉉氏는畿湖大接司되야該接主林炳昇、白蘭深、羅天綱、申龍九、羅正完、李敏道外諸氏의幹練으로各地에信徒가數萬에達하다

全三十四年癸巳二月에海月神師命意로申龍九、李敏道外諸氏의周旋으로報恩帳內에數千人이往來하다 全三十五年甲午의東歸으로安承寬金鼎鉉兩氏는京城에서金元八氏는

水原城內에서正刑을受한后安城人金漢式에適功한活動으로屢年間指目을不關하고人心을擡提하야나와敎運이進興된地을踏하였다

全四十二年辛丑에聖師主渡東上京에數次敎通으로地方敎人이警懼하였나全四十六年乙巳에李鍾禎林洪鎮兩氏가一進會事務所를水原城內에置하고烈烈한活動中林洪鎮氏는田番百餘斗落에巨大한財産을一領하야數年間敎中活動으로積置된債務を報償하고前進向上努力하였다

全四十七年丙午一月三日에聖師還國하신後全年五月에會數分析의宗令으로李鍾禎氏가敎區長되야李信、李德有、高柱元、申龍九、宋益忠、俞相淳、俞道晉諸氏의幹練

에定하고 全四十八年丁未에具洛書敎區長으로全三年二月에聖師主御駕하시鍊武講習所를設立하다

全四十九年戊申十二月에敎理專門講習所를設立하다

全五十年己酉二月에李鳳九、孔炳台兩氏를選拔하야中央總部師範講習所에入學하다

全五十二年庚戌에李鳳九鄭道永高柱元李信李德有李鍾禎陳始泳陳鍾九諸氏의活動과頭目諸位에特別金力까지出措하야敎區를長安洞草家數十餘間으로移轉하다

全五十二年辛亥에本區管内城湖面에宗學講習所를設立하고羅天綱崔亨賢、金正淡諸氏가最히努力하다

全五十二年壬子에李鍾禎鄭道水金正淡李圭植李敏道諸氏가次第로聖師主御駕을要하야風風閣에鍊任하

수원 지역 동학 포교 과정을 정리한 「수원군종리원연혁」(『천도교회월보』, 191호, 1927)

1883년 3월 김연국(金演局), 손병희(孫秉熙), 손천민(孫天民), 박인호(朴寅浩), 황하일(黃河一), 서인주(徐仁周), 안교선(安教善), 여규덕(呂圭德), 김은경(金殷卿), 유경선(劉敬善), 이성모(李聖模), 이일원(李一元), 여규신(呂圭信), 김영식(金榮植), 김상호(金相鎬), 안익명(安益明), 윤상오(尹相五) 등 중견 지도자들이 강원도 인제에 머물고 있던 동학의 책임자 해월 최시형을 차례로 방문하여 지도를 받았다.<sup>54</sup> 이들은 대부분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었다. 특히 안교선과 서인주는 수원 지역에 동학을 전파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안교선<sup>55</sup>은 호남 출신으로 해월 최시형이 1883년 여름 경주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할 때 윤상오와 함께 유사(有司)로 참여한 바 있다.<sup>56</sup> 그는 1884년 2월경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 지역에 동학을 포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에 안승관(安承寬)과 김내현(金籛鉉 : 金乃鉉)이 안교선에게 입도하였다.<sup>57</sup> 또한 김내현은 수원뿐만 아니라 수원 지역의 생활공간인 진위 일대까지 포교를 하였다. 그리고 서인주는 수원 출신으로 1883년 3월 김연국, 손병희 등과 함께 최시형을 방문한 이후 동학교단의 핵심 지도자로 떠올랐다. 서인주는 최시형과 함께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에게 수학하였지만,<sup>58</sup> 교단 초기 큰 두각을 나타

54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40, 60쪽.

55 안교선은 호남인으로 1870년대 후반에 입교한 것으로 보인다. 1879년 최시형이 강원도 인제 방시학의 집에 수단소(修單所)를 설치할 때 안교상(安教常)이 서유사(書有司), 안교일(安教一)이 감유사(監有司), 안교백(安教伯)이 책자유사(冊子有司), 안교강(安教綱)이 윤통유사(輪通有司)로 각각 참여한 바 있다. 안교선은 이들과 형제 또는 친인척으로 보인다(강수, 앞의 책, 275-276쪽).

56 『동경대전』 계미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87, 55쪽).

57 「수원군종리원연혁」, 『천도교회월보』 191호, 1926년 1월, 29쪽; 이병헌, 「수원교회낙성식」, 『천도교회월보』 292호, 1936년 12월, 36쪽.

내지는 못하였다. 일찍이 불교에 입도하여 30여 년간 불도를 닦은 후, 동학의 핵심교리인 포덕천하(布德天下)와 광제창생(廣濟蒼生)에 크게 공감을 받고 동학에 입도하였으며, 서병학(徐丙學)과 함께 동학의 의식과 제도를 제정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또한 서인주는 신체와 용모가 매우 작고 특이하여 당시 사람들로부터 ‘진인(眞人)’ 또는 ‘이인(異人)’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들은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역에 동학을 포교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포교활동으로 1880년대 중반 서병학(徐丙學)·장만수(張晩秀)·이규식(李圭植)·김영근(金永根)·나천강(羅天綱)·신규식(申奎植) 등은 육임(六任)<sup>59</sup>으로 선정되었으며, 안승관(安承官)은 경호대접주(京湖大接主)로, 김내현은 경호대접사(京湖大接司)로, 임병승(林炳昇)·백난수(白蘭洙)·나천강(羅天綱)·신용구(申龍九)·나정완(羅正完)·이민도(李敏道) 등은 각각 접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으로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역에 동학교인이 수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다.<sup>60</sup> 이로부터 18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수원 지역의 동학 교세는 비약적 발전을 보게 되었으며,<sup>61</sup> 대접주(大接主), 대접사(大接司), 접주(接主), 육임(六任) 등 기본적인 교단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 4. 수원의 동학과 척왜양창의운동

이러한 교세를 바탕으로 수원 지역의 동학교인들은 1892년과 1893년 수운 최제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 주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교조신원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초기의 교조신원운동은 수원 출신의 서인주와 서병학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1892년 10월 20일경 동학교인들은 충청감사를 상대로 수운 최제우의 억울한 죽음을 씻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892년) 7월에 서인주·서병학 2인이 신사(해월 최시형 : 필자 주)께 찾아와 방금 우리들의 급한 당무(當務)는 대신사(수운 최제우 : 필자 주)의 신원 일사(一事)에 재하니 원컨대, 선생(해월 최시

58 황현 저, 김종익 역, 『오하기문』 수필(首筆), 역사비평사, 1994, 73쪽.

59 해월 최시형은 1884년 교장(敎長)·교수(敎授)·도집(都執)·집강(執綱)·대정(大正)·중정(中正)의 육임제(六任制)를 정하여 동학 교단을 정비하였다.

60 「수원군종리원연혁」, 『천도교회월보』 191호, 1927년 2월, 29쪽.

61 조성운, 「일제하 수원 지역 천도교의 성장과 민족운동」, 『경기사론』 4, 2001, 184-185쪽.

형 : 필자 주)은 각지 도유에게 효유하여 소(疏)를 제(齊)하고 혼(魂)에 규(叫)하여서 대신사 만고의 원(冤)을 설(雪)하소서 했다. 신사의 일이 순성(順成)치 못할 줄 아시고 허치 아니 하시니 2인이 온의(溫意)가 유하더라. 10월에 서인주 · 서병학 2인이 신사의 언(言)을 불준(不遵)하고 도인을 공주에 회집하여 서(書)를 관찰사 조병식에게 치(致)하다.<sup>62</sup>

서인주는 서병학과 함께 공주에서 동학 교조신원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 때문에 공주교조신원운동에는 서인주가 포교한 수원 지역의 동학교인이 적지 않게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93년 초 광화문 앞에서도 신원운동을 전개한 바 있는데 역시 수원 지역 동학교인들이 참여하였다.

수원 지역의 동학 포교 현황은 1893년 3월 10일 충북 보은군 장내면에서 개최하였던 척왜양창의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인지 유추해 볼 수 있다. 1892년과 1893년에 전개되었던 공주교조신원운동, 삼례교조신원운동, 광화문교조신원운동에서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지 못한 동학교단은 1893년 3월 10일 보은 장내리에 전국의 동학교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 전개하여 왔던 교조신원에서 벗어나 척왜척양을 부르짖는 반봉건적 성격으로 전환하였다. 이 척왜양창의운동에는 동학교인이 3만여 명이 참가하였는데, 수원 지역 동학교인의 참여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3월 21일 보은관아의 보고에 따르면 척왜양창의운동에 참가한 동학교인들은 ‘척왜양창의’ 깃발 외에 자신의 출신 접소를 알리기 위해 작은 깃발이 함께 나부꼈는데, 수원 접(水原接)을 알리는 ‘수의(水義)’를 비롯하여 광주접(廣州接)의 ‘광의(廣義)’, 죽산접(竹山接)의 ‘죽의(竹義)’, 진위접(振威接)의 ‘진의(振義)’, 용인접(龍仁接)의 ‘용의(龍義)’, 양주접(楊州接)의 ‘양의(陽義)’ 등이 경기 지역에서 참가하였음을 알리고 있다.<sup>63</sup>

또한 3월 27일 보고에는 전날인 26일 수원 · 용인 등지의 동학교인 300여 명이 보은 장내로 왔으며, 28일 보고에는 “수원접에서 600~700여 명이 장내리 삼마장 장재평에 기를 세우고 진을 풀었다.”<sup>64</sup>고, 30일 보고에는 “어제 들어온 접인들이 장재에서 광주 교인 수백 명과 함께 장내에 이입해 왔다.”고 하였다.<sup>65</sup>

당시 양호순무사(兩湖巡撫使)였던 어윤중(魚允中)의 보고를 통해 수원 지역 동학교인의 참여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보은군 장내에 모였던 동학교들의 해산 과정에서 2일

62 『천도교교회사초고』 포덕 32년조, 천도교중앙총부, 1920.

63 「취어」, 『동학란기록』 상, 국사편찬위원회, 1971, 110쪽.

64 「취어」, 『동학란기록』 상, 국사편찬위원회, 1971, 118쪽.

65 「취어」, 『동학란기록』 상, 국사편찬위원회, 1971, 119쪽.

에서 3일에 이르기까지 돌아간 무리는 경기도 수원집 800여 명이었다.<sup>66</sup> 또한 「수원군종리원연혁」에 의하면 “포덕 34년 계묘 2월에 해월신사 명의로 신용구(申龍九), 이민도(李閔道) 외 제씨의 주선으로 보은 장내에 수천 명이 왕참(往參)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sup>67</sup>

이 밖에도 당시 보은 척왜양창의운동에는 수원뿐만 아니라 용인·양주·여주·안산·송파·이천·안성·죽산·진위·광주 등 11개 지역에서 참여하였는데, 이들 지역의 동학교인은 대부분 수원의 관할이었다. 이러한 기반으로 볼 때 수원 지역 동학은 이후 1894년 반봉건 반외세의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지는 여명기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 5. 동학농민혁명과 수원 동학군의 활동

1894년 3월 20일 고창군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농민혁명은 호남 지역과 호서 지역을 거쳐 경기도 지역까지 영향을 주었다. 우선 고종이 광주에 있는 헌릉(獻陵)을 참배하고자 하였으나 ‘동학군의 기승’을 우려하여 연기할 정도였다.<sup>68</sup> 경기 지역에서 동학군의 본격적인 활동은 8월 중순 이후부터 보이고 있다. 특히 왕궁과 가까운 송파 부근에 “동학군이 모인다.”는 설이 돌 정도로 동학군에 대해 긴장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송파 부근의 동학군의 동향은 현장조사 결과 군사적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었다.<sup>69</sup> 그러나 11월 25일경에는 송파에 500여 명의 동학군이 집결하였다. 이는 송파에 일본병참 송파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sup>70</sup> 일본군의 병참기지는 일제의 조선 침략과 청일전쟁에서 중요한 군사시설이었다. 따라서 동학군 역시 이를 확보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수원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우선 수원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용인과 진위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자. 일본인 순사 마쓰모토(宋本惣市)·사메시마(鯨島彌入)·쿠라카와(倉川信行)의 보고에 따르면 “죽산(竹山) 기타 각 군에서 동학군의 행패가 심해져서 무기를 탈취하려는 꾀새가 보인다.”<sup>71</sup>라든가 “벌써부터 이 지방에 동학당이 다시 발동하여 극심하게 휘젓고 돌아다닌 것이 사실입니다.”<sup>72</sup>라고 하여 동학군의

66 「취어」 『동학란기록』 상, 국사편찬위원회, 1971, 124쪽.

67 「수원군종리원연혁」, 『천도교회월보』 191호, 1927년 2월, 29쪽.

6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5쪽.

6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18쪽.

7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92쪽.

7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21쪽.

활동이 점차 구체적으로 조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 동학군의 지도자는 김형식(金滄植)·김용희(金鏞喜)·김구섭(金九燮)·안치서(安致西)·홍승업(洪承業) 등으로, 김형식은 평택, 김용희와 김구섭은 목천(木川), 안치서는 온양, 홍승업은 천안 출신이었다. 이들의 활동지역은 직산·평택·천안·목천 등지로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었다.

이와 같은 수원 주변의 동학군 활동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도 “요즘 비도들이 경기도 내의 죽산과 안성 양 읍으로까지 침범한다.”고 하여 그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다.<sup>73</sup>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군국기무처에서도 “근일 동학도들이 창궐하여 경기 지방까지 침범하였다. 이때에 지방관이 게으르면 걱정이다. …… 죽산과 안성은 동학도 중 핵심인물들이 모여 있다. 잠시라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수령을 교체하되 능력 있는 자를 차출하여 병력을 이끌고 가서 포착하는 데 힘써야 한다.”<sup>74</sup>고 할 정도로 동학군의 활동이 관아를 위협하였다. 당시 진위 소사에는 동학군이 1만여 명이 될 정도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유수는 수원 인근 지역의 동학군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비도(匪徒: 동학군)들이 호남에서 공주 등지까지 가득차 있어 서로 연락(連絡)을 취하고 있고, 소사(素沙)에 있는 적(賊)들도 그 수가 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수원에 있는 우리 병사는 200명뿐이고 귀병(貴兵: 일본군)들도 70명에 불과하여 그 중과가 너무 차이가 있음으로 감히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sup>75</sup>

이와 같이 수원 인근 지역에서 동학군의 활동은 수원 지역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마즈이(宋井慶四郎)는 9월 10일경 “수원부에 수감(囚監) 중인 동학비괴(東學匪魁)를 그 비당(匪黨)이 탈취(奪取) 할 것이라 하여 동학군의 관아 공격이 임박하였음을 보고 하면서<sup>76</sup> 급히 일본군의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sup>77</sup>

또한 수원 부근에 동학군이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다.<sup>78</sup> 이에 따라 남부병참부 이토(伊藤祐義) 병참감은 다음과 같이 명령서를 내렸다.

7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22쪽.

73 『일성록』 고종편 31, 갑오 9월 초11일.

74 『일성록』 고종편 31, 갑오 9월 초11일.

7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34쪽.

7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286쪽.

7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41쪽.

7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45쪽.

1. 파견(派遣)하는 수비병은 1개 소대이고, 육군 보병 소위(少尉) 하라다(原田常入)가 이를 지휘한다.
2. 파견하는 우리 수비병은 금일 제물포(濟物浦)를 출발하여 인천을 경유 과천현 남쪽 약 30리에 있는 군포장(軍浦場) 십자로(十字路)로 진출한다. 내일 26일 오후에는 그곳에 도달할 것이다.
3. 군포장(軍浦場)에서 조선군(朝鮮軍)이 오는 것을 기다린다. 따라서 조선군은 행군속도(行軍速度)를 배가(倍加)해서 그곳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조선 관리(官吏)는 우리 군사(軍士)의 병량(兵糧)과 말 먹이의 구매(購買)와 숙소(宿舎)의 설치(設置) 등을 주선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단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군(軍)에서 지불할 것이다.<sup>79</sup>

이 명령서에 따르면, 수원 지역 동학군을 토벌하기 위해 일본군은 하라다(原田) 소위가 지휘하는 1개 소대 49명을 파견하여, 군포장에서 조선군과 연합을 기도하고 있다.<sup>80</sup> 이에 따라 일본군은 10월 25일(양) 새벽 5시, 조선군은 오후 4시에 각각 출동하였다.<sup>81</sup> 일본군은 수원 부근에서 오산동(烏山洞)에 거주하는 접주 홍경운(洪敬雲)을 잡아 수원부로 압송하였다.<sup>82</sup> 이로써 수원 지역 동학군은 한동안 소강상태에 있었지만 11월 11일 스키무라(杉村) 서기관(書記官)에 따르면 “동학군의 세력이 다시 회복하여 관아를 밀어 닥칠 것이다.” 하여 동학군이 재기하여 수원부를 위협하였다. 이에 수원유수는 일본군의 주둔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sup>83</sup>

그뿐만 아니라 수원 지역 동학군 역시 충청 내포(內浦) 지역 동학군과 연합하여 활동한 사례도 있다. 11월 17일 내포의 대접주 이창구(李昌九)는 자신이 지휘하는 동학군과 수원의 동학군은 수원과 내포 간의 경계를 이루는 송학산(松鶴山) 민보(民堡), 즉 송학보(松鶴堡)를 점령하여 군량미를 확보하는 한편 조운(漕運)을 방해하였다.<sup>84</sup> 그러나 이들 동학군은 11월 27일 일본군의 내습을 피해 해미(海美) 지역으로 피신하였다.<sup>85</sup>

1894년 9월 들어 국내의 정치 상황은 적지 않게 변화하였다. 일본군은 조선을 강점하기 위해 오시마(大島) 공사를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공사로 교체하였다. 그는 9월 27일(양 10월 25일)에 조선에 부임하면서 저항세력을 무자비하게 말살시킬 방침을 세웠다. 우선 조선정부를 완전히 장악한 후 동학군 토벌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군 약 300명

7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42쪽.

8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288쪽.

8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43쪽.

8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44쪽.

8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60~161쪽.

8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69쪽.

8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81쪽.



서울 거리를 행진하는 일본 군대(『The Graphic』 1894년 12월 22일)



‘동학군토벌대’의 파견(『일청전투화보』 제1편, 1894)

씩을 안성과 죽산에 각각 파견하였다. 이어 9월 21일에는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을 설치하고 호위부장(扈衛副將) 신정희(申正熙)를 도순무사(都巡撫使)로 임명하였다.<sup>86</sup> 그리고 9월 26일에는 장위영 정령 이규태(李圭泰)를 순무선봉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동학군 진압을 본격화하였다.

일본은 동학군을 초멸하기 위해 이른바 ‘동학군토벌대’라 불리는 후비보병 제19대대를 파견하였다.<sup>87</sup> 원래 후비보병은 2개 중대로 나누어 1개 중대는 수원·천안·공주 등지를 경유하여 전주부 가도의 동학군을, 다른 1개 중대는 용인·죽산·청주·성주 등지를 경유하여 대구부로 이어지는 가도의 동학군을 토벌할 예정이었다.<sup>88</sup> 그러나 동학군을 격파하고 그 화근을 초멸하기 위해 3개 중대로 확대 편성함에 따라 서로·중로·동로 3개 노선으로 재조정하였다.<sup>89</sup> 3개 노선 중 서로는 과천·수원·진위·양성·평택, 중로는 신원·용인·양지·죽산, 동로는 광주·이천·장호원으로 이어졌는데, 수원은 서로에 속하였다.

한편 조선정부는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군에게 우수한 무기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군 혼성여단장은 조선군을 손쉽게 지휘할 수 있도록 무라타(村田) 소총을 지급해 주자고 주장하였지만 일본대사관 측은 경복궁 점령 때 몰수했던 모젤 소총 1,000정 중 400정을 반환해 주었다.<sup>90</sup> 우수한 무기로 무장한 관군과 일본군이 토벌에 나서자 경기 지역의 많은 동학군은 무기의 열세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9월 하순부터 정부는 유생층을 비롯하여 보부상 등 반동학세력을 규합하여 민보군을 만들도록 권장하였다. 그 후 동학군은 민보군에게 학살되거나 재산까지 빼앗기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 남하하는 이두항 부대는 수원의 동학조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근 지역 동학군을 진압하였는데,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9월 21일: 용인에 이르러 …… 삼경(三更)에 100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직곡(直谷)에 있는 집주 이 용익(李用翊: 用益)의 집에 가서 동학도 14명을 잡았고 또한 김량장(金良場: 水餘面)에 사는 이삼준(李三俊)의 집에 가서 6명의 동학도를 잡아 양지읍(陽智邑)으로 압행(押行)하였다.

86 『선봉진일기』, 갑오 9월 21일.

87 강효숙, 『제2차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 『역사학연구』 762, 청목서림, 2002, 26쪽.

8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47~148쪽 및 151쪽.

8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54~156쪽;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국사편찬위원회, 1991, 63~68쪽.

9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5, 331쪽.

9월 22일: 양지읍에서 어제 잡은 20명을 일일이 조사한 후 16명은 석방하고 이용익과 이삼준 그리고 양지읍에서 잡은 정용전(鄭用全: 龍全)과 이주영(李周英) 등 4인은 읍 앞 대로상에서 포살하였다.

9월 27일: 이참의(李參議)가 보낸 글에 이천 일본병참소(兵站所)에서 잡은 동학도와 적당 30인을 구속하였다. 5명은 일찍이 놓쳐 버렸고 나머지 20여 명 중 괴수 10명은 포살하고 나머지는 석방하였다. 안성군수 성하영이 도착하던 날인 24일에 비도 3인(魁首 兪九西, 接主 金學汝, 鎭川東徒 金今用)을 잡았는데 27일에 참살하였다.

10월 3일: 용인군 서이면(西二面) 장항(獐項)에 사는 우성칠(禹成七)을 잡아 가두었다. 4일 조사해보니 동도의 거괴이므로 처형하였다.

10월 5일: 용인군 남일면 주천(注川) 등지에서 동학도 5명을 잡아 가두었다.<sup>91</sup>

이 밖에도 수원 관할의 진위에서는 민공익(閔孔益), 한홍유(韓弘儒), 김명수(金命壽) 3명의 동학군을 체포하였다.<sup>92</sup> 이들은 모두 수원의 대접주인 김내현의 권유로 동학에 입교하였고 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동학교인들이었다.<sup>9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지역 동학군은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다. 이는 동학군을 진압하는 직접적인 경로였기 때문에 수원 지역의 동학군은 충청 지역이나 호남 지역으로 진출하여 활동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수원 인근 지역 동학군들은 각 지역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밀려 희생자가 속출하였고, 결국 충청도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경기 동부 지역은 황산(黃山)과 진천 광혜원(廣惠院) 쪽으로, 진위 지역은 목천(木川) 세성산(細城山) 쪽으로, 수원·남양·시흥 지역은 황산 쪽으로 이동하였다.<sup>94</sup>

9월 18일에 해월 최시형의 총기포령이 내리자 수원을 비롯해 경기 지역과 충청 지역 동학군들은 광혜원에 모였다. 당시 상황을 『양호우선봉일기』에서 “장리(將吏)를 보내 동학도(東學徒)의 거취를 탐지한 결과 충주 무극장기(無極場基)와 진천 구만리(九萬里: 廣惠院) 두 곳에 몇 만 명이 모여 있다.”<sup>95</sup>고 할 정도였다. 김구도 당시의 상황을 “선생에게 하직인사를 드리고 난 뒤 우리는 속리산을 구경하고 귀로에 접어들었다. 돌아오는 도중에 곳곳에서 흰 옷을 입고 칼 찬 동학당을 만났다. 광혜원장에 도착하니 수만의 동학군이 진영을 차리고 행인들을 검사하였는데 그곳에서 볼 만한 것은 평소 동학당을 학대하던 양

91 『양호우선봉일기』(『동학란기록』 상, 259-266쪽).

92 『순무선봉진등록』(『동학란기록』 상, 393·395·411쪽).

93 『순무선봉진등록』(『동학란기록』 상, 412-413쪽).

94 『균암 임동호 약력』.

95 『양호우선봉일기』, 갑오 9월 초6일.

반들을 잡아 와서 길가에서 쫓신을 삼게 하는 것이었다.”<sup>96</sup>고 했다. 이들 동학군은 10월 3일에 충북 보은으로 이동하였으며,<sup>97</sup> 경기 지역 동부 동학군과 강원도 일부 동학군들은 황산에 모였고 충주 신재련(辛在蓮) 휘하의 동학군들은 복평(浹坪)으로 모였다. 이들 동학군은 충의대도소(忠義大都所) 대접주 손병희가 지휘하였다.

수원 지역 동학군은 호서 지역 동학군과 대오를 재편성한 다음 10월 5일에 보은으로 향하였다. 이는 군기를 확보하기 위해 괴산관아를 습격하기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6일 아침 괴산읍으로 전진할 때 병력을 두 갈래로 나누었다. 절반은 북쪽 길로 들어가고 절반은 남쪽 길로 들어가 협공하기로 했다. 북쪽 길로 가던 동학군은 괴산읍 북방 6km 지점인 당동(唐洞)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를 미리 알고 매복하고 있던 일본군은 일제히 사격을 가해왔다. 일본군 하라다(原田) 소위는 10월 5일 괴산에서 동학군이 공격해 온다는 보고를 받고 길목이 좁은 당동으로 나와 포진하고 있었다. 동학군과 일본군의 당동전투는 오래 가지 않았다. 일본군은 동학군의 맹렬한 반격을 받고 오전 11시 30분경에 패주하였다. 한편 남쪽으로 들어간 동학군은 수성군이 도망쳐 버려 무혈입성을 하였다. 당시 전투 상황은 다음과 같다.

지난(11월) 3일(음 10월 6일) 하라다(原田) 소위가 2개 분대를 인솔하고 충주에서 괴산 지방까지 정찰하던 중 적군 약 2만 명을 만나 격전을 벌이다가 다음 날(4일) 오전 6시에 충주로 돌아왔다. 하라다 소위 이하 4명이 부상했으며 사병 1명이 즉사했다.<sup>98</sup>

10월 6일에 동학도는 두 갈래로 들어왔다. 일본군 25명은 북쪽에서 동학도가 다가오자 출동했다. 남쪽으로 들어오는 적은 수성군이 맞아 싸웠으나 병력이 적어 버틸 수 없었다. 북쪽에서도 일본군 1명이 사망하였다. 수성군과 부민도 11명이 죽었고 중상자도 30여 명이나 되었다. 5동의 민가도 500여 채가 불탔으며 공해도 모두 파손되었다.<sup>99</sup>

수원을 포함한 경기와 호서 지역 연합 동학군은 일본군과의 첫 전투에서 승리하자 사기가 충천하였다. 8일에는 보은 장내리에 이르러 11일까지 머물렀다.<sup>100</sup> 그러나 이곳에서 이천 출신의 홍복용(洪卜用), 안성 출신의 신덕보, 용인 출신의 이청학 등이 포살되었다.<sup>101</sup>

96 김구, 『백범일지』, 나남출판, 2002, 30쪽.

97 『양호우선봉일기』, 갑오 10월 초7일.

9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443쪽.

99 『순무선봉진동록』, 갑오 10월 15일.

100 『양호우선봉일기』, 갑오 10월 15일.

101 『양호우선봉일기』, 갑오 10월 16일.

보은에서 충경포(忠慶包)와 문청포(文淸包) 동학군과 합류한 다음 11일에 청산으로 이동하였다.<sup>102</sup> 당시 청산에는 영동과 옥천 지역 동학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총기포령을 내렸던 최시형은 호남동학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에 나설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곳에 집결한 수원 지역과 호서 지역 동학군은 통령이 된 손병희를 중군으로 하여 경기 안성의 정경수(鄭璟洙)를 선봉진(先鋒陣), 이천의 전규석(全奎錫)을 후군으로 삼고, 광주 이종훈(李鍾勳)을 좌익, 황산 이용구(李容九)를 우익으로 하는 등 동학군을 재편성하였다.<sup>103</sup>

이어 10월 12일(양 11월 8일)에 수원 및 호서·경기 지역 동학군은 두 갈래로 나뉘어 논산으로 향하였다. 하나는 회덕(懷德)과 지명(芝明)을 거쳐 논산으로 향하였고,<sup>104</sup> 다른 하나는 영동을 거쳐 논산으로 직행하였다. 논산으로 합류한 수원 지역 동학군은 전봉준·손병희와 함께 공주성을 공략하였다. 그러나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패배한 동학군은 경천으로 후퇴하였다. 그 후 동학군은 고부까지 후퇴하였다가 12월 1일에 임실 오수(獒樹)로 넘어와 장수와 무주, 12월 9일에 영동을 거쳐 충북 보은까지 퇴진하였다. 그리고 보은 북실에서 최후의 전투를 하였다.

17일 오후 10시 30분 상주 한병(韓兵) 240명은 왼쪽 큰길로, 소관(桑原少尉)은 부하 14명과 이세가와 군조의 1개 분대를 이끌고 오른쪽 산길로 들어갔다. …… 동학도 약 1만 명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고 있었다. …… 사격하고 돌입하자 그들은 마을 밖으로 달아났다. …… 이때가 오전 3시다.

…… 18일 아침 8시경에는 동학군이 함성을 지르며 공격해 왔다. …… 패주를 가장하여 200m가량 후퇴하였다. 그러자 함성을 지르며 맹공해 왔다. 거의 80m 안까지 들어왔다. 이때 일제히 사격하자 제1선이 머뭇거렸다. 아군은 틈을 주지 않고 돌격하자 그들은 두 갈래로 달아났다. …… 이때가 오전 10시였다. 적도의 전사자는 300여 명이고 노획한 무기도 수십 점이었다.<sup>105</sup>

북실전투에서 2,000여 명의 동학군이 학살되었다. 여기에는 수원 지역 출신의 동학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수원 지역 동학군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충북 황산으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보은 청산을 거쳐 논산, 공주 우금치전투에 참여하였다. 그 후 호서 지역 동학군과 함께 후퇴하였고 최후의 전투인 북실전투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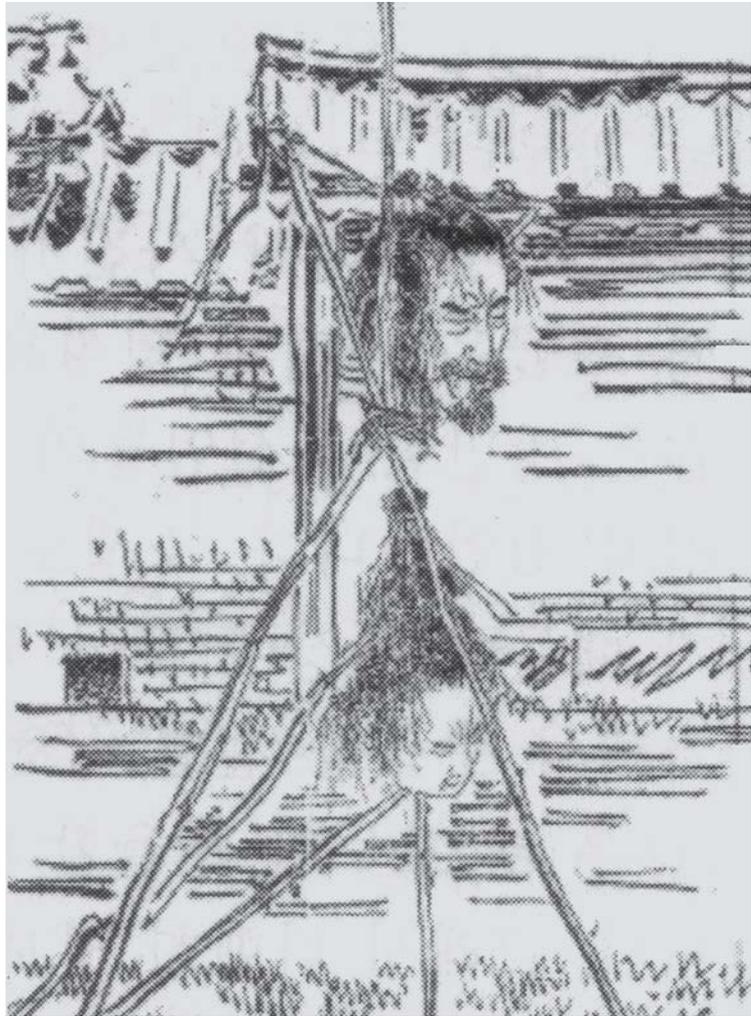
102 『양호우선봉일기』, 갑오 10월 15일.

103 『친도교회사초고』, 466쪽.

104 『순무사정보첩』 기26(『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16, 312쪽).

10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국사편찬위원회, 1991, 68~70쪽.

在居憂云使之起復從戎何允之○兩湖都巡撫營以水原匪魁金鼎鉉安承寬梟孽啓○初五日○初六日議政府啓洪牧移拜完伯今已多日矣聞此州處在湖沿衝要而該倅備豫有方匪類不敢入境附近七八邑倚以為重耆紳士民踵至願借誠有臨陣易將之歎前洪州牧使李勝宇特為仍任全羅監



김내현과 안승관 처형 기록(『고종실록』, 고종 31년 10월 4일)

동학군 김내현과 안승관 효수 장면(『메사마시신문』, 1895년 2월 8일)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일부에서는 수원에서 호남 지역 동학군의 활동에 호응하기 위해 김내현과 안승관 등은 화성을 공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내현과 안승관은 관군에게 피체되어 효수를 당하였다.<sup>106</sup> 이 외에도 마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황성도 역시 수원부에서 효수당하였다.<sup>107</sup>

106 『고종실록』 권32, 고종 31년 10월 4일.

107 『선봉진일기』, 갑오년 10월 21일.

이로 볼 때 수원 지역의 동학군은 크게 세 지역에서 나누어 활동하였다. 첫째 동학농민 혁명 초기에는 충청도 내포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둘째 후기에는 충청도 황산과 공주 우금치, 보은 북실 등지의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셋째 수원에서 호남 지역과 호응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수원 지역 동학군은 다양한 지역에서 항일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형목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1. 국채보상운동의 배경
2.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
3. 국채보상운동의 특성과 의의



## 제2장

# 수원의 국채보상운동

### 1. 국채보상운동의 배경

일본은 청일전쟁을 전후로 조선에 대한 적극적인 차관공세에 나섰다. 이는 경제적인 침략을 통하여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예속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아관파천(俄館播遷) 이후에는 철도부설권·광산채굴권·산림벌채권 등 각종 이권 획득에 동분서주 하였다.<sup>1</sup>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1904년 8월 이후 차관공세는 더욱 적극적이었다.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없었던 일본은 차관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 상인들도 유통권을 장악하는 데 혈안이었다. 오늘날 다국적 기업에 버금가는 거대한 자본은 국내 경제계를 독식하여 나갔다. 일제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책으로 토착자본은 일시에 붕괴되었다.<sup>2</sup> 기형적인 경제구조는 만성적인 식량난과 더불어

1 이배용, 「일본과 광산이권」, 『한국근대광업침탈사연구』, 일조각, 1989.

2 강창석, 『조선통감부연구』 II, 국학자료원, 2004.



자본주의적 침략을 묘사한 삽화(『Le Petit Journal』, 수원박물관 소장)

민중생존권을 위협하였다. 하와이·멕시코 이민과 연해주·만주 등지의 대량적인 유이민은 이러한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sup>3</sup>

재정고문 메가타 슈타로(目賀田種太郎)는 1906년까지 4차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1,15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관을 도입하였다. 화폐개혁을 구실로 한국인 자산을 수탈하는 한편 식민지용 화폐인 제일은행권의 유통·보급에 앞장섰다.<sup>4</sup> 실질적인 구매력이 없는 통화를 차관으로 하여 식민지화에 필요한 제반 경비가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금융공황을 초래하여 한국 경제계를 파산상태로 내모는 가운데 일본의 금융독점을 강화시켰다.

1906년 통감부를 설치한 일제는 시정(施政) 개선과 기업자금 명목으로 막대한 차관을 도입하였다. 문명국가 건설을 표방한 시정 개선은 명목에 불과할 뿐이었다. 실체는 한국 침략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고율의 국채로 기채(起債)하고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조달하였다. 차관공세에 따라 국채는 1,300여 만 원에 달하게 되었다. 부채는 대한제국 1년 예산에 버금가는 엄청난 액수였다.

이러한 정치·경제적인 침략 강화는 민중의식을 크게 각성시키는 요인이었다.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국권회복을 위한 자립경제운동 활성화로 이어졌다. 대일 부채 증가는 곧바로 일제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확대시켰다. 국권회복은 자립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가능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에 선각적인 지식인과 자본가들은 국채보상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광문사 사장 김광제(金光濟)와 대구 지역 재계 선각자 서상돈(徐相敦) 등의 발의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대구민의회(大邱民議所 : 현 대구상공회의소) 회장단 재임 시 일제의 경제 침략으로부터 벗어나 자립적인 경제권 수호를 주창한 인물들이었다. 이는 1907년 1월 29일 대구광문사에서 처음 발의되었다.<sup>5</sup>

서상돈의 발의에 참석한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찬동하였다. 김광제는 발기 연설을 마친 직후 당장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발기인들은 김광제와 서상돈 공동명의로 「국채1천3백만원보상취지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sup>6</sup> 대구광문사와 대동광문회(大東廣文會) 발기 소식은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제국신문』 등을 통하여 각지에 알려졌다. 일

3 김형목, 「멕시코 이민 전후 한국의 정치·사회 동향」, 『아시아·아메리카 연구』 5-1, 단국대 아시아·아메리카연구소, 2005.

4 김혜정,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고문정치 실시와 목적 - 재정고문 목하전종태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66-72쪽.

5 김형목, 「나랏빛은 땅국임을 일깨운 선각자, 김광제·서상돈」, 『순국』 242,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2011, 56-60쪽.

6 이동연,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의 깃발을 세운 김광제」, 『대구의 문화인물』 1, 대구광역시, 2006, 106-108쪽.



장지연의 「단연보국채」 논설 (『황성신문』, 1907년 2월 25일)

제 침략에 고통을 받던 각계각층은 자발적·경쟁적으로 모금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들은 국채를 ‘자신들 부채’로 인식할 정도였다.

2월 22일 서울에 거주하는 김성희(金成喜)와 김상만(金相萬) 등은 국채보상성회를 조직하는 동시에 「국채보상기성취지서」와 「국채보상기성회회칙」 등을 발표하였다. 대한 매일신보사·상동청년학원사무소 등 의연금 수전소(收錢所)로 8곳을 지정하는 등 중앙 기구로서 성격을 천명하였다. 윤흥섭(尹興燮)·박규순(朴圭淳)·서병염(徐丙炎) 등도 「국채보상포고문」을 발표한 후 국채보상중앙의무사를 조직하였다.<sup>7</sup> 이들은 수금소로 황성신문사를 지정하는 등 모금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장지연(張志淵)은 『황성신문』에 「단연보국채(斷煙報國債)」라는 논설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2월 26일 광무황제의 단연보상 참여는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영친왕 길례(吉禮)도 음력 7월로 연기하는 등 국채보상운동의 전국적인

7 김형목, 「나랏빛은 땅국임을 일깨운 선각자, 김광제·서상돈」, 『순국』 242,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2011, 61쪽.

확산에 부응하였다. 대한매일신보사의 사원 단연 결의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는 각계각층의 동참을 유도하는 ‘기폭제’였다.<sup>8</sup> 3월 1일 대한자강회 임시평의회는 김광제의 국채보상에 관한 의안을 수리하였다.

여성들은 통일적인 참여를 위한 모금단체를 결성하였다. 2월 23일 대구 남일동 정운갑 모친 서씨, 정운화 처 김씨, 서병규 처 정씨, 서학균 처 정씨 등 7인은 패물폐지부인회를 조직하였다.<sup>9</sup> 논리는 남녀평등론에 의한 사회적인 존재로서 역할 분담과 의무 수행이었다. 이는 각지 여성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진주에 사는 기생 부용(芙蓉) 등은 진주애국부인회(晉州愛國婦人會)를 조직한 후 취지서를 발표하였다.<sup>10</sup>

여성들의 적극적인 동참은 국채보상운동을 한 차원 승화시키는 계기였다. 생계조차 곤란한 결인·고용인·노복, 사회적인 존재로서 버림받은 백정·무당·죄수 등도 의연금 모금에 동참하였다. 5~6세에 불과한 아동들도 세뱃돈을 의연하는 등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널리 칭송되었다. 인천·원산 등 개항장에 거주하는 일본인, 평북 영유 이화학교(梨花學校) 일본인 교사 사마야나기(正柳好彬) 등도 모금활동에 적극적이었다. 극소수 친일파를 제외한 전 민족적인 참여는 국민운동으로 승화되는 밑거름이었다.<sup>11</sup>

일본 유학생 친목단체인 태극학회(太極學會)도 총회에서 단연과 금주 단행을 결의하는 한편 의연금을 황성신문사로 보냈다. 미주 지역 동포들은 공립협회(共立協會)를 중심으로 모금한 돈을 대한매일신보사에 의연하였다. 부인들은 격려 「의연서」까지 보내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는 교포들도 의연에 나섰다. 이러한 해외 한인들의 의연금 동참은 국채보상운동을 추진시키는 자극제였다.

## 2.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

### 1) 국채보상취지서의 배포

국채보상을 위한 모금활동은 수원으로 전파되었다. 경부선은 승객이나 물류뿐만 아니

8 대구상공회의소, 『국채보상운동사』, 1997, 52-69쪽.

9 「탈환회취지서」,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23일 잡보.

10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128-130쪽.

11 김형목, 「나랏빛은 땅국임을 일깨운 선각자, 김광제·서상돈」, 『순국』 242, 대한민국의순국선열유족회, 2011, 64-65쪽.

兩氏愛國 京畿道觀察署理叅書  
 官金漢陸氏와該道主事羅基貞氏가  
 今番에國債報償을爲하야大邱徐  
 相敦氏의斷烟同盟을支助하야  
 國債報償金募集事務支所를水原郡  
 鍾路에特設하야人民을勸諭하야隨  
 力助納케하야各郡에亦將行  
 文하야家諭戶說에期有實效케하  
 니同兩氏의聲譽를飽聞已久러니可  
 謂名不虛傳이라는輿評이有하더라

국채보상금모집사무지소를 수원 종로에 설립한 나기정과 김한목(『황성신문』, 1907년 3월 2일)

라 대구에서 전개되는 ‘장엄한’ 소식까지 전해 주었다. 경기도관찰사 서리 김한목(金漢睦)과 주사 나기정(羅基貞)은 수원 종로에 국채보상금모집사무지소를 설립하였다. 이들은 관내 각 군수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훈령하기에 이르렀다.<sup>12</sup> 영어삼학당(삼일남학교 별칭) 찬성회장 김제구(金濟九)와 서기 이하영(李夏榮)·임면수(林勉洙) 등의 「국채보상취지서」 발표는 대단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진정한 국민의무는 애국에 있으며, 정성스러운 애국은 오로지 보국안민과 관련됨을 일일이 논할 필요조차 없다. 1,300만 원 외채에 관한 여러 풍설이 나라 안에 전파된 이

후로 유지한 선비와 백성이 서로 돌아보며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미상 불 분발하여 창론함에 이 거액의 외채를 갚을 계획이다. 다행히 충의와 뜨거운 정성이 먼저 영남의 신성한 땅에서 일어나 단연동맹이 우리 2천만 동포의 뇌리를 고동(鼓動)하여 마을의 우부치부(愚夫痴婦)와 아이들은 물론 심지어 병든 걸인까지 힘을 다해 의연하는 자가 구름같이 모여들고 물 솟듯 하는지라. ....<sup>13</sup>

이들은 국한문으로 된 취지서 수백 매를 자비로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재물을 가볍게 여긴다.”는 취지로 거리 홍보에도 적극적이었다. 각 군에도 취지서를 무료 배포하는 등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다. 2~3일 만에 의연금 수백 원이 모금될 정도로 대단한 호응을 얻었다.<sup>14</sup> 도내 국채보상운동은 이들 노력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았다. 경쟁적으로 전개된 활동상은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15</sup> 재무원인 나성규(羅聖奎)·차유순(車裕舜)도 운영 경비를 부담하는 등 매우 열성적이었다. 이들은 의연금 모금을 자신들의 최소한 ‘사회적 의무’ 라고 인식할 정도였다.

12 「양씨 애국」, 『황성신문』, 1907년 3월 2일 잡보.  
 13 「국채보상취지서」,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29일 잡보; 대구상공회의소, 1997, 『국채보상운동사』, 117~118쪽.  
 14 「奮發義氣」,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9일 잡보; 「三씨奮義」,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26일 잡보; 김형목, 「한말 수원지역 개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16쪽.



임면수(삼일상업고등학교 소장)



이하영(삼일상업고등학교 소장) 뒷줄 가운데가 이하영이다.

## 2) 자발적인 의연금 모집

성공회 신부 부재열(夫在烈)의 참여는 신도와 주민들을 각성시키는 동시에 동참을 유도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sup>16</sup> 교인들은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국채의연금 모금 소식을 듣고 구화(舊貨) 120원 40전을 의연하였다. 이러한 소식은 순식간에 관내로 파급되어 나갔다. 용주사(龍珠寺) 승려 25인도 의연금 모금에 동참하였다. 어려운 재정에도 12원이라는 거금을 희사하는 등 참여를 마다하지 않았다.<sup>17</sup> 특히 부녀자들에게는 신앙활동을 통하여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을 단위나 문중 단위로 전개된 모금활동에서 당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상흥남면(床笏南面) 광산 김씨 문중은 11원 20전을 의연하였다.<sup>18</sup> 다른 집성촌도 이러한 모금에 편승하는 등 경쟁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다. 토진면(土津面) 도호(桃湖)와 문시 목동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sup>19</sup> 상무사 두령 임흥수(林興洙), 송윤명(宋允明) 등은 300여 원을 모금하였다. 이들은 일제 상인들의 유통망 장악을 저지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sup>20</sup> 이

15 이상근, 「경기지역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0; 차선혜, 「국채보상운동」, 『경기도사(한말)』 6,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4, 343~347쪽.

16 「姑爲領收」,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21일 잡보;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5일 광고; 「국채보상의연금수입액」,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9일 광고.

17 「국채보상의연금수입액」,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9일 광고.

18 「水原床笏南面兩洞光山金氏宗中」, 『황성신문』, 1907년 5월 10일 광고.

19 「水原土津面桃湖」, 『황성신문』, 1907년 8월 20일 광고; 「수원문시면목동」,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25일 광고.

20 「商社義捐」,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11일 잡보.

水原床笏南面兩洞光山金氏宗中  
 金在冕卅錢、金在雲拾錢、金在俊  
 三拾錢、金在淳、金在邦各拾錢、金  
 在完三十錢、金在明五十錢、金  
 在達三十錢、金在浩、金東鉉、金  
 允鉉各十錢、命淸鉉、金達鉉各一  
 兩、金明鉉四拾錢、金義鉉、金季  
 鉉、金景鉉、金淳鉉各十錢、金伯  
 鉉三十錢、金智鉉四十錢、金大鉉  
 金弼鉉各二十錢、金周鉉一兩、金  
 貞鉉、金永祚、金永愛、金翰洙各  
 五十錢、金俊鉉十錢、金永祿一兩  
 金永學四十錢、金永殷三十錢、金  
 仁洙二十錢、合新貨十一圓二十錢

수원 상흥면 광산김씨 문중의 국채보상 참여(『황성신문』, 1907년 5월 10일)

는 상인층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상무사도중(商務社都中) 양성관(梁性寬) 등도 172원 15전이라는 거금을 의연하였다.<sup>21</sup> 관내 장사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의 분발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퇴촌면 집강 김두현(金斗鉉)도 국채보상 의연에 열성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70여 원을 모금한 후 이를 부내 수금소에 전달하였다.<sup>22</sup> 세뱃돈을 의연한 사례는

미담으로 크게 보도되었다. 6세에 불과한 신천동(申天動)의 의연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수원부 내에 6세아 신천동이가 국채보상의 다른 지역 연조(捐助)함을 보고 세배 시 다른 사람에게 얻은 50전을 해회(該會)에 내납(來納)하였다. 오매간(寤寐間)에 국채보상 4자를 구불절성(口不絕聲)하는 고로 부근 마을 사람이 개왈(皆曰) 황천감동(皇天感動)하였다 한다더라.<sup>23</sup>

이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될 정도로 칭송되는 분위기였다. 어린 아동에 대한 찬사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관립수원농림학교, 수원공립보통학교 직원과 학생 등도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학생들 활동에 대한 보도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커다란 자극제였다.<sup>24</sup>

1907년 8월 초까지 계속된 모금 현황은 현지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부내 신기장동 상민계와 발안·안중·김량장·오산 등지 상인층은 장시를 중심으로 모금하였다. 장시일은 주민들에게 국채보상에 대한 의미를 선전하는 데 매우 적합한 현상이었다. 상인들은 각지에서 전개되는 국채보상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데 노력하였다.<sup>25</sup>

단연운동은 곧바로 금주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기반

21 「상무사도중」,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7일 광고.

22 「執綱忠義」,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11일 잡보.

23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100주년기념자료집: 대한매일신보편』 3,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대구흥사단, 2007, 265쪽.

24 「수원공립보통학교」, 『황성신문』, 1907년 6월 22일 광고; 「관립수원농림학교생도」,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21일 광고.

25 김형목,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17쪽.



조성으로 확산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자립경제운동과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  
 제까지 비약되는 계기였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생활여건 개선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김문옥(金汶昊)과 이동근(李東根) 등은 이를 주도하였다.<sup>26</sup> 수원에서 모  
 금된 주요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수원 지역 국채보상의연금 모금 현황<sup>27</sup>

거주지	성명	금액	특성	전거
부내 성당	부재열·김만준 등 신도	120원 40전 (60원 20전)	신부·전도사·신도	大 1907. 3. 21; 1907. 4. 5.
현남 이동	정창진 등 4	1원 20전		황 1907. 4. 10.
서울	정환규	1원	정3품	大 1907. 4. 13.
송동 시곡리	조익승 등 3인	90전	문중	大 1907. 4. 16.
청오 오산	이명삼 등	53원 65전		황 1907. 4. 17.
관내	윤태종 등 36인	27원	농림학교 생도	大 1907. 4. 21.
형석	윤병장 등 149인	30원 10전		만 1907. 4. 23.
오정	김용삼 등 주민	당오 1,356냥		황 1907. 4. 26.
서신리 현곡	박치백 등	29원 10전		황 1907. 4. 30.
문시 금암	전기명 등	15원 40전		황 1907. 5. 1.
용주사	승도 25인	12원	승려	大 1907. 5. 9.
부내	성당 신도	60원 20전	신도	大 1907. 5. 9.
상홀 남면	김재면 등	11원 20전	광산 김씨 문중	황 1907. 5. 10.
정림 2동	최광석 등 18인	10원		大 1907. 5. 14.
초평 가수동	이한익 등	당오 5,365냥		황 1907. 5. 20.
오정	4개 동민	22원 40전		만 1907. 5. 18; 1907. 5. 19.
남부 독산동	이학중 등 44인	8원 4전		만 1907. 5. 22.
태촌 매탄리	김창근 등 40인	8원 50전		만 1907. 5. 23.
종덕	3개리 주민	26원		만 1907. 5. 26.
남부 원천동	신석현 등 6인	15원 50전		만 1907. 5. 28.
남곡 귀래동	서상환 등 35인	8원 96전		大 1907. 5. 29.
매곡 원평리	양필환 등 54인	10원 24전	아동 다수	大 1907. 6. 8.
부내	임홍수·송윤명	300원	상업	大 1907. 6. 11.
태촌	김두현	70원	집강	大 1907. 6. 11.
부내	차유순·나성규	283원 8전	국채보상회 재무원	大 1907. 3. 9; 1907. 3. 29; 1907. 6. 11. 대 1907. 7. 7.
부내	신천동	50전	아동(6세)	大 1907. 6. 11. 대 1907. 7. 7.

26 『斷酒違約』,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20일 잡보.

27 大는 『대한매일신보(국한문혼용관)』, 대는 『대한매일신보(한글관)』, 황은 『황성신문』, 만은 『만세보』를 각각 의미한다.

거주지	성명	금액	특성	전거
부내	김병천 등	당오 5,787냥 5전	공보교 학생	황 1907. 6. 22.
문시 목동	이면구 등 17인	5원 30전	문중	大 1907. 6. 25.
남창동	이용훈	2원		대 1907. 7. 4.
부내	양성관 등	172원 15전	상무사 도중	대 1907. 7. 7.
숙성 단교동	김현영 등 20인	8원 60전		대 1907. 7. 17.
청룡 덕우리	이신의 등 32인	9원		대 1907. 7. 17.
문시 세교	나학연 등 16인	8원 10전		대 1907. 7. 17.
부내 군기동	서춘근 등 27인	6원 25전		대 1907. 7. 17.
양한 6개 동	김찬수 등 69인	13원 90전		대 1907. 7. 17.
삼봉 분천	이계환 등 동민	6원 80전		대 1907. 7. 17.
초평 서촌	유관오 등 3인	3원		大 1907. 7. 25.
초평 서촌	김청철	1원		大 1907. 7. 25.
부내	박용태 등 38인	15원 75전	유기상	大·대 1907. 7. 31.
부내	김순원 등	56원 50전	상인, 계원	大·대 1907. 8. 3.
발안	김운삼 등 63인	23원 30전	상인	大·대 1907. 8. 3.
오산	김명현 등 45인	21원 85전	상인	大·대 1907. 8. 3.
안중	김기순 등 26인	13원 10전	상인	大·대 1907. 8. 3.
토진 도호(桃湖)	신철우 등	49원 34전	신씨 문중 등	황 1907. 8. 20.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수원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이 경쟁적일 만큼 열성적으로 전개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문중이나 마을 단위 참여는 국채보상을 사회적인 책무로 인식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교직원과 학생들도 이와 유사한 인식에 따라 동참하였다.

### 3. 국채보상운동의 특성과 의의

수원 지역 국채보상운동은 인근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관료나 성공회·불교계 등 종교계 인사들은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근본적인 지향점은 국권회복에 있었다. 이러한 수원 지역 국채보상운동의 특징과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상인층의 적극적인 동참이다. 이는 국채보상운동을 추동시킨 원인 중 하나인 자립경제 수립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오늘날 ‘다국적 기업’에 버금가는 무차별적인 일체의 경제 침탈은 상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였다.<sup>28</sup> 상업자본화 이전 단계

28 이창식, 「조선시대 이후의 수원시장」, 『기전문화』 1, 기전향토문화연구회, 1986, 30~34쪽.



성원시장의 수원 상인(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에 놓인 토착자본은 러일전쟁 발발을 전후로 전면적인 붕괴에 직면하였다. 경성상업회의소를 비롯한 일부 상업자본가는 식민체제 내로 포섭되는 등 예속자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sup>29</sup> 반면 자생적인 발전을 모색한 상인층은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이었다. 즉 자신들의 사회적인 존재성을 알리는 동시에 긴밀한 유대감과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교류에 의한 소통은 상인층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29 전성현, 「한말~일제 초기 경성상업회의소의 설립과 활동」, 『역사연구』 8, 역사학연구소, 2000, 127~139쪽.

둘째는 문중 조직 등을 포함한 향촌사회 공동체의 모금방식이다. 일제 침략에 대응한 집단적인 저항은 조선 후기 향회(鄉會) 운영방식을 계승 발전시킨 경우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공동체적 강제력은 주민들 상호 간에 경쟁심을 촉발시켰다. 각지 의연금 모금도 이러한 요소와 맞물려 있었다.<sup>30</sup> 의연금 모금주체는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가운데 공동적인 관심사로서 부각시킬 수 있었다. 특히 동계(洞契) 운영에 의해 마련된 공동기금은 공동체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는 주민들의 소망이나 염원 등이 반영되어 나타난 현상이었다.

셋째는 종교인과 관료들의 주도적인 활동이다. 부재열 신부나 용주사 승려들의 활동은 당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종교기관이나 신도들의 활동은 교세 확장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처럼 교육기관 운영과 모금활동은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방안이었다. 나기정·김한목 등 관료들의 동참과 지원도 이러한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일부는 이를 사회적인 의무이자 책무로 인식하고 실천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up>31</sup>

넷째는 공교육 부진과 달리 국공립학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이다. 관립수원농림학교와 수원공립보통학교 교원과 학생들의 의연은 이를 반증한다.<sup>32</sup> 이외는 달리 20여 개교에 달하는 사립학교 의연금 동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민족운동 동참은 '사회적인 책무'를 인식하고 체험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동기였다. 3·1운동 이후 '노학연계'나 야학운동 활성화는 이러한 역사적인 연원에서 비롯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성단체의 모금이 전무한 것이다. 이는 개별적으로 여성들 참여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원 지역 「국채보상취지서」 발기인의 부인 중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의연금 대열에 동참하였다.<sup>33</sup> 한말 계몽적인 여성단체 조직과 활동은 이후 최시의(崔是議)를 중심으로 조직된 수원부인회가 거의 유일하다. 국채보상운동을 실행하기 위한 여성단체 조직은 계획이나 움직임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인근 남양 지역의 경우 김희경, 김혜경, 안마리아 등이 의성회(義誠會)를 조직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sup>34</sup>

수원인의 열의와 경쟁적인 의연에도 불구하고 국채보상운동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는 외형적인 성과일 뿐 민중의 현실인식은 심화되고 있었다. 의연금 모금 대열 참여는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상을 체험하는 '현장교육'이었다. 뼈저린 경험은 현실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나갔다.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 고조와 근

30 김형목, 「대한제국기 경북 김천지역 계몽운동 전개와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72쪽.

31 김형목,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2007, 20쪽.

32 「관립수원농림학교생도」,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21일 광고; 「수원공립보통학교」, 『황성신문』, 1907년 6월 22일 광고.

33 김형목, 「3·1운동에서 거둔다는 수원지역 여성들」,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향토사연구협의회, 2008.

34 김형목, 「대한제국기 화성지역 계몽운동의 성격」, 『동국사학』 45, 동국사학회, 2008, 74쪽.

대교육 확산은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 활동가에 의하여 조직된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 수원지회는 이후 문화계몽운동을 주도하는 중심 단체였다. 이들의 부단한 노력은 지회 설립인가로 귀결되었다. 최성대(崔成大)와 이하영 등 39인은 「설립인가청원서」를 본회에 제출하였다. 본회는 수원 지역 근대교육 확산을 위하여 교육부장 김가진(金嘉鎭)과 평의원 조완구(趙琬九)를 특별위원으로 파견하였다. 시찰원 보고서를 토대로 1908년 6월 14일 평의회에서 이순하(李舜夏)의 동의로 설립인가를 가결시켰다.<sup>35</sup> 수원지회원들은 근대교육 보급에 전력을 기울였다.

「사립학교령」과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을 시행하여 근대교육운동을 탄압하여도 국권회복운동은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 참여를 통한 경험은 수원인들에게 위기의식을 일깨우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곳의 의연금 모금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개신교인, 전현직 관리, 자산가 등이었다. 이들은 「국채보상취지서」를 도내 각 군에 발송하는 등 거국적인 동참을 호소하였다. 신부 부재열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도들의 동참과 지원을 유도하는 데 앞장섰다. 용주사 승려 동참은 경쟁적인 의연금 모금으로 이어졌다. 특히 6세 아동 신천동은 세뱃돈을 기꺼이 의연하여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히 상인층의 적극적인 참여는 주민들에게 ‘국채 = 국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는 실력양성을 위한 문화계몽운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주민 부담에 의한 사립 학교·의숙·강습소 설립이나 운영 등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 삼일학교나 수원상업강습소 교육 내실화는 변혁운동 경험에 의하여 도모되었다. 특히 상무정신 고취를 위한 연합운동회 개최는 주민들의 열광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졌다.<sup>36</sup> 국채보상운동이 지닌 지역운동사적 의의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성의 국채보상운동 참여는 이들에 대한 기존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였다. 여성에 대한 편견도 점차 사라지는 계기를 맞았다. 20세기 초반 전래된 개신교나 성공회 등은 사회활동을 통하여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는 데 앞장섰다. 나기정의 부인 최시희는 수원부인회를 조직하는 등 시세 변화에 적극 부응하는 입장이었다. 목적은 여성교육 보급과 자선사업을 통한 여성 지위 향상에 있었다.<sup>37</sup>

일부 여성들도 교회와 여학교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점차 자각하였다. 여

35 「勸諭發行」, 『황성신문』, 1908년 6월 10일 잡보; 김형목, 「기호흥학회 경기도 지회 현황과 성격」, 『중앙사론』 12·13, 중앙사학연구회, 1999, 72-75쪽.

36 김형목,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동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38쪽.

37 「一家教育」, 『황성신문』, 1908년 12월 23일 잡보.

성들의 '유일한' 사회 활동공간이자 의견 수렴은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삼일여학교가 수원 여성교육의 요람지로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에서 찾아진다. 사회운동 참여에 따른 다양한 경험과 소통은 3·1운동을 기점으로 수원 여성운동을 진전시키는 밑거름이나 마찬가지였다. 나아가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 금주단연운동, 소비조합운동 등도 이를 계승하는 가운데 진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김형목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1. 수원 사회의 근대적 변화
2. 계몽단체의 활동과 인식 변화
3. 근대교육운동의 진전
4. 계몽운동의 성격



## 제3장

# 수원의 애국계몽운동

### 1. 수원 사회의 근대적 변화

수원에서 근대사회 도래는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동학 계열의 수원 지역 진보회(進步會)와 일진회(一進會)는 일찍부터 문명개화를 기치로 주민들 규합에 나섰다. 일진회 집회 시에는 150여 명이나 운집할 정도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1904년 12월 4일 지회 발기일 당시 지회장은 정경수(鄭景洙)였다. 일진회원의 불법행위는 때때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지세 감면을 구실로 농민들을 현혹시키는 등 각종 작폐도 일삼았다. 천도교 수원교구 설립은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였다. 특히 교리강습소는 주민들에게 시세 변화를 일깨우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단순한 교리 강습 차원을 넘어 문명사회의 지향은 민지(民知) 계발로 이어졌다.<sup>1</sup> 문맹 탈출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의 끈이자 빛’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sup>1</sup> 김형목,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2007, 8-9쪽.



경기 남부 지역의 선교 거점인 수원종로교회(1930년대, 수원종로교회 소장)

‘절대자’라는 제한적인 의미를 지닌 만민평등도 신분제 질곡에서 신음하던 민중에게 위안이자 안식처로 다가왔다. 교회는 여성들에게 외부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였다. 1900년 전후에 전래된 개신교 감리교파는 수원인들의 가치관과 현실인식을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는 종교적인 차원을 벗어나 일상을 변화시켰다. 수원 읍내에 설립된 종로교회는 경기 남부와 충청도를 포함하는 사실상 선교 ‘거점지’나 마찬가지였다.<sup>2</sup> 시세 변화에 민감한 수원 지역 명망가는 이곳을 중심으로 계몽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스스로의 능력을 배양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전도활동은 읍내 중심에서 점차 외곽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아펜젤러(H.G. Appenzeller)의 권유로 개신교에 입교한 안중후

(安鍾厚)는 수원 제암리에 교회를 세웠다. 그는 동지를 규합하여 민지 계발을 위한 계몽활동에 앞장섰다. 1902년과 이듬해에 각각 설립된 삼일여학당(三一女學堂)과 삼일학당(三一學堂), 1908년경에 조직된 수원엠피[懿法]청년회의 활동을 통해 이곳에서 개신교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학교와 청년단체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계몽활동가를 양성·결집시키는 중요한 기반이었다.<sup>3</sup> 1904년 전래된 성공회도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일깨우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초기 신앙활동은 사회적인 유대를 통해 상호 간 교류를 증진하는 등 소통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경부선 부설에 따른 수원역 설치의 급격한 사회 변동을 수반하였다. 이로써 수원은 행정·상업·관광·문화 도시로서 점차 부각되는 계기를 맞았다. 도로와 통신망 정비는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추진되어 나갔다. 철도와 수원 읍내 신작로 개설을 통한 원활한 이동은 사회적인 통합을 위한 기제 중 하나였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 정미업·양조업 등의 유망한 업종은 유통망을 확대시켰다. 일제시기에라도 이러한 분위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2 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1899~1950』,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종로교회, 2000, 44~59쪽.

3 김세한, 『삼일학원육십오년사』, 수원동중학교, 1968, 34~39쪽; 이창식, 『수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003, 75쪽.



수원역(수원박물관, 소장) 수원역 설치 이후 수원은 행정·상업·관광·문화 도시로서 부각되었다.

오히려 식민 지배체제 고착화와 더불어 더욱 심화되는 양상마저 보였다.<sup>4</sup> 수원상업회의소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였다. 교통 발달은 상업적인 번영과 동시에 주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킨 요인이었다.

수원에는 1900년 일본인 이주 이래 집단적인 일본인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들의 수원 이주가 급증하였는데, 이들에게 수원은 ‘제2고향’으로 인식되는 명승지였다. 식민지화가 강화되면서 수원의 일본인사회는 발전을 거듭하였다.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일본인소학교·은행 등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은 식민 지배의 성과물인 동시에 수탈 기반시설이었다.<sup>5</sup> 식민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경성박람회(京城博覽會)에 출품된 농산물 상단수는 권업모범장에서 재배한 작물이었다. 일제강점기 각종 견학단 관람 등은 일제의 식민농정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908년 12월까지 50호가 발간된 『수원신보(水原新報)』는 이와 관련하여 의미하는 바가 크다.<sup>6</sup> 일본인들은 고리대

4 장흥식, 「我國의 實業觀」, 『태극학보』 2, 태극학회, 1906, 50~53쪽; 김찬수, 「일제하 수원지역의 철도교통」, 『수원학연구』 2, 수원학연구소, 2005, 19~24쪽.

5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일한인쇄주식회사, 1914, 8~9쪽; 「口繪寫眞, 조선의 명승 수원 수유사」, 『조선공론』 2, 조선공론사, 1913; 酒井政之助, 『水原』, 酒井出版部, 1923, 11쪽; 이종일, 「임업의 필요」, 『대한자강회월보』 3, 대한자강회, 1906, 13~15쪽; 나홍석, 「論社會進化之原則하야 以慰志士同胞」, 『대한홍학보』 1, 1906, 25~29쪽.

6 『수원신문』, 『황성신문』, 1908년 3월 10일 잡보; 「水原報의 更刊計劃」, 『황성신문』, 1908년 12월 23일 잡보.

금업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고 유통망 등을 차례로 장악하여 나갔다. 일부 지주들도 이에 편승하여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겼다.<sup>7</sup>

식민지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관서의 확대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켰다. 농촌경제 빈궁화는 지방관이나 지주의 자의적인 수탈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하와이나 멕시코 이민행렬은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이들은 금의환향을 꿈꾸면서 떠났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국제적인 '미아 신세'였다.<sup>8</sup> 만성적인 굶주림은 현실에 대한 비판과 비판으로 증첩될 수밖에 없었다.

## 2. 계몽단체의 활동과 인식 변화

### 1) 계몽단체의 조직과 활동

국망(國亡)에 대한 위기의식은 각종 계몽단체의 결성을 활성화하였다. 남양 지역 유자들은 대한자강회 남양지회를 설립하였다. 이는 수원 지역 활동가를 자극시키는 요인이었다. 기호흥학회 본회도 지회 설립에 박차를 가하였고, 임원진의 부단한 노력으로 1909년 3월 말까지 광주·양근·강화 등 7개 지회가 설립되었다.<sup>9</sup> 최성대(崔成大)·이하영(李夏榮) 등 39인은 「설립인가청원서」를 본회에 제출하였다. 본회는 수원 지역의 근대교육을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 김가진(金嘉鎭)과 평의원 조완구(趙琬九)를 특별위원으로 파견한 후 1908년 6월 14일 평의회에서 설립인가를 가결시켰다.

임원진은 지회장 김종한(金宗漢), 부회장 이계환(李啓煥), 총무 최동필(崔東弼), 서기 이하영, 회계 이용희(李容熙), 간사원 지하영(池河永)·최중순(崔鍾淳)·최송(崔松), 교육부장 박기양(朴箕陽), 재정부장 오철선(吳喆善), 평의원 이종악(李鍾岳)·최익환(崔翼煥) 등 14인이었다. 회원은 임원진을 포함하여 차유순(車裕舜)·나중석(羅重錫)·홍사훈(洪思勳)·이성우(李成雨) 등 55인에 달하였다. 흥학을 위하여 본회는 각지에 권유위원을 파견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수원 지역 사립학교 설립운동을 진전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sup>10</sup> 회원 중 오철선과 최성대는 인근 용인과 남양에 거주하는 외지인이었

7 정수일, 「米豆로 百萬長者된 話實, 愛人일코 墳김에 米豆하여 20만원을 따. 수원에서 서귀다니는 청년 일약하여 백만장자가 되어」, 『삼천리』 1, 삼천리사, 1929, 27~28쪽.

8 김형목,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2007, 11쪽.

9 김형목, 「기호흥학회 경기도 지회 현황과 성격」, 『중앙사론』 12·13, 한국중앙사학회, 2000, 72~75쪽.

**畿湖興學會趣旨書**

惟我畿湖之東精實北之稱이라國家之所倚畀오人民之所標準이니滿惟厥初에人物之盛이燦然可觀이로다論道經邦者아輔敎

皇猷者도于是焉出키며性阿諛嚴者아幹式世道者도于是焉萃키니由是而國有庠序有序者아家以絃戶以誦키니号稱士論之國이良有以也라循是以往키아進化不已면必無今日之現狀이여날積久生弊에馴至有此키니究其原因에誰任其咎에不戢不商키坐視閑俗識所者아珍寶燦盈箱키且田園이遍八域門上玉堂키아迺身縹緲에炙手可熱者아非畿湖人歟아出而虐民搜財키且入而狀若弄權者아非畿湖人歟아近而黨比烟煙키고遠而不得選力者아非畿湖人歟아倚勢努力에武斷曲者아非畿湖人歟아不致子弟에倚入宰者아非畿湖人歟아六洲之位置如何키且莫勿論키且自國之距離廣狹茫然不知其方向키며萬國之歷史如何키且莫勿論키고自國之開元元音雖然不記其甲子키며農業은至精至微之學이여늘一任至愚至蠢之氓키아不加研究키며工業은勸之弊之然後에可進이여늘一掃而空奇巧之製키며乃反誅求無已키商業은是融之通키然後에可旺이여늘以賈賈賈貨之物品官家도有支定키고豪者도以外上키니此皆畿湖人之罪也라靜吾思之에始焉惘然라가中焉悚然이오終焉奮然이로라吾人之罪은吾人이當之오吾人之惡은吾人이改之오安有別人이替當其罪者키며替改其惡者키아嗚呼兄弟여聖天鑒敎社之罪惡키니改之何如오曰奮發也外革新也繼自今으로要國家爲命脉키며要同胞如肢體키아知有公益키고不知有私利키아以道德으로爲可貴키고財產으로爲可輕者書籍을可以廣播오學校을可以廣設이오實業을可以興이오知識을可以開이니以新精神으로發新思想키아要國特性이打成一團키면會則天大罪을以以免以贖키아報答我全國同胞을지나惟我畿湖人是躍起哉어다猛省哉어다歐人一旆放齊에有一學이면即有成之於此키니所以文明進步에雄飛大陸이라今夫我韓에有家思想者一莫不痛恨於海陸軍의無以禦侮와鐵路派軍의無以利用과金銀鐵礦의無以厚生이나孰知其所絕無者와最可憂者가惟學問一事리오苟有是也면白工技藝自可就緒키아綱舉自報키고迎刃破竹이라吾東風氣에西北兩道가最先進明은所共認知라近復初爲學會키아設立學校키며派送遊學者키其當發키如河決伏流키고其湧進이如大刀闊斧키나此는吾人所以引頸拭目에喜不能寐者라畿湖人士도長夜待夢을發欸키未幾아公議所發에異口同聲키아肅設本會에名之以畿湖興學會키고擬欲建設學校에養成俊又키아派送拾遺者아皆是自家事라玉樹芳蘭의爲人奴隷와良田美土의歸人奴隷은想普通人情之所不願이니戮力獻身에一切擔勞키아回輿脉於環旋키고邀幸福於盤餐을切盼至祝者

發起人鄭永澤 李禹珪 李載益等

기호흥학회 취지서(『황성신문』, 1908년 1월 18일)

는데, 이들과의 교류는 강한 유대감 속에서 계몽운동을 추진하는 기반이 되었다.

## 2) 민지 계발과 인식 변화

노동학회 경기지회는 지방관의 주도와 지원으로 조직되었다. 임원진은 지회장 김사홍(金思洪)과 총무 송병두(宋秉斗) 등이었다. 개회식에서 관찰사 김사묵(金思默)과 관찰주사 김한목(金漢睦), 수원군수 서병숙(徐丙肅) 등은 찬조연사로서 이들을 격려했다. 장날에 개최된 축하식에는 5,000~6,000명이나 운집하였다. 동아개진교육회 수원지회도 근대교육 보급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회장 김신묵(金信默)은 읍내 장안동을 중심으로 회원들 상호 간 친목 도모에 노력하였다.<sup>11</sup> 물론 일부 단체는 표방한 의도와 달리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 등 주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었다.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각지에 설립된 노동야학은 시세 변화와 맞물려 발전을 거듭하기에 이르렀다. 노동야학회 수원지회 창립은 근대사회 도래와 더불어

10 기호흥학회, 「지회임원급 회원명부(수원군)」, 『기호흥학회월보』 2, 1908, 61~62쪽; 기호흥학회, 「회중기사」, 『기호흥학회월보』 3, 1908, 50쪽; 「勸諭發行」, 『황성신문』, 1908년 6월 10일 잡보; 「勸諭委員派送議」, 『황성신문』, 1910년 2월 17일 잡보.

11 「開進教育研究」, 『만세보』, 1906년 8월 21일 잡보; 「開進支會」, 『황성신문』, 1908년 1월 31일 잡보; 「支會景況」, 『황성신문』, 1908년 8월 21일 잡보.

‘노동가치’를 일정 부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회장 조영호(趙榮鎬)는 순종황제 즉위 1주년을 맞아 회원들과 함께 제등행렬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노동자의 각성과 아울러 민족정신, 국가정신 등을 북돋우는 계기였다. 단체활동은 다양한 경험 축적과 더불어 시급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요인이 되었다. 물론 임금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불신감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안고 있었다.<sup>12</sup>

조영호는 근대 통신의 상징인 수원우체사 주사로 처음 근무하였다. 당시에는 우편물을 가지고 도망하는 배달부가 적지 않았는데 그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근절책을 농상공부에 건의하는 등 매사에 적극적이었다.<sup>13</sup> 그 후 영변우체사와 전남 광주우체사 주사를 비롯하여 연변우체사 주사, 중추원 의관, 해민원 주사, 정주우체사 주사, 탁지부 세무 주사 등을 지낸 관료였다. 또한 기호흥학회 수원지회 평의원을 역임하는 등 수원 지역을 대표하는 계몽가였다.<sup>14</sup>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될 때에는 서병염(徐丙炎)·윤흥섭(尹興燮)·박규순(朴圭淳)·김영선(金永璿)·강인규(姜寅圭)·서상학(徐相鶴)·성인호(成寅鎬)·박승덕(朴勝惠)·김사홍(金思洪) 등과 국채보상중앙의무사를 조직하였다. 이는 국채보상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 발전시키기 위해서였다. 또한 대한측량총관 경기지회도 자신의 집에 두는 등 시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다.<sup>15</sup>

내적인 변화와 외부에서 유입된 이질적인 문화로 발생한 충격 등은 주민들의 현실인식을 크게 각성시키는 계기였다. 시세 변화에 부응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강연회와 연설회 등 계몽활동은 주민들에게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동시에 시대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하는 등 모순된 현실 타개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게 하였다. 향학열 고조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확산을 거듭했다. 특히 국채보상운동과 근대교육운동 참여는 미약하나마 모순된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였다.<sup>16</sup>

여성들의 국채보상운동 참여는 이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기정(羅基貞)의 부인 최시의(崔是議)는 부인회를 조직하는 등 시세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나섰다. 목적은 여성교육 보급과 자선사업을 통한 여성 지위향상에 있었으나<sup>17</sup> 구체적인

12 김형목, 『대한제국기 약학운동』, 2005, 295~296쪽.

13 『독립신문』, 1897년 7월 29일 외방통신.

14 기호흥학회, 『본회기사, 수원군』, 『기호흥학회월보』 2, 62쪽; 『독립신문』, 1898년 1월 8일 관보, 2월 12일 관보; 『서임급 사령』, 『황성신문』, 1899년 8월 24일 관보; 『서임급 사령』, 『황성신문』, 1899년 9월 12일 관보; 『서임급 사령』, 『황성신문』, 1902년 6월 9일 관보; 『서임급 사령』, 『황성신문』, 1902년 7월 17일 관보; 『서임급 사령』, 『황성신문』, 1902년 7월 18일 관보; 『서임급 사령』, 『황성신문』, 1903년 1월 9일 관보.

15 『國債報償布告文』, 『황성신문』, 1907년 3월 2일 잡보; 『황성신문』, 1909년 4월 21일 광고.

16 김형목,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2007, 20~21쪽.

활동상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나혜석은 부모님의 지원으로 일찍부터 수원의 삼일여학교를 거쳐 진명고등여학교에서 근대교육을 수혜받았다. 일부 여성들도 교회와 여학교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점차 자각하였다. 여성들에게 ‘유일한’ 사회 활동공간이었고 의견을 수렴하던 곳이었다. 자선부인회(慈善婦人會)의 조직과 활동은 여성들의 사회생활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sup>18</sup>

변화에 대한 대응책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질곡의 삶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에서 이질적인 새로움을 수용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등은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조장하였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근대지식의 획득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이었다. 학교는 사회질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밑바탕이었다.<sup>19</sup> 인간관계나 가치관도 변화를 거듭하는 상황이었다. 학교는 근대사회를 상징하는 ‘상징’으로 다가왔다. 을사늑약 이후 사회진화론이 확산되고 위기의식이 고조되자 근대교육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려는 사립학교설립운동과 야학운동이 추진되었다. 이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로 인식되는 분위기였다.

### 3. 근대교육운동의 진전

#### 1) 근대교육의 보급과 내실화

‘을사늑약’ 이후 점증하는 위기의식은 근대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였다. 수원 지역 최초의 근대교육기관인 수원군공립소학교(현 신평초등학교)는 1896년 설립되었다. 그러나 근대교육 전반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교과과정 부실화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sup>20</sup> 공교육 부진은 결국 사립학교를 통한 근대교육의 시행과 진전으로 귀결되었다.

수원의 최초 사립학교는 1900년경 이미 신평동에 설립된 화성학교(華城學校)이다. 1902년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교사는 미와 세이치(三輪政一)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직접

17 「一家教育」, 『황성신문』, 1908년 12월 23일 잡보.

18 「水原陵幸에 節次及 盛況」, 『황성신문』, 1908년 10월 4일 잡보.

19 이지애, 「개화기 ‘배움터’의 변화와 ‘자아찾기’로의 일상성」, 『근대의 첫 경험 - 개화기 일상 문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157쪽.

20 박남훈, 「1896~1905년 경기도의 사립학교 현황과 성격」, 『덕봉오환일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 덕봉오환일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간행위원회, 2006, 494~496쪽.



삼일여학교 김메례 선생 송별회에 참석한 졸업생과 재학생들(독립기념관 소장)

가르치는 등 한국인과 친밀한 유대관계 조성에 앞장섰다. 구체적인 교과과정과 규모는 거의 파악할 수 없지만 설립자와 교사가 일본인이라는 사실로 볼 때 일본어 보급을 위한 '일어학교'임을 알 수 있다. 조선주차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와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勸助)는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의연금을 회사하였다.<sup>21</sup> 이후 학교 임원진은 삼일학교 재정 확충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임면수(林勉洙), 나홍석(羅弘錫), 나경석(羅景錫)은 모두 이 학교 출신이었다.<sup>22</sup>

삼일여학당과 삼일남학당은 수원을 상징하는 근대교육기관이었다. 1902년 설립된 삼일여학교의 운영 주체는 감리교 선교사와 전도사·교인 등이었다. 삼일여학교 교사 김메례(金袂禮)는 지식뿐만 아니라 시세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인격 수양 등을 강조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향학열을 고취시키는 계기였다. 특히 강연회 개최를 통하여 가정교육의

21 한동민, 「근대 수원의 일본인 사회와 일본인학교 - 일어 화성학교와 수원소학교를 중심으로」, 『지배문화와 민중의식』, 한신대학교출판부, 2008.

22 『華校卒業』, 『황성신문』, 1905년 5월 9일 잡보.



삼일학교 남녀학생 (독립기념관 소장)

중요성도 학부형들에게 인식시켰다. 교사이자 사회적인 지도자로서 그녀에 대한 존경심은 학교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었다.<sup>23</sup>

삼일남학교도 개신교 선교사와 신자 등에 의하여 1903년 설립되었다. 주요 발기인은 삼일여학당을 주도한 이하영·임면수·나중석·차유순·김제구·이성의 등이었다. 발전을 거듭하던 중 1906년 경비난으로 폐교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신도들과 선교사와의 갈등이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유지들은 학교 운영비 마련을 위한 의연금 모집에 나섰다.<sup>24</sup> 수원을 대표하는 부호 강석호(姜錫鎬)는 1906년 5월 거금을 의연하는 한편, 학생들 면학 분위기 고취를 위한 '장학금'을 회사하였다.<sup>25</sup> 그는 내시로서 1890년대 이후 기울어가는 조선왕조를 가장 직접적으로 목격한 인물이었다. 을미사변·아관파천·헤이그특사사건·고종양위 등은 대표적인 경우였다. 나중석도 부지 900여 평을 기증하여 새로운

23 기호흥학회, 「학계회문, 女師高明」, 『기호흥학회월보』 7, 1909, 40쪽.

24 「광무 11년 6월일 수원삼일학교 찬성금액」, 『황성신문』, 1908년 2월 6일 광고.



구한국군 출신인 송세호

전기를 마련했는데, 이는 전 주민의 동참으로 이어져 삼일학교 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되었다. 「사립학교령」 시행에 따른 탄압을 모면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원종로교회로 학교 운영권을 이관하였다.

1906년 9월 1일 심상과와 고등과 개편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정이었다. 1년 과정인 심상과 교과목은 성경·국어·역사·한문·산술·영어·체조 등이었다. 3년제인 고등과는 성경·한문·국어·수신·생리·광물·문리·산술·본국역사·본국지리·만국역사·만국지리·작문·도화·체조 등이었다. 교과과정 정비는 교육 내실화를 도모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체조는 매우 중시된 교과목이었다. 군사훈련에 버금가는 병식체조와 행군은 학생들에게 상무정신을 고취시켰다. 담당교사는 구한국군 출신인 강건식(姜

建植)에 이어 송세호(宋世鎬)가 맡았다. 교장 임면수도 관내 사립학교설립운동을 주도하거나 후원하는 등 교육가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주민들 칭송은 그를 수원 계몽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 부각시켰다.<sup>26</sup> 곧 삼일학교는 이곳을 대표하는 근대교육기관으로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1904년 설립된 사립학교의 교사는 오윤선(吳胤善)이었다. 그는 수원군수로 재직하면서 교사로 활동하는 등 흥학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서우학회 참여와 활동도 이러한 의도와 맞물려 있었다.<sup>27</sup> 용주사도 승려 자질 향상과 인근 지역 청소년을 위해 명화(明化)학교를 설립하였다. 교과목은 보통과·일어 등이었고, 설립 초기 출석생은 50명에 달하였다. 특히

25 기호흥학회, 「본회기사, 본회임원명부」, 『기호흥학회월보』 1, 1908, 50-54쪽; 「奉安復命」, 『황성신문』, 1901년 7월 10일 잡보; 「奉侍上奏」, 『황성신문』, 1904년 1월 15일 잡보; 「姜氏退去」, 『황성신문』, 1904년 2월 15일 잡보; 「膳免官」, 『황성신문』, 1904년 5월 7일 잡보; 「宮廷錄事」, 『황성신문』, 1904년 5월 10일 관보; 「姜家警衛」·「奉勅訓令」, 『황성신문』, 1906년 7월 5일 잡보; 「幸免橫罹」, 『황성신문』, 1906년 7월 6일 잡보; 「鮮釋無期」, 『황성신문』, 1906년 10월 26일 잡보; 「광무 11년 6월일 수원삼일학교 찬성금액」, 『황성신문』, 1908년 2월 6일 광고.

26 기호흥학회, 「학계취문, 학계헌신」, 『기호흥학회월보』 7, 1909, 39쪽; 김세한, 『삼일학원육십오년사』, 수원동중학교, 1968, 65·73쪽.

27 「교수고빙」, 『대한매일신보』, 1905년 1월 24일 잡보. “平壤居有志 諸君子가 本社에 寄函함이 如左하니 敬啓者는 夫新聞은 非但全國之言權而乘天下之言權者也故客年十一月에 遭國家之大變하여 貴社에서 危機를 不避하고 直筆을 一毫야 布告天下가 遭此三四期停刊之境故惟吾同胞가 貌然面牆하여 不知所之러니 天運이 循環하여 貴社를 復設하고 舌筆筆禿토록 警醒我耳目하니 大韓同胞之幸福賦新貨二圓冒汗伏呈幸瀆勿却千萬仰祝仰祝 光武十年丙午陰正月二十二日 生 吳胤善.”(「有志寄函」, 『황성신문』, 1906년 2월 21일 잡보).

일어는 현지에 거주하는 기무라 단파쿠(木村淡泊)가 담당하는 등 문명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다.<sup>28</sup> 학생들은 그의 열정적인 강의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수북면 전 참봉 서상천(徐相天)은 자본금을 모아 수성(須成)학교를 세웠다. 자신은 교장, 전 주사 서상경(徐相兢)은 교감, 일어교사는 변영헌(卞榮獻), 한문교사는 서상춘(徐相春), 군수 이완용(李完鎔)은 찬성원장, 관찰도참서관 김한묵은 협무장 등을 각각 맡았다. 출석생은 53명에 달하여 개학과 더불어 주민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sup>29</sup> 지원자 증가로 개학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학생의 수는 70명을 초과할 정도로 급증하였다.

서진하(徐震河)는 남곡면에 보명의숙(普明義塾)을 설립하였다. 임원진은 교감 강필중(姜弼中), 학감 김동호(金東鎬), 총무 서진하, 교사 정기섭(鄭基燮) 등이었다. 서진하는 경비 일체를 자담하면서 학교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에 미야케 이와(三宅岩)는 명예교사로 자원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설립 당시 호응한 학생은 30여 명이 있었다. 운영비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처하자, 교사 정기섭은 임원회를 개최하여 유지방침을 강구하면서 교세 회복에 노력을 기울였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은 중장기적인 학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확고한 기반이었다. 이는 50여 명에 달하는 임원조직회 결성으로 이어졌다.<sup>30</sup> 특히 일어와 영어 등을 전문으로 하는 어학속성과 운영은 많은 호응을 받았다.

청호면 오산의 정한교(鄭漢教)와 정재호는 인습 타파를 통한 문명사회 건설 방안으로 명진(明進)학교를 설립하였다. 근대교육 보급과 의식개혁은 이러한 가운데 진전을 거듭하였다. 50명 전교생의 단발(斷髮)은 현지인에게 변화상을 보여 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군수의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은 시세 변화를 새삼 일깨우는 요인이었다. 상인들은 학교 운영비 조달책의 일환으로 우세 징수를 건의하였다. 이들은 군수에게 시장에서 매매되는 소 1마리당 20전의 세금을 '의무교육비'로 징수할 것을 건의하였다. 「사립학교령」으로 운영난에 직면하자 오산(烏山)시숙(일명 一新學校)과 병합하여 내실화를 모색하였다. 명신학교도 설립된 이래 재정난으로 폐교될 지경에 이르렀지만 교감 이용묵(李容默)의 헌신적인 활동과 학감 김진태(金鎭台)의 실지(實志) 장려로 교황(校況)은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맞았다. 향학열은 관내 학생들에게 커다란 자극제로 작용하였다.<sup>31</sup>

유림계를 대표하는 맹보순(孟輔淳)도 근대교육에 동참하고 나섰다. 그는 전 판서 김종

28 김순석, 「통감부 시기 불교계의 명진학교 설립과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147쪽.

29 「須成學校設立」, 『만세보』, 1907년 2월 3일 잡보; 「須校興旺」, 『만세보』, 1907년 4월 26일 잡보; 「須校日盛」, 『황성신문』, 1907년 2월 4일 잡보; 「學員日增」,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19일 잡보.

30 김형묵,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2007, 25쪽.

31 김형묵,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2007, 25~26쪽.

한, 군수 서병숙, 유지신사 윤태익(尹泰翊) 등과 더불어 향교 내에 명륜학교를 설립하였다. 교과과정은 문학·실업·법률·유치 등 4개 전문과정이었다. 이 학교는 개학한 지 불과 2~3개월 만에 100여 명 출석으로 이어졌다. 시세 변화에 부응한 신·구학문 절충은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았다. 상업가 30인이 각각 1만 냥씩 기부하고 각 면이 1만 냥씩 모아 조성한 71만 냥은 학교 재정을 굳건하게 뒷받침하였다.<sup>32</sup> 이는 사실상 '의무교육비' 나 다름없었다.

나성규와 차유순 등은 관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에 나섰다. 삼일학교 후원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자극을 받은 임원진은 더욱 분발하여 재정 확충과 중장기적인 발전책을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학교 입학권을 부여하는 등 향학열을 고취시켰다.<sup>33</sup> 주민들의 근대교육에 대한 관심도 이들의 활동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교육기관 운영은 사회적인 책무이자 의무로서 인식되는 분위기였다.

졸업생 환영회 개최는 근대교육 시행과 확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풍화당(風化堂) 노인 등은 관내 출신 졸업생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일본 유학생 출신인 나홍석은 답사에서 근대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주창하는 등 이에 부응하고 나섰다. 그는 일본 유학 중에도 많은 글을 기고하여 민지 계발에 앞장섰다.<sup>34</sup> 교육열과 향학열은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널리 확산되었다. 나홍석은 동생인 나경석과 더불어 여동생인 나혜석·나지석 자매를 삼일여학교와 진명여학교를 거쳐 일본에 유학시킨 장본인이었다.<sup>35</sup> 한일합병 이전에 설립된 화양여학교·병설여학교·수원상업강습소 등은 당시 상황을 잘 보여 준다.

근대교육기관으로 야학 운영도 병행되었다. 관찰부 주사 임익상(林益相)과 군 주사 구자용(具滋鏞)은 삼일학교 내에 법률야학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명예교사로서 법률과 경제 지식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sup>36</sup> 출석생은 100여 명에 달하여 대단한 호응을 받았다. 실생활에 부합하는 교과목 편성은 향학열에 불타는 근로청소년에게 최대 관심사로서 다가왔다. 동교 내에 설치된 측량학교에 대한 호응은 이를 반증한다. 야학을 통한 근대교육 보급은 이러한 가운데 확산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15세인 삼일학교 학생 이대순(李大舜)은 1907년 가을 자기 집에 야학교를 설립하였다.

32 「尹氏創學」, 『황성신문』, 1909년 3월 30일 잡보.

33 「三壺如壺」,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29일 잡보; 「兩氏激論」,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29일 잡보.

34 나홍석, 「自任」, 『대한유학생회회보』 2, 대한유학생회, 1907, 34~36쪽; 나홍석, 「服從과 命令」, 『대한유학생회회보』 3, 6~8쪽; 나홍석, 「我同胞가 果是二千萬呼아」, 『대한학회월보』 9, 대한홍학회, 1908, 12~16쪽; 나홍석, 「論社會進化之原則하야 以慰我志士同胞」; 「卒業生歡迎」, 『大韓每日申報』, 1909년 9월 23일 학계.

35 김형목, 「나혜석 연보」, 『나혜석, 한국근대사를 거닐다』, 푸른사상사, 2011.

그는 국문을 깨우친 수료생 8명에게 수료증서를 발급하고 보통과정 개설계획을 세웠다. 이에 급우인 차석우도 동참하여 열성을 아끼지 않았다. 소식을 접한 서울 거주 윤창렬(尹昌烈)은 의연금을 회사하여 활동을 격려하고 나섰다.<sup>37</sup> 학생들의 참여는 현실인식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사회적인 책무를 절감하게 하였다.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했던 경험은 학생들에게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이었다.

권업도모부장 부근인 서둔리는 민촌으로 실업과 교육의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수류양성소 기수 김광하(金光河)는 임시야학교를 설립한 후 명예교사로서 자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그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식 학교로 발전하기 위한 의연금 모집에 나섰다.<sup>38</sup> 수원상업회의소 부설인 상업강습소 운영도 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일환에서 비롯되었다. 수원군 관내에 설립된 근대교육기관은 <표 1>과 같다.

<표 1> 한말 수원 지역 근대교육기관 일람표<sup>39</sup>

연도	학교명	소재지	설립·교사진	규모/교과목	전거
1900	회성학교	읍내		일본어, 수신, 일반상식 등	황 1905. 5. 9; 1908. 2. 6. 大 1905. 2. 23.
1902	삼일여학당 (삼일여학교)	종로교회 내	교장 : 이하영 교사 : 김메레	다수/유치과, 보통과	황 1908. 2. 6; 1908. 12. 23. 大 1908. 11. 17; 1909. 1. 10; 1909. 6. 4. 『기호』 7, 39쪽; 『기호』 11, 49·50쪽
1903	삼일학교 (영어삼학당)	읍내	교장 : 김한목 (임면수, 이하영)	120/심상과, 고등과	大 1907. 7. 14; 1907. 7. 18; 1908. 3. 6; 1908. 11. 29; 1908. 12. 6; 1909. 1. 9; 1909. 1. 10; 1. 15. 대 1907. 7. 16; 1907. 7. 17. 황 1908. 2. 6. 『기호』 7, 39쪽
	인공양잠학교	읍내			황 1903. 6. 18; 1903. 8. 6; 1903. 11. 6.
1904	사립학교	읍내	교사 : 오윤선		大 1905. 1. 24. 『영』, 13쪽
1905	오산사숙, 명진학교	청오 오도산장	정한교	30/한문, 국문, 지지, 역사, 산술	大 1907. 4. 20; 1907. 7. 10. 대 1907. 7. 10.

36 김형목, 「대한제국기 경기도 야학운동의 성격」, 『덕봉오환일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 덕봉오환일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간행위원회, 2005, 24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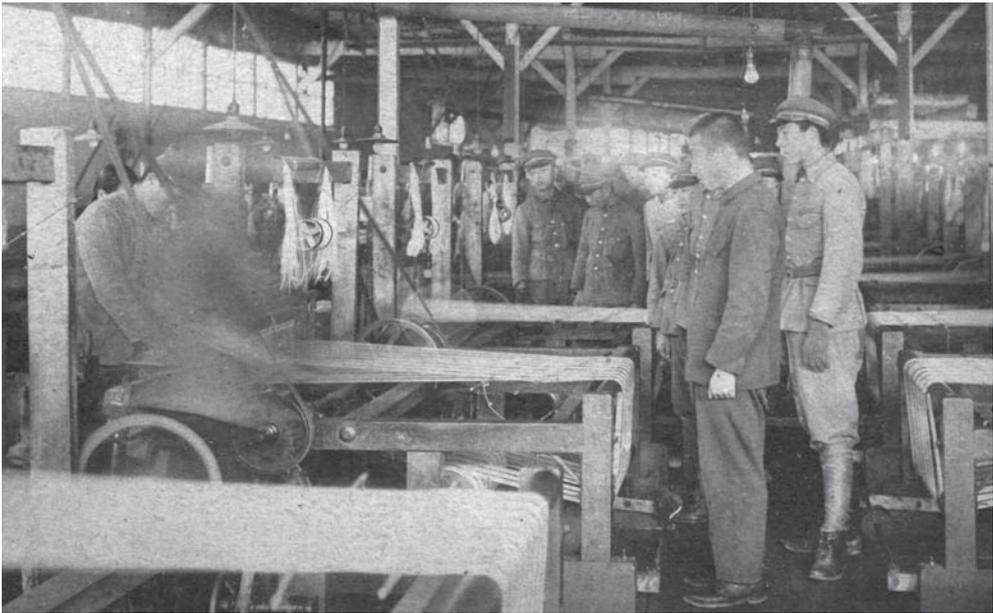
37 「寄附三校」, 『大韓每日申報』, 1908년 3월 6일 잡보.

38 「西屯設校」, 『大韓每日申報』, 1908년 1월 14일 잡보.

39 김형목,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2007, 28-29쪽. 황은 『황성신문』, 대는 『대한매일신보』(국한문 혼용판), 대는 『대한매일신보』(한글판), 만은 『만세보』, 민은 『대한민보』, 동은 『동아일보』, 시는 『시대일보』, 『기호』는 『기호홍학회월보』, 『영』은 김영우 논문(김영우, 「한말의 사립학교에 관한 연구」 1, 『교육연구』 1, 공주사범대학 교육연구소, 1984)을 의미한다.

연도	학교명	소재지	설립·교사진	규모/교과목	전거
1906	광흥(廣興)학교	읍내	김영수(金英洙), 신익균(申億均)		大 1906. 5. 6. 「영」, 6쪽
	명화(明化)학교	수원 용주사 내	용주사 교장: 차응허 (車應虛) 일어: 기무라 (木村澁治)	50/보통과, 일어	황 1906. 11. 26.
1907	명진(明進)학교	청호 오산 상하동	정한교, 정재호, 서병숙(군수)	50/보통과	大 1907. 4. 20; 1907. 7. 10; 1908. 1. 14; 1908. 1. 21; 1909. 1. 10; 1909. 1. 27. 황 1908. 1. 16; 1908. 3. 5; 1910. 5. 17. 대 1907. 7. 10; 1908. 1. 5. 「영」, 8쪽.
	화양(華陽) 여학교	읍내	이선익		大 1907. 6. 13. 황 1907. 10. 27. 「기호」 11, 49·50쪽 만 1907. 5. 26. 「영」, 8쪽
	수성학교	수북면 백봉	교 장: 서상천 교 감: 서상금 찬성장: 이완용 협무장: 김한목 한 문: 서상춘 일 어: 변영현	70/보통과	大 1907. 2. 19. 황 1907. 2. 4. 만 1907. 2. 3; 1907. 4. 26. 「영」, 8쪽.
	야학교	북문 내 자기집	교사: 이대순(삼 일학교생), 신석우	수십 명/보통과	大 1908. 3. 6.
	일신학교	청호 오산 상하 동	교사: 김응서		大 1908.1.5, 1909.1.6, 1909.1.10. 황 1910.5.17.
	임시아학교	서둔리	김광해(수원수류 양성소 기수)	수십 명/국문과, 보통 과	大 1908.1.14.
	1908	보명의숙, 보명학교	남곡면 귀일(래)동	교감: 강필중 총무: 서진하 학감: 김동호 교사: 정기섭, 미야케(三宅岩)	50/보교과정
명륜학교		읍내	맹보순, 김중한, 서병숙(군수), 윤태익, 양성관	100/문학·실업, 법률, 유치	大 1908. 11. 5; 1908. 11. 22; 1908. 12. 11, 황 1909. 3. 30. 「기호」 6, 52쪽.
측량학교		읍내	삼일학교 교장: 한규복	수학, 측량학	황 1908. 6. 10. 大 1908. 9. 27; 1908. 10. 7; 1909. 3. 18
사범口흥소학 교		읍내 향교	윤태익(尹泰翊), 지홍갑(池弘甲)	사범양성/100	大 1908. 12. 8.
법률야학		수원 읍내	삼일학교 교사	100/법률, 경제	민 1909. 12. 15. 대 1909. 12. 14. 大 1909. 12. 18. 황 1909. 12. 14.

연도	학교명	소재지	설립·교사진	규모/교과목	전거
1909	병설여학교	청호 오산	명신학교 부설		大 1909. 1. 10; 1. 27.
	수원상업 강습소	읍내 상공회의소 내	수원상공회의소	주야 100/상업, 부기, 상업대요	동 1921. 3. 17; 1922. 1. 27; 1923. 3. 25; 1927. 1. 17. 시 1924. 4. 22.
	명신학교	청호 오산	명진·일신학교 통합	남녀 100/보통과	황 1910. 5. 17. 大 1909. 1. 10.



화성학원 직조공장 견학(수원고등학교 소장) 수원상업강습소는 1916년에 화성학원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표 1〉은 당시 설립된 모든 근대교육기관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른바 개량서당·의숙·시숙 등도 교과과정을 개편하거나 근대적인 교수법을 도입하는 등 탈바꿈하고 있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뿐이다. 〈표 1〉에 나타난 사립학교는 비교적 널리 알려진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 1913년 12월 말 현재 관내에 운영 중인 150여 개소에 달하는 서당은 이를 반증한다.<sup>40</sup> 이를 토대로 할 때 수원 지역 근대교육 특성은 다음과 같다.

40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1914, 17~18쪽; 이진호, 「수원 지방 서당사·성현서당을 중심으로」, 『경기향토사연구』 2, 경기향토사연구협의회, 1996.



화성학원 여학생 가사 실습(수원고등학교 소장)

첫째로 근대교육은 사립학교가 주도하였다. 이곳을 대표하는 삼일학교·수성학교·명진학교·보명학교 등은 이를 반증한다. 초기 근대교육은 선교사업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조원시·이하영·임면수·김제구 등은 선교사와 개신교 신자로서 이를 주도하였다. 1906년경에 발생한 삼일학교 재정난은 학교 운영을 둘러싼 임원진 간 갈등에서 비롯되었다.<sup>41</sup> 수원상업강습소는 자본가로 성장한 상인층의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이들의 대대적인 지원과 고조된 향학열 등이 맞물려 중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둘째로 부기·상업대요·측량학·법률학 등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시세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상업자본가의 성장은 수원상업강습소 운영에서 부분적이거나 엇볼 수 있다. 근로청소년은 이를 통하여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자기 계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물론 양잠기술 보급 등 실업교육은 식민 통치에 부응하는 기술인 양성과 무관하지 않다. 수원경찰서는 각 이장을 소집하여 양잠의 중요성을 설명한 후 이를 시달하는 지침을 내렸다.<sup>42</sup>

41 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1899~1950』, 2000, 115쪽.

셋째로 여성교육은 비교적 일찍부터 시행되었다. 수원 최초의 여성사립학교인 삼일여학당은 이를 주도하였다. 이는 화성여학교·화양여학교·병설여학교 설립으로 진전되었다. 여학교 연합운동회 개최는 주민들에게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였다. 남문에 거주하는 이선익(李善益)은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화양여학교와 삼일여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운동회를 개최하고 그 경비 일체를 부담하였다.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이를 계기로 일변하였다. 여자교육회의 여학교 설립에 대한 찬사는 당시 분위기를 어느 정도 보여 준다.<sup>43</sup>

마지막으로 수학 능력을 고려한 전문강좌의 개설이다. 대부분은 유치과·국문과·보통과에 중점을 둔 초등교육기관의 성격을 지녔다. 교육 내실화와 더불어 교과과정은 심상과·고등과, 보통과·일어과, 상학과·측량과, 국문과·보통과, 법률과·경제과 등으로 분화되었다. 명륜학교는 개교 당시부터 문학·법률·실업·유치과로 구분하여 운영되었다. 이는 부족한 중등교육기관을 보완하는 의미이다.

## 2) 계몽운동의 주요 활동가

계몽운동은 다양한 성격을 지닌 인물들이 추진하였다. 전·현직 관료와 자산가·목사·신부·의사·군인·교사·개신유학자 등이 주요 인사였다. 대부분은 수원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인물이었다고 일부는 외지인으로서 이곳에 거주한 인물이었다. 후자인 경우는 서울 등 부분적이거나 외부 세계의 변화를 수용하거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현지인 대부분은 혼맥을 통해 강한 족적 관계를 맺고 특히 이들은 사회 변동에 부응하여 지주에서 근대적인 자산가로서 성장하는 계층이었다. 그런 만큼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은 누구와 견줄 수 없는 막강한 존재였다.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존스(Rev. George Heber Jones)는 1892년 인천 지역 감리사로 부임한 이래 내리교회를 중심으로 44개 교회를 창설·관리하는 등 전도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부인은 부임 초기부터 내리교회에 영화여학교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근대 여성교육의 토대를 마련하였다.<sup>44</sup> 삼일여학당 설립도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사경회와 신학회를 운영하여

42 『蠶桑勸業』, 『황성신문』, 1910년 3월 6일 잡보.

43 기호흥학회, 『학계휘문, 妙年壯志』, 『기호흥학회월보』 11, 49~50쪽; 『女子의 教育』, 『황성신문』, 1908년 2월 6일 논설.

44 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1899~1950』, 2000, 66~69쪽.



존스와 존스 부인

협성신학교 개교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한국 감리교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신학월보』와 『The Korean Repository』, 『The Korean Review』의 주필로서 한국 내 기독교인의 동정과 한국문화를 국외에 널리 알리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는 1907년 군대해산 당시 선교사인 애비슨, 민휴 등과 부상당한 군인을 치료하며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sup>45</sup>

김종한은 서울 출신으로 1876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이래 부승지, 이조참의, 예조판서, 이조참판, 도승지 등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명성황후시해사건 직후 궁내부협관이 되고 독립협회 활동 등 개혁·개방화에 가담할 정도였다. 그는 경강상인(京江商人)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조선은행·한성은행 발기인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철도용달회사와 철도회사도 설립하여 자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한 인물이었다. 국채보상총합회의소 부소장과 소장에 피선되어 국채보상운동의 중심인물로 부각되었다. 서울 일신(日新)의숙장, 개성 배의(培義)학교장, 함흥 패향(沛鄉)학교장, 서울 광동(光東)학교 찬성장도 맡아 근대교육을 보급하였다. 기호흥학회 수원지회장과 명륜학교 교주 활동은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비롯되었다. 한일합병을 전후로 하여 정우회(政友會) 총재와 대동문우회(大東文友會) 회장을 맡으며 친일단체에도 적극 가담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남작

<sup>45</sup> 『趙博士大慈善』, 『황성신문』, 1907년 8월 3일 잡보; 『美教師救療』,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3일 잡보.



삼일여학교 발전에 기여한 밀리 교장과 교사들(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소장)

爵) 작위를 수여받아 친일고위관료라는 비난을 받았다.<sup>46</sup>

홍사훈은 보성중학교를 중퇴한 후 수원상업강습소 법상과를 졸업하였다. 세류포목점을 경영하는 한편 용수농농주식회사 취체역, 수원극장 대표이사, 만종원 대표이사를 두루 역임한 수원의 대표적인 자산가였다. 이곳 유림계의 종장을 자처한 맹보순도 시세 변화와 근대교육 확산에 앞장섰다. 수원군수, 전의관 김종한, 수원상업회의소 부회두 양성관 등과 향교 내에 명륜학교를 설립한 것은 이를 반증한다.<sup>47</sup> 이는 유림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이후 구체적인 교육활동이나 민족운동 참여는 확인되지 않는다.

임면수는 일찍이 수원인공양잠학교와 화성학교에서 근대교육을 받았다. 그는 수원종로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안장·김제구·이하영 등과 「국채보상취지서」를 발표하며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1904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그는 맥

46 김형목,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2007, 32~33쪽.

47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藏), 『조선신사명감』, 일본전보통신 경성지국, 1911, 146쪽; 「유림계의 대경중」,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22일 잡보.



화성학원 설립자 홍사훈(수원고등학교 소장)

시코이민 모집 대리점을 운영하였다.<sup>48</sup> 현지에 대한 상황이나 사전 지식이 전무한 대다수 대리점 주인들의 인식은 매우 낙관적이었다. 대한제국기 하와이와 멕시코 이민은 인천 내리교회 목사인 조원시와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권유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의 목적은 새로운 개척촌에서 독실한 신앙인을 양성함이었다. ‘노예노동’이나 다름없는 이민이었지만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었다. 수원에서 모집된 인원은 전체 1,033명 중 6명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sup>49</sup> 임만수는 삼일학교 발기인이자 학생으로서 영어공부에 열심이었다.

나기정은 경기관찰사 주사와 시흥군수, 용인군수 등을 역임한 전형적인 관료였다. 그는 삼일학교 창성원으로서 2,000냥의 의연금을 모집하면서 관내 근대교육 보급에 앞장섰다.<sup>50</sup> 나홍석은 나기정의 장남으로 화성학교에서 근대교육을 수학하고 와세다대학을 1909년 3월 졸업한 뒤 귀국하였다. 그 후 삼일학교 교사를 역임하고 1919년 수원청년구락부를 조직하는 한편 이듬해 수원면협의회에 선출되어 수원 지역 주요 인물로서 부각되었다. 1922년 서울로 이사하여 경성변리사로 활동하면서 중개업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다. 그는 귀국 직후부터 최송·홍사선·최상훈 등과 수원 지역 근대교육 보급과 지원에 힘썼다.<sup>51</sup>

김관현은 군수로 부임한 이래 행정 일반은 물론 교육 진흥에 매진하였다. 그는 수원재무서의 결세(結稅) 부정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하며 주민들의 권익 옹호에 노력을 기울였다. 청렴한 지방관인 그의 직무 수행은 주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관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주민들을 효유하며 근대교육 확산에도 앞장섰다. 하지만 그는 한일합병 이후 초대 군수를 맡은 친일적인 인물이었는데 장기간 재직과 지속적인 승진은 이를 뒷받침한다.<sup>52</sup>

48 이창식, 『수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003, 45쪽.

49 이자경, 『멕시코 한인 이민 모집과 송출의 불법성』, 『멕시코 이민 100년의 회상』, 인천광역시, 2005, 47쪽.

50 마키야마 고조, 『조선신사명감』, 일본전보통신 경성지국, 1911, 160쪽; 「나씨열심」,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14일 잡보.

51 경성복심법원, 『倭政時代人物史料』 3, 1927, 97쪽.

52 이창식, 『수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003, 21~22쪽.

최상훈은 일찍이 근대의학을 전공한 내과의사였다. 수원의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던 그는 수원강습소 교사로 활동하며 교육운동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기호흥학회 수원지회 간사원이자 이 지역을 대표하는 계몽주의자였다. 구자용은 수원군청에 근무하는 주사였다.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그는 관찰부주사 임익상과 삼일학교 내에 법률야학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sup>53</sup> 청년 자제에 대한 근대교육 시행은 의무적인 사항으로 인식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남양군 서여제면장 최성대는 이장을 비롯한 주민 수십 명과 회합을 열어 생활공동체에 기반을 둔 영업회사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그는 홍언후(洪閻厚)와 남양상업회의소 설립추진 발기인으로 활동하며 민족자본 육성에 노력을 기울였다.<sup>54</sup> 다양한 활동은 지역사회 변화를 초래하는 밑거름이나 마찬가지로 되었다. 수원 지역 인사들과의 교류는 이와 같은 목적과 무관하지 않았다. 나혜석 모친 최시희는 그의 딸이었다. 나기정은 그의 사위로서 이곳 계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김한목은 시흥군수, 경기도관찰부 참서관, 경기관찰사 서리를 두루 역임한 관료였다.<sup>55</sup> 그는 영등포일어학교 설립자 겸 고문, 삼일학교장을 맡아 교육사업에 노력하였다. 근대교육은 그에게 문명사회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다. 협성학교 협무장 취임과 활동도 이를 실천하려는 입장에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운동 주체는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상당수는 전·현직관료와 자산가, 기독교인이었다. 자본은 시대 상황과 맞물려 새로운 '무기'로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수원 지역 여론은 이들에 의하여 조성될 정도였다. 이들은 문명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사회진화론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었다.

#### 4. 계몽운동의 성격

광무황제 양위 이후 의병전쟁 진압에 투입된 일본군은 공립보통학교를 숙소로 이용하였다. 이는 개학 연기로 이어져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이와 동시에 통감부는 발흥하는 사립학교설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법령을 입안하였다. '시세와 민도에 부합하는'

53 기호흥학회, 『기호흥학회월보』 2, 1908, 61쪽; 「兩氏有志」,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18일 학계.

54 「鹽會設立」,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10일 잡보; 「남양군상업회의소취지서」, 『대한매일신보』, 7월 24일 잡보.

55 마키야마 고조, 『조선신사명감』, 일본전보통신 경성지국, 1911, 208쪽; 「各道叅書新任」, 『만세보』, 1906년 11월 1일 잡보; 「始興倅願留」, 『만세보』, 1906년 11월 17일 잡보.

공립보통학교 확대는 예상과 달리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사립학교령」은 발흥하는 근대교육운동을 탄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통감부의 궁극적인 의도였다. 재정난으로 많은 사립학교는 통·폐합되는 비운을 맞았다. 더욱이 일본어 교육에 치중된 일어학교 성행은 정상적인 교과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sup>56</sup> 일제 침탈에 따른 식민 사회로의 전략은 바야흐로 '일본어 만능시대'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탄압 속에서 삼일학교 학생들은 일상사를 개선·변화시키는 데 앞장섰다. 당시 성행하는 조혼에 대한 비판과 반대는 변화하는 가치관의 한 단면을 잘 보여 준다.

근일 해교 생도들이 합석 결의하기를 우리 학생의 조혼함은 비단 교규(敎規)의 위반될 뿐만 아니라 실로 교육상에 대단히 방해가 되는 즉 우리는 졸업하기 전에는 결단코 취실(娶室)치 아니하는 것이 가하다고 결심한 후에 이미 결혼한 학도는 자기의 선사취처(先已娶妻)함을 한탄하며 정혼만 하고 아직 성례(成禮)치 아니한 학도는 즉시 과약(破約)하고 실상주과(實上做課)에만 전념한다더라.<sup>57</sup>

학생들은 불합리한 사회제도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동시에 이를 개혁하는 데 앞장섰다. 이들은 단순히 결의나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다수는 사회적인 책무로서 이를 인식하는 분위기였다.

춘추로 거행된 연합운동회는 주민들에게 시세 변화를 각인시키는 현장이었다. 1907년 삼일학교·화성여자학교·공립소학교 등이 참여한 운동회는 초유의 대장관을 이루었다. 활발한 여학생들의 기상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sup>58</sup> 이듬해 4월 20일에는 더욱 확대된 규모로 개최되었다. 운동회 장소인 연무대에는 내외빈과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기생들조차도 음식물을 제공하여 학생들 사기를 진작시켰다. 오산에 거주하는 유지들은 명진학교와 일신학교 학생의 차비와 비용 일체를 제공하였다. 이는 모범적인 사례로 널리 칭송되었다. 학생들에게는 이를 통하여 자신감과 아울러 자아를 성찰하는 계기였다. 경축행사도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현장이었다. 읍내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건원절 행사는 이를 반증한다.<sup>59</sup>

56 「管轄私立學校」, 『만세보』, 1906년 8월 29일 잡보; 「華校懇話會」, 『황성신문』, 1907년 12월 15일 잡보; 「地方人民의 困難情況」, 『황성신문』, 1910년 2월 18일 논설; 「地方人民의 困難情況」, 『황성신문』, 1910년 2월 18일; 「私校維持協議」, 『황성신문』, 1910년 2월 18일 잡보; 「어학계의 추세」,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11일 논설.

57 「三校決心」,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18일 잡보.

58 「연합운동의 校況」,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13일 잡보.

59 「춘기운동」,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22일 잡보; 「一校盛況」,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3일 잡보; 「華民三祝」, 『황성신문』, 1908년 3월 15일 잡보; 「화성학교연합운동」, 『황성신문』, 1908년 4월 19일 잡보; 「기생과 酒商協議」, 『황성신문』, 1908년 4월 21일 잡보.

수원 권업모범장을 행행(行幸)한 순종은 관내 교육기관에 은사금을 하사하였다. 금액은 공립보통학교 100원과 사립학교 400원으로 상당한 액수였다. 이는 학생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켜 향학열 고취로 이어졌다. 측량학교 학도들은 행행을 즈음하여 일체 단발을 단행한 후 환영식에 참가하였다. 전교생 단발 실시는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주요한 계기나 다름없었다.<sup>60</sup> 이들은 청결한 용모와 위생생활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우치고 실천 하기에 이르렀다.

외부세계와의 교류는 시세 변화를 절감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학교와 계몽단체·수원상업회의소 설립에 당시 외부 인사들이 가담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관료·선교사·교사·자본가 등이었다. 김중환·김한목·서병숙·조원시·부재열·이하영·송세호 등이 대표적이다. 계몽운동은 이들과 이곳 출신 명망가들이 추진하였다. 신·구학을 절충한 맹보순의 학교 운영은 세대 간 갈등을 부분적이거나 완화시키는 요인이었다.<sup>61</sup>

화성여학교 학생들에게 여학교연합운동회 참가를 위한 ‘서울나들이’는 새로운 변화를 절감하게 하는 계기였다. 이는 단순한 체육회 행사로 끝나지 않았다. 여학생들은 변모하는 실상을 직접 목도하는 가운데 변화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연합운동회는 세인들의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킨 대단한 ‘사건’이었다. ‘운동가’는 학생들에게 장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던져 주었다.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학부 신설로 이어졌다.<sup>62</sup>

노동야학회 수원지회 창립은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이는 노동자·농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데 기여하였다. 인습으로 잔존하던 신분 관념은 이러한 가운데 점차 해소되어 나갔다. 변혁을 지향한 사회운동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60 「水原行幸順序」,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4일 잡보; 「斷髮祗迎」,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7일 잡보.

61 이용건, 「명륜학교일기」, 『구성면지』, 용인향토문화연구소, 1998, 916쪽.

62 「여학교연합운동성황」, 『단세보』, 1907년 5월 26일 잡보; 「수원의 여학원모집」, 『매일신보』, 1911년 4월 26일 잡보.



박민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1. 한말 의병전쟁
2. 전기의병(을미의병)의 활동
3. 중기의병(을사의병)의 활동
4. 후기의병(정미의병)의 활동



## 제4장

# 수원의 의병전쟁

### 1. 한말 의병전쟁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계기로 일제가 도발한 청일전쟁은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침략전쟁이었다. 일제는 청일전쟁을 도발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한편, 갑오개혁을 추진하면서 내정간섭을 감행하는 양면 전략으로 한국 침략을 강화하였다. 갑오개혁이 재야의 유생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비판과 반발, 나아가 반일감정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이와 같이 일제 침략으로 야기된 긴박한 시국상황에서 항일구국의 기치를 내걸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봉기하였다. 1895~1896년에 일어난 이 의병이 곧 전기 의병(을미의병)이다. 그 후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제는 다시 한 번 대한 침략을 가속화하게 되었고, 급기야 망국조약인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다시 일어난 의병이 곧 중기의병(을사의병)이다. 이어 1907년 중반기에 광무황제 강제퇴위와 대한제국 군대 강제해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대일 전면전의 단계로 확대 격화되는 시기의 의병을 후기의병(정미의병)이라 한다. 이처럼 의병은 일제 침략의 강도



서울 거리에서 벌어진 일본군의 만행을 묘사한 삽화(『Le Petit Journal』, 1907년 8월 4일)

에 상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되는 형태로 항일전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수원에서도 한말 일제 침략에 상응하여 전개된 항일투쟁 단계에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항일전의 정도와 동일한 궤적을 밟으면서 의병투쟁이 전개되어 왔다. 즉 수원에서도 20여 년 전 기간에 의병은 세 단계에 걸쳐 조직적 또는 산발적으로 일제 군경을 상대로 활발한 항일전을 전개해 왔다.

수원은 경기도의 수부로서 중앙의 정치적 변화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반외세 반침략 의식의 각성도가 높았고 따라서 항일 적개심이 널리 팽배해 있던 지역이다. 항일전을 표방한 의병의 궁극적 목표는 당연히 서울을 공략하여 일제 침략세력과 친일 주구배를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다른 지방에 비해 의병의 항일전에 유리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서울의 길목에 해당하는 수원은 서울 진공 루트로서 의병들에게 특히 주목되는 요충지였다.

경기 지역의 의병투쟁은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강화도와 황해도 연안의 경기 서북부 지역, 파주·포천 등 임진강 유역과 강원도 철원 등지를 잇는 경기 북동부 지역, 그리고 이천·용인·광주·수원·안성 등지로 연결되는 경기 남부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가운데 수원의병은 경기 남부 지역의 활동권역에 포함되며, 수원과 인접한 안산·시흥·오산·평택(진위)·용인·안성·광주·여주·이천·양평 등지의 의병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활동하였다.<sup>1</sup> 그리하여 수원 의병은 서쪽으로는 남양만의 의병, 동쪽으로는 용인·이천 지역의 의병, 남쪽으로는 안성·평택 지역의 의병 등과 연계하였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연합전선의 형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수원 의병의 활동상을 구명하려면 먼저 경기도 의병전쟁의 전체 양상 속에서 살펴야 하고, 특히 경기 남부와 동부 지역을 무대로 한 의병들의 동향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원 출신의 의병이라 할지라도 그 활동 범위는 수원에 국한되지 않고 대체로 경기 남부와 동부 각 지역을 무대로 활동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 그러한 인식은 더욱 필요할 것이다.

## 2. 전기의병(을미의병)의 활동

### 1) 역사적 배경

한말 의병전쟁과 관련하여 수원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배경과 조건이 특히 주목된다. 첫째, 수원은 조선시대 수도 한양의 외곽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행정기관인 유수부(留守府)가 설치된 곳으로, 수원 사람들은 향토 수호와 충의의 근왕정신이 투철하였기 때문에 항일의병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일찍부터 마련되어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sup>1</sup> 경기도사편찬위원회 편,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44~45쪽.



화성유수부가 자리한 화성행궁(헤르만 산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유수부는 한성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인 행정기관이다.

에도 수원은 우국 선비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병활동이 두드러진 고장이었다. 특히 1592년 12월 수원 남쪽의 독성산성(秃城山城)과 삼천병마(三千兵馬)골을 근거지로 관군과 의병의 긴밀한 연계에 이루어진 승첩은 행주대첩과 함께 한양도성의 수복을 위한 육전에서의 기념비적 승첩이었다.

둘째, 수원은 1789년(정조 13)부터 국왕의 특별한 배려 아래 계획도시로 건설된 신도시로서, 주민들의 문화적 자부심이 남다른 고장이었다. 정조의 남다른 열정과 실학자들의 탁월한 지혜와 노력이 어우러져 조선왕조 중흥의 저력과 왕권 강화의 상징물로서 화성행궁과 화성 성곽, 현릉원, 건릉 등이 세워졌으며 그 밖에 농업과 상공업 분야에서도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그 결과 수원 사람들은 자기 고장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탁월한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문화적 전통은 일제 침략세력을 철저히 배척하는 역사적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sup>2</sup>

셋째, 주민들 간에 지방관의 폭정과 착취에 항거하는 저항정신이 일찍부터 배양되어 있었다. 1862년 진주민란을 계기로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30여 개 군현에서 농민이 봉기하였는데, 수원에서도 1889년 수백 명의 거주민들이 지방관의 가렴주구에 항거하여 관아를 습격하였고, 그 여파로 이웃 안성에서도 이듬해에 민란이 일어났다. 또한 1891년에는 현릉원 능참봉의 탐학과 토색으로 원군(園軍)이 봉기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전국을 휩쓸 때는 안승관(安承寬)과 김내현(金籟鉉) 등이 지휘하는 5,000명의 농민군이 한때 수원부 관아를 점령하고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10월 1일 일본군의 공격으로 수원의 농민군은 패퇴하여 사산(四散)하고 안승관·김내현 등의 지도자는 처형되

2 최홍규, 「수원지방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3·1독립운동과 민족정기』, 광복회 경기도지부, 1996, 42쪽.

었다.<sup>3</sup> 동학농민군 잔여세력은 곧이어 봉기한 항일의병의 하부 병사들로 참여하였다. 전기의병이 일어날 때, 수원 지역은 그 지도부에 보수 유생층의 역할이 크지 않았던 점을 생각한다면 동학농민전쟁에 가담한 농민군 잔여세력은 의병에 가담함으로써 신상의 탄압을 피할 수 있었고, 나아가 그 기회를 이용하여 반의세투쟁을 재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2) 전기의병 투쟁

1895년 11월 17일(양력 1896년 1월 1일, 이하 양력) 단발령 공포 후 경기도에서는 1896년 1~2월에 광주·이천·여주·수원·용인·과천·안산·안성·포천·연천·양주 등 거의 전역에 걸쳐 의병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들 의병의 활약상을 알려 주는 사료는 단편적이어서, 의병의 실체와 활동 전모를 파악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다만, 그 가운데 광주·이천 의병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의병세력이 연합하여 결성한 남한산성의병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구가 집중되어 왔으며, 그 결과 의진(義陣)의 실체와 활동의 전모가 어느 정도 밝혀져 있다. 김하락(金河洛)을 중심으로 한 남한산성의병의 동향은 경기도, 특히 경기 남동부 지역 의병의 활동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유감스러운 점은 여기에도 수원의병의 주도세력과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수원의 의병이 남한산성의병에 합류한 사실만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수원의병이 가담한 남한산성의병은 단발령 공포 직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편성된 의진이었으며, 서울에서 가장 근접한 군사적 요충지인 남한산성을 거의 한 달 동안이나 점거한 채 서울 진공을 눈앞에 두었을 정도로 명성을 크게 떨친 의진이다. 특히 서울의 인후인 남한산성을 점거한 그 자체나, 나아가 그 의진이 표방하였던 서울진공계획은 1908년 1월 13도창의군의 별동대가 서울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한 사례와 같이 일제에게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만큼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일본에서 간행되던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이 남한산성 점거 과정부터 해체 때까지 한 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의병의 동향을 상세히 보도하였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한산성의병은 이천의병과 광주의병을 주축으로 수원 등지의 의병세력이 연합한 것이었다. 남한산성을 사이에 두고 의병과 관군 간의 대치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의병은 서울 진공을 활동목표로 설정하였다.<sup>4</sup> 서울 진공은 실제로 많은 의진들이 표방하던 구호였

3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40(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7, 152쪽).

4 유한철, 「김하락의진의 의병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20~21쪽.

지만, 대개의 경우 그 실현 가능성은 미약하던 실정이었다. 하지만 남한산성의병의 경우에는 강력한 전력 면에서나 서울에 근접한 지리적 위치 면에서 볼 때 구호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진공계획은 1896년 3월 22일 남한산성의 함락으로 말미암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과 관련하여 남한산성의병의 동향에서 주목되는 것은 서울진공을 위한 계획의 수립이었다.<sup>5</sup> 수원과 인근 지역의 의병들은 서로 연합하여 서울진공을 위해 먼저 제1단계로 수원을 점령하고, 이어 제2단계로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관군을 격파한 뒤 서울로 올라간다는 작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 그 실상이 생생히 드러난다.

#### 수원의 위급

경기도 안성, 충청도 온양, 장호원, 평택, 목천 등지에서 봉기했던 폭도는 그 세를 오미장에 집중해 광주, 즉 남한산성의 적도(賊徒)와 기맥을 통해 상합(相合)하여 장차 수원을 공격한다는 소문이 있다. 이보다 먼저 강화도의 지방병 200여 명은 수원에 왔다가 그 방비에 임하고 있으나 남한산성의 정토(征討)를 위해 동지(同地)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목하 수원은 공허하여 전혀 수비를 결(缺)해 위태한 지경이다. 수일 전 수원은 이미 적수(賊手)에 함락되었다는 소문이 있다.<sup>6</sup>

위의 기사에 따르면, 남한산성의병과 연계된 경기 남부 지역의 연합의병세력은, 강화도에서 수원으로 파견된 200명의 관군이 남한산성으로 출동한 틈을 타 수비가 허술한 수원을 공략할 기세에 있으며, 심지어는 이미 수원이 의병의 수중에 떨어졌다는 소문까지 퍼졌다는 것이다. 위 기사는 그 무렵 수원 지역의 의병세력이 한창 기세를 떨치던 정황을 웅변해 주는 증좌라 할 수 있다.

1896년 3월에 들어와 수원 일대에서 이처럼 의병이 세력을 떨치게 되자, 그 여파가 인천까지 미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인천관찰사는 인천 주재 일본영사관과 병참감부 등을 방문하고 “수원부에 폭도가 돌입하여 부사를 쫓아내고 밤을 틈타 인천항을 습격하려는 계획을 탐지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비하도록 주문하였다. 인천 주재 일본영사관에서는 이에 자국민 보호와 의병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순사 5명과 순검 3명을 수원 현지로 급파하여 그 실상을 파악토록 지시하였다. 현지에서 정보를 수집한 뒤 이들은 1896년 3월 13일 인천으로 돌아와 수원과 그 인접한 경기 남부 지역의 의병 동향을 일본

5 서광일, 「한말 의병전쟁과 수원지방」, 『한신대학교논문집』 13, 1996, 4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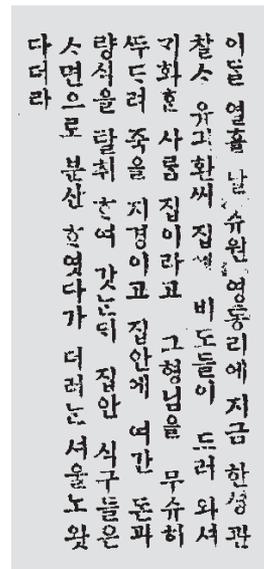
6 『東京朝日新聞』, 1896년 3월 31일.

영사관 사무대리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수원에는 아직 아무런 이상이 없고, 단지 의심스럽고 무서운 풍문이 도처에 일어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며, 물정이 흉흉하다고 할 뿐이고, 이미 폭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수원 근방인 천안·용인·안성 등지에는 수천 명의 폭도가 집합하여 폭행과 약탈이 이르지 않음이 없고, 심지어는 천안군수를 죽여 그 목을 효수하기에 이르렀다. 폭도의 대부분은 순사 일행이 수원에 도착하기 며칠 전에 이미 광주 지방으로 철수하였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 무리는 여전히 때때로 진위(振威)·칠원(七原) 등지에 출몰하여 민가에 불을 지르고 양식을 약탈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안성·금양(金陽)·목천·온양·평택·장원(長原) 등지에서부터 왔으며 수원 남쪽 40리 떨어진 진위 가도에 있는 오미장(五味場)에 집결하여 장차 수원을 습격하려는 모양이다. 수원군수는 이들 부근의 각지의 불온한 보고에 접하고 두려운 마음을 놓을 수 없어 강화 병사 200명으로 경계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11일 광주의 관군으로부터 수원을 수비하는 강화 병사는 모두 급히 광주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날 밤 바로 밤낮으로 달려가 광주에 도착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니 수원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다. 광주에 있는 관군도 대단히 불리하여 이 원병을 요청한 것이니, 강화 병사가 다시 그곳에서 실패한다면 폭도는 그들을 추적하여 곧바로 수원을 습격할 염려가 있다.<sup>7</sup>

위의 보고에서도 수원 부근 의병의 치열한 기세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원의병이 안성과 진위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의병, 그리고 남한산성 주둔 의병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3월 22일 남한산성 의병 와해를 계기로 수원에서도 의병의 세력은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그 이후 수원 일대에서는 의병이 간간히 단발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산성의병 와해 후 수원에서 의병이 활동한 사례는 5월 10일자 『독립신문』에 “수원 영통리에 있는 한성부 관찰사 유기환(兪箕煥)의 집을 의병들이 습격하였고, 수원부 포군이 출동하여 전투 끝에 의병 3명이 전사했다.”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의병들은 유기환을 ‘왜관찰사’로 지목하여 처단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의병의 영통리 한성관찰사 유기환 집 습격사건(『독립신문』, 1896년 5월 10일)

<sup>7</sup>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말의병자료』 2, 2001, 15~16쪽.

요컨대 전기의병 단계에서 수원의병은 남한산성에서 결성된 연합의병에 그 세력이 일부 가담하여 함께 활동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 남부, 특히 안성과 평택 일대의 의병 세력과 긴밀하게 연계하며 움직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유기적 관계의 영향으로 결국 수원의병은 경기의병의 연합체인 남한산성의병이 3월 22일 와해됨으로써 그 대체적인 활동은 종료되고 말았으며, 그 이후에는 산발적이고도 간헐적으로 1896년 전반 기까지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 3. 중기의병(을사의병)의 활동

1896년 전반기에 이르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던 전기의병은 유인석·민용호·김하락 등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는 그 활동이 거의 종식되었다. 그러나 의진 해산 이후에도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독자적인 농민조직을 형성하여 동학농민전쟁의 의식이나 의병 의식을 고집하며, 특히 1862년 삼남민란 이래의 농민조직 계승자로서 해산을 거부하며 항쟁을 계속하였다. 활빈당(活貧黨) 활동으로 통칭되는, 전토(田土)에서 유리된 농민층을 주축으로 한 영학당(英學黨)·남학당(南學黨)·동학당(東學黨)·북대(北大)·남대(南大) 등의 항쟁조직이 그것이다. 1897년부터 중기의병(을사의병)이 재기하기 이전인 1904년까지 8년간에 걸친 이들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광무농민운동’으로 규정하기도 한다.<sup>8</sup>

광무농민운동을 통하여 농민의 역량은 크게 향상되었다. 곧 농민들은 그들이 처해 온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 즉 동학농민전쟁, 전기의병, 광무농민운동의 경험 위에서 1904년부터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의 조직을 의병으로 전환시켜 간 것이다. 그동안 축적된 농민들의 역량은 1904년 러일전쟁과 함께 강요된 한일의정서와 한일협약, 그리고 철도 부설과 토지 약탈 혹은 황무지 개척권 요구 문제 등으로 이어지고 있던 일련의 일제 침략에 대해 의병투쟁으로 승화되어 간 것이다.

이러한 농민운동은 반봉건투쟁의 성향을 띠고 있었으며, 중기의병으로 재기하기 이전 과도기 단계의 투쟁이었다. 수원 지역에서도 이러한 농민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이들은 대개 해산의병으로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을 비롯하여 광주·안성 등지에 “당도(黨盜)가 횡행하며 사람을 상하게 하고 재물을 약탈하여 백성들이 살기에 힘입지 아니하니

8 조동걸, 「의병운동의 한국민족주의상의 위치(上)」, 『의병전쟁연구(상)』, 지식산업사, 1990, 230~232쪽.

민망하더라.”<sup>9</sup>라는 기록이 이러한 분위기를 입증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농민운동의 주동자나 투쟁 내용 등 그 실체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시기에 수원에서 일어난 농민운동의 사례는 관련 기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뒤 일제는 한반도 도처에서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역부를 강제적으로 동원하였다. 1904년 8월 평택·용인·시흥 등 경기도 일원에서는 역부 강제모집에 항의하여 민요(民擾)가 일어났다. 수원과 인접한 용인에서는 8월 20일 주민 4,000~5,000명이 관아 앞에 모여 역부의 강제징발에 항의하였고, 9월 14일에는 시흥에서도 항일 성향의 주민들이 역부 강제징발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한 수원 경내의 남양만 일대에서는 1900년 무렵부터 활빈당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들은 일제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대한제국이 주권을 상실하자, 일제 침략에 맞서 그 이전의 화적·비도(匪徒)의 성격이 아닌 의병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롭게 반제반침략의 민중저항전선을 형성하였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을사조약 반대투쟁과 을사조약 처단을 요구하는 항거가 일어날 때, 수원을 비롯하여 용인·안성 등지에서는 의병이 일어나 우편국을 습격하고 전선을 절단하거나 애자를 파손하여 일제의 통신을 방해하는 등의 항일투쟁을 벌였다.<sup>10</sup>

중기의병 단계에서 수원에서 의병이 처음 일어난 것은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반 년 전의 일이다. 이것은 앞에서 본 경부선 철도 역부 강제징발에 반발하여 1904년에 연이어 일어난 용인과 시흥의 시위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905년 4월 이인웅(李寅應)이 수원 남쪽 죽산에서 포군과 농민 23명을 규합하여 의병을 일으킨 뒤 양성·양지·용인 등지를 거쳐 수원군 지경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이어 5월 초에는 박석여(朴錫汝) 부대가 죽산에서 일어났는데, 그 규모는 200여 명에 이르렀다. 이 의병이 활동한 권역은 안산·수원 등지였고, 의병장 박석여 휘하에는 수원 출신의 최화실(崔化實)이 중군장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비교적 대부대를 거느렸고 박석여는 ‘척왜창의(斥倭倡義)’의 기치 아래 주민들로부터 전곡을 징발하였고, 관속을 결박하여 관물(官物)을 압류하였으며, 상인들에게는 말을 징발하였다.<sup>11</sup>

일반적으로 이 무렵 수원 지역에서 활동하던 의병은 농민 출신이 주축을 이루면서 경기도 일원의 활빈당세력과 기맥을 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일제 구축을

9 김윤식, 『속음청사(續陰晴史)』 제8권, 1896년 12월.

10 서평일, 「한말 의병전쟁과 수원지방」, 『한신대학교논문집』 13, 1996, 440쪽.

11 『황성신문』, 1905년 5월 10일; 『황성신문』, 1905년 5월 15일; 『황성신문』, 1905년 6월 14일.

기치로 내세우고 항일전을 표방함으로써 투쟁 양상이 점차 전쟁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1905년 11월 22일 일제의 특파대사로 대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를 대동하고 수원으로 사냥을 나왔다가 경부철도로 귀경 중 안양역에서 원태우(元泰祐) 의사가 던진 돌에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것도 이 무렵 끊어 오르던 민중의 항일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 준 것이다.

## 4. 후기의병(정미의병)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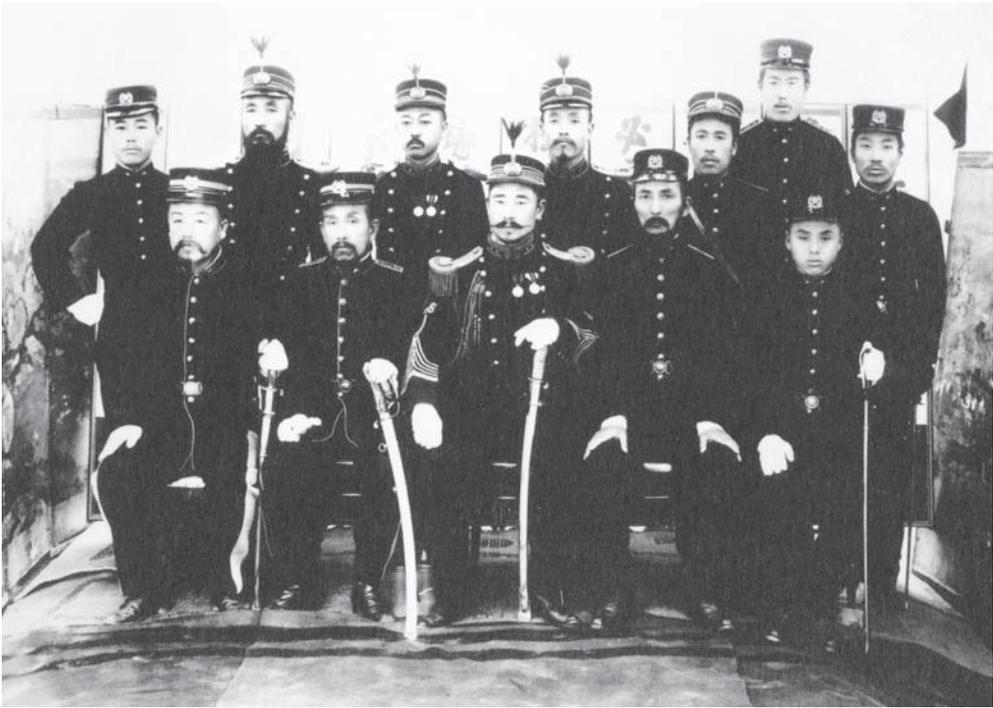
### 1) 수원의병의 항일전

1907년 6월에 일어난 헤이그특사 의거를 빌미로 삼은 일제는 곧 대한식민지화를 감행하기 위해 그해 7~8월에 광무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충격적 사건들로 의병전쟁은 전 민족이 대일전에 참전하는 거의 전면전의 양상을 띤 후기의병(정미의병)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07년 8월의 군대해산은 의병전쟁이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대, 고조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서울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장 참령 박승환(朴昇煥)의 자결로 비롯된 대한제국 군인들의 저항은 원주·여주·강화·진주·평양 등 전국으로 파급되어 갔다. 무장해제를 거부한 이들은 그대로 의병으로 전환됨으로써 대일 구국전에 강력한 힘을 실어 줄 수 있었다. 해산군인들이 독자적으로 부대를 편성하거나 기존에 활동하던 부대에 편입됨으로써 무기와 전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와 이후 의병은 전국 각지에서 상당한 전과를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국민 총력전의 단계로 승화된 후기의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보다 의병 참여 신분층이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전기의병과 중기의병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정 신분층의 의병 편중화 경향은 이 시기에 와서 완전히 극복되었으며, 양반관료나 유생 등 귀족 신분에서부터 해산군인 및 포수와 농민·상인, 심지어는 머슴 등 다양한 직업의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전 신분층이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의병전쟁에 동참함으로써 국민전쟁의 성격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sup>12</sup>

12 박민영, 「구국의 성전, 의병전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나남, 2003, 235쪽.



수원진위대 강화분견대(독립기념관 소장)

수원에서 후기의병 단계의 의병 동향이 처음 포착되는 것은 군대해산 직전인 1907년 7월 말경 의병을 일으키자는 거의(擧義) 촉구 통문이 배포된 때이다. 이어 8월 1일 서울 시위대를 시작으로 그 뒤를 이어 8월 5일에는 원주진위대, 9일에는 수원진위대 강화분견대가 각각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봉기하였다. 당시 수원에는 진위 제1대대 본부가 있었고, 수원진위대 휘하에 강화·개성·안성·북한산 분견대가 소속되어 있었다.<sup>13</sup> 수원진위대는 8월 15일 해산되었으나, 그 소속 군인들은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각지에서 의병 대열에 참가함으로써 경기도 의병전쟁의 확산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수원진위대 해산 당일 격분한 일부 군인들과 시위군중들이 수원역에 모여 무장항거를 다짐하며 십수 발의 총격을 가하였다.

이제 1907년 8월 군대해산 이후 수원 지역에서 의병들이 전개한 항일전의 개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산발적이고도 단편적인 자료의 한계로 이 지역에서 활동한 의병부대

<sup>13</sup>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1, 1969, 469쪽.

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의병의 동향과 항일전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는 이러한 개황이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충남 당진 출신으로 용인·수원 등지를 무대로 의병을 일으킨 정주원(鄭周源) 부대는 1907년 8월 25일 안성에서 경기와 충청 각지에서 모인 통칭 7개 의진, 1만 명의 의병들과 함께 향후 항일전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그 자리에서 의진 간의 연합전선 구축방안과 효과적인 항일전 수행을 위한 대책을 협의하였으나, 의진 간의 견해 차이로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한 채 해산하고 말았다. 하지만 지역 간, 의진 간 유기적인 연합세력 방안을 강구하려던 이 회합은 이후 항일전 방향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모임을 주도한 정주원 의병장은 수원을 비롯하여 용인·안성·평택 등지를 전전하며 항일전을 벌여 중부 지방 의병전쟁을 선도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900명에 이르는 그의 부대에는 수원 주민들도 상당수 참가하고 있었는데, 그중 후술할 수원군 태촌면(台村面) 진안동(陳雁洞) 출신인 안춘경(安春敬)은 그 부대의 간부로 활동하였다.<sup>14</sup> 1907년 9월 10일에는 병점역 서쪽 30리 떨어진 생장동에서 수원 의병 700명이 집결한 뒤, 경부선 철로가 지나가는 오산역과 진위역을 차례로 습격하였다.

이 무렵, 서울시위대 출신의 해산군인으로 의병에 투신한 김재선(金在善)은 부하 50명을 이끌고 수원·광주·용인 등지에서 활약하였으며, 수원의병 김군필은 남상목(南相穆), 정철리(鄭哲利) 부대와 연합하여 용인에서 수차례에 걸쳐 일제 군경을 상대로 항일전을 벌였다. 한편, 의병장 권중식(權仲植)은 수원의 경기관찰사 앞으로 9월 20일 의병 3,000명이 수원 용주사(龍珠寺)에 집결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백미 100석과 북어 200태 등 군수용품을 미리 준비해 놓을 것을 요구하는 통첩을 띄울 정도로 의병들이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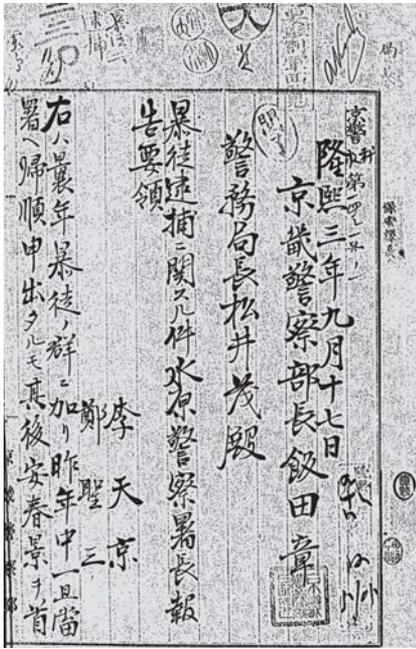
10월 6일, 평택의병 30명이 진위군 동북 30리 지점에서 수원에서 출동한 일본군 수비대와 교전한 뒤 용인 방면으로 철수하였으며, 10월 11일에는 남양군에서 이동해 온 의병들이 수원군 초장면(草長面) 소재 우편취급소를 습격하였다. 이어 11월 말경에는 그 실체는 알 수 없지만 의병 50~60명이 수원군 정남면(正南面) 남곡(南谷)에 모여 군수물자와 군자금 조달 방안을 협의하는 일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의병전쟁이 최고조에 이를 무렵인 1907년 12월 말에는 전국 의병의 연합체인 13도창의군이 결성되어 1만 명의 의병이 서울 진공을 위해 경기도 양주에 집결하였다.

14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16』, 1987, 248·250쪽.

15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21일.





안중경의 의병활동을 보고한 문서

어진 안중장의 동북쪽 운촌 부근에서 수원수비대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기도 하였다.<sup>20</sup>

1908년 5월에는 경기도 의병에 대한 일제 군경의 탄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수원 및 인근 지역에서 의병의 항일전은 계속 벌어졌다. 5월 6일에는 의병 15명이 수원역 북쪽에서 선로를 파괴하려다가 군포와 수원 간 선로를 경계 중이던 수원수비대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고, 같은 날 의병 수십 명이 남양군 영흥도에 상륙하여 군수전 5,000냥을 군자금으로 수집해 갔다. 이어 5월 10일에는 의병 선박 1척이 남양군 서쪽에 나타나 선재도(仙才島)로 향하던 중 경찰 정찰대의 습격을 받아 퇴각하기도 했다. 5월 24일에도 12명의 의병이 남양 부근 해안에서 수원 및 남양 순사대와 격돌하여 교전 끝에 1명이 순국하였다. 이와 같이 수원 외곽의 남양만 일대에서 의병의 항일

전이 활발해지자, 일제는 6월 5일 군경 수색대를 보내 영종도·세어도·동사도·시도·용유도 등 해안 도서지역을 수색하고 항일세력을 탄압하였다. 그 결과 경기 도서지역의 병은 점차 그 기세를 잃고 활동이 위축되어 갔다.<sup>21</sup>

한편, 육지에서도 의병 탄압에 전력을 기울이던 일제 군경의 과상적 공세로 경기 각지의 의병세력은 크게 위축되어 갔다. 특히 7월에 들어와 수원을 비롯한 안성·용인 등지에서 큰 활약을 한 정주원 의병장이 성환수비대와 교전 끝에 체포됨으로써 이 지역 의병의 항일전에 큰 손실을 가져 왔다. 그뿐만 아니라 1909년에는 수원을 비롯하여 경기 남부 지역인 용인·광주·안성 등지를 전전하며 휘하 의병을 이끌고 마지막까지 항일전을 전개하던 이익삼(李益三) 의병장이 일본군에 포획되었다. 1907년 8월부터 의병에 투신해 항일전을 벌여 온 이익삼은 용인군 모현면 용동전투를 끝으로 6월 2일 용인군 포곡면 신원리(新院里) 전투에서 수원수비대 소속의 일본군에 체포됨으로써 2년 동안 끈질기게 전개해 온 항일전은 종료되고 말았다.<sup>22</sup>

20 경기도사편찬위원회 편,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110쪽.

21 서광일, 「한말 의병전쟁과 수원지방」, 『한신대학교논문집』 13, 1996, 451~452쪽.

2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14』, 1985, 507쪽.

그 뒤 수원에서는 특기할 만한 항일전이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수원군 태촌 출신의 안춘경은 정주원이 체포당한 이후 잔여 의병 40여 명을 규합하여 1909년 9월부터 수원 광덕면, 청룡면, 대미 등지를 무대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7일 수원군 문시면(文市面) 병점역 부근에서 부하 서춘남(徐春南)과 함께 수원경찰서에서 출동한 일본인 순사에게 체포되고 말았다.<sup>23</sup> 곧 수원 지역의 의병투쟁은 1909년 12월 안춘경 의병부대의 활동을 끝으로 자료상 종언을 고한 것으로 보인다.

## 2) 홍원식(洪元植) 부대의 의병투쟁

수원의병은 위에서 보았듯이, 의병전쟁 20년에 걸쳐 수원과 인근 각지를 무대로 항일투쟁을 벌였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경향에 비추어, 수원 출신의 의병 가운데 활동 내역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행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홍원식 의병장이라 할 수 있다.

홍원식 의병장은 본관이 남양으로 1877년 10월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에서 태어났다. 그 뒤 그는 상경하여 서울시위대 제1대대 군인이 되어 서울 서소문 병영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1907년 8월, 앞에서 보았듯이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자, 그는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의병으로 전신(轉身)하여 항일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군대해산 직후 홍원식이 의병에 투신하여 항일전을 전개한 지역이 어디인지 자료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황으로 보아 그는 1907년 하반기 이래 1908년 충남 당진의 소난지도에 들어갈 때까지 거의 반 년 동안 고향 수원을 비롯하여 경기 남부 지방과 충남 일대를 전전하면서 도처에서 일제 군경을 상대로 항일전을 벌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인 항일전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 남부, 충청도 일대의 유력한 의진이었던 정주원 의병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홍원식 의병부대의 항일전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08년 3월 15일 벌어진 당진 소난지도전투라 할 수 있다. 육지에 근접해 있는 소난지도는 일찍이 1906년 홍주 의병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해상 의병의 근거지로 의병 출현이 잦은 곳이었다. 특히 1906년 8월에는 면천 출신의 최구현(崔九鉉) 의병장이 인솔하던 의병부대가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격전을 치른 전력이 있던 곳이다. 항일전 수행 과정에서 충청남도 해안 도서지역을 내

<sup>23</sup>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17』, 1988, 10쪽.

왕하던 홍원식은 이와 같은 소난지도를 활동 근거지로 몰색하여 100여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그 섬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홍성경찰분서에서 당진 방향으로 출동한 15명의 일제 경찰대는 소난지도로 잠입한 홍원식 의병의 동향을 파악하고 3월 15일 소난지도로 배를 타고 들어갔다. 이에 홍원식 의병은 일제 경찰대를 맞아 9시간에 걸친 격전을 벌였다. 그러나 전력의 절대적 열세로 말미암아 수세에 몰린 의병 측은 의병 전원이 거의 몰살되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sup>24</sup>

치열했던 당시 전투 상황에 대해 홍주경찰분서장은 전투 직후인 3월 20일 통감부 경무국장에게 다음과 같이 상세히 보고하였다.

일행(일제 순사대 14명 : 필자주)은 당진군 고산면 해창(海倉)에서 한선(韓船) 한 척을 빌리고 다음날 15일 오전 6시 우선 소난지도에 도착하여 그 상황을 정찰함에, 적은 일본형 범선 1척과 조선형 범선 1척을 포구에 정박시키고 전부 상륙하여 촌락에 잠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복 순사로 하여금 상세히 정찰 중에 적은 이미 이를 인지하여 민가에 숨어서 좌우에서 발포하여 그 소재를 거의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때 순사 나춘삼이 적탄에 맞아 중상을 입고 우리 형세가 심히 불리하므로 상륙을 결행하여 그 촌락 후방의 고지를 점령(오전 7시)하고 촌락을 내려 보며 맹렬히 사격하자 적은 낭패하게 되어 촌락에서 달아나 서쪽 고지를 근거로 완강히 저항하였다. 이에 우리는 세력을 양분하여 양 진지에서 맹렬하게 포화를 퍼붓자 적은 오전 11시에 이르러 점차 위축하여 서쪽 절벽 아래로 도주함에 따라 추적하여 접전하기를 수십 번 하여 적의 대부분을 이 섬 동남의 돌각(突角)까지 추적하여 22명을 죽이고, 일단 상륙지점으로 돌아와 그 촌락의 가택 수색을 하였지만 소득이 없었다. 다시 오후 1시부터 온 섬에 걸쳐 대수색을 함에 북쪽 일대의 바위 동굴 속에 잠복한 적이 다시 맹렬히 사격함에 따라 접전을 벌여 그 가운데 5명을 죽이고 14명을 동쪽 돌각으로 압박하여 거의 일어날 수 없는 큰 손해를 주었다. 오후 3시에 적의 대장 홍원식(洪元植 : 경기도 안성 사람으로 나이 50세 정도)<sup>25</sup>과 선봉장 박원석(朴元石 : 경기도 수원 사람으로 나이 30세 정도) 이하 모두 41명이 육상, 또는 부상 후 해상에서 죽었다. 기타 바다에 투신하여 행방불명된 적세는 상세히 알 수 없지만 50명 내외로, 바다 속에 숨은 자도 도저히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면 전멸한 것으로 인정된다. ....<sup>26</sup>

홍원식 의병이 일제 경찰대의 대공세에 직면하여 작은 섬 안에서 접전, 패퇴, 은신, 일제

24 김상기, 「1908년 당진 소난지도 의병의 항일진」, 『한국근현대사연구』 28, 한국근현대학회, 2004, 43~47쪽.

25 일제 측 자료에는 홍원식의 출신지가 안성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26 洪警秘 제143-3호, 1908년 3월 20일, 「홍주분서장 보고」, 『폭도에 관한 편책』(김상기, 「1908년 당진 소난지도 의병의 항일진」, 『한국근현대사연구』 28, 한국근현대학회, 2004, 45~46쪽 재인용).

의 의병 색출, 그리고 학살로 연속되는 가운데 처참하게 희생되던 참혹한 광경이 눈앞에 그려진다. 그 결과 역시 수원 출신인 선봉장 박원석을 비롯하여 의병들은 거의 전멸하고 말았다. 의병장과 선봉장이 모두 수원 출신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때 전사한 휘하 의병 대부분이 수원 주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일경은 전사한 것으로 단정하였지만, 의병장 홍원식은 이 전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상복으로 변장한 뒤 육지로 탈출했다고 전해진다.

그 뒤 한동안 행방이 묘연하던 의병장 홍원식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부상하게 되는 것은 1919년 3·1운동 때이다. 1914년 3월 고향 제암리로 돌아온 그는 제암교회의 권사로 서, 안중후·김성열 등과 ‘구국동지회’를 결성하고 서재(書齋)를 세워 계몽교육에 앞장섰다. 그러한 와중에 1919년 3·1운동이 벌어지자 수원 지역에서는 3월 26일 송산면 만세시위에 이어 3월 31일에는 홍원식도 가담한 발안장 만세시위가 일어나 1,000여 명의 군중이 투석전을 펼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 탄압에 나선 일본군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4월 15일 제암리 주민 20여 명을 교회 안에 가둬 놓고 출입문과 창문을 잠근 채 불을 지르고 집중사격을 가해 학살한, 악명 높은 제암리사건을 일으켰다. 이때 홍원식도 희생되었으며 현장에 달려 온 부인 김씨도 일본군의 총격으로 함께 순국하고 말았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홍원식은 1907년 일찍이 수원의병의 항일전에서 선봉에 섰던 의병장 출신으로 일제강점기에서는 다시 종교운동을 통한 민족교육사업에 전념하였으며, 이어 1919년 3·1운동 때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장렬하게 순국함으로써 12년간에 걸쳐 장기지속적으로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해 온 전형적 사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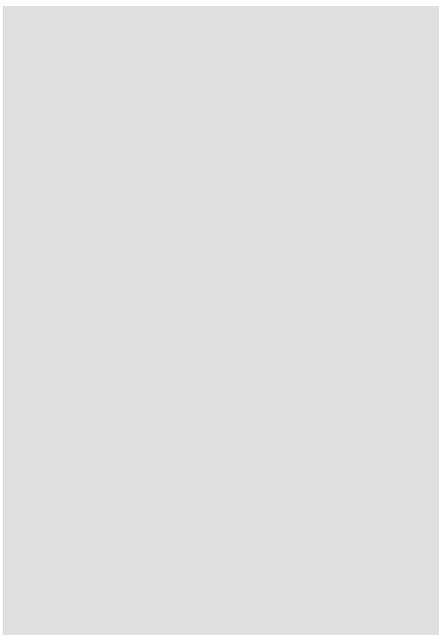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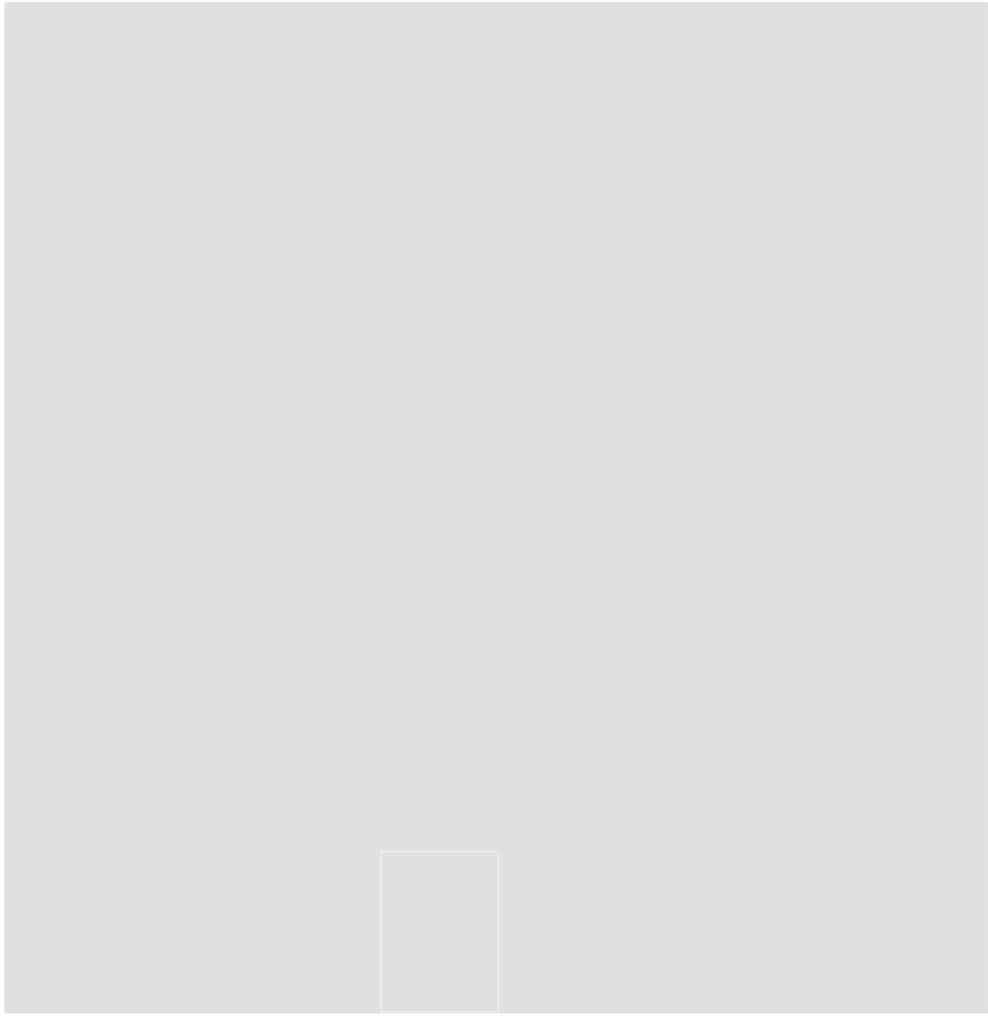
3 · 1

개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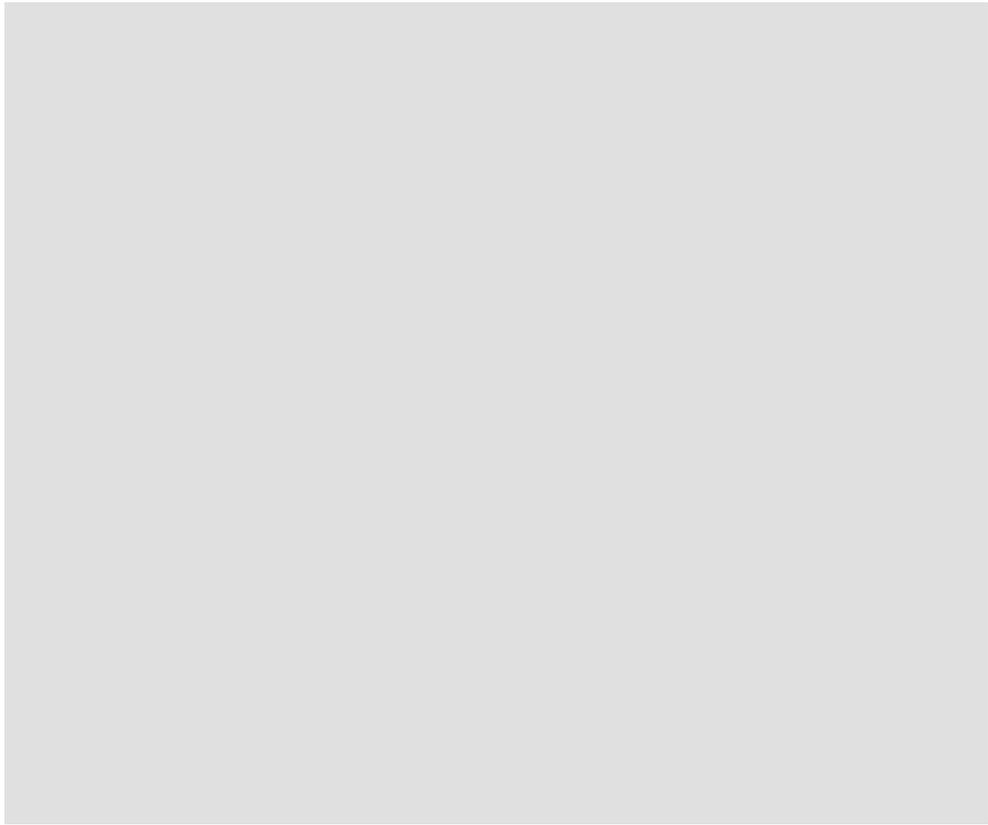
\_\_\_\_\_

# 騷擾妓生公判

지영달의 기영취영

수원기성 김항화(三)는 괴왕수원소  
요시에 퇴국 괴를 달고 머리 기성(을 다  
리고 경찰서 문안해쳐 만회를 볼 것  
노디 그 후 경찰서에 잡거되어 취도  
를 맞치고 경성 다방범원 수원지청  
점사 분구으로 넘긴바 북촌점사의  
심리호점과 지난달 이십칠일공판  
기던후후 보 법위반으로 징역팔  
개월을 구형호바유리만사료쳐 중  
역과 괴왕화 공판출언도 놓았노미  
방정서에 사람이 기록 놓였더라

승산 순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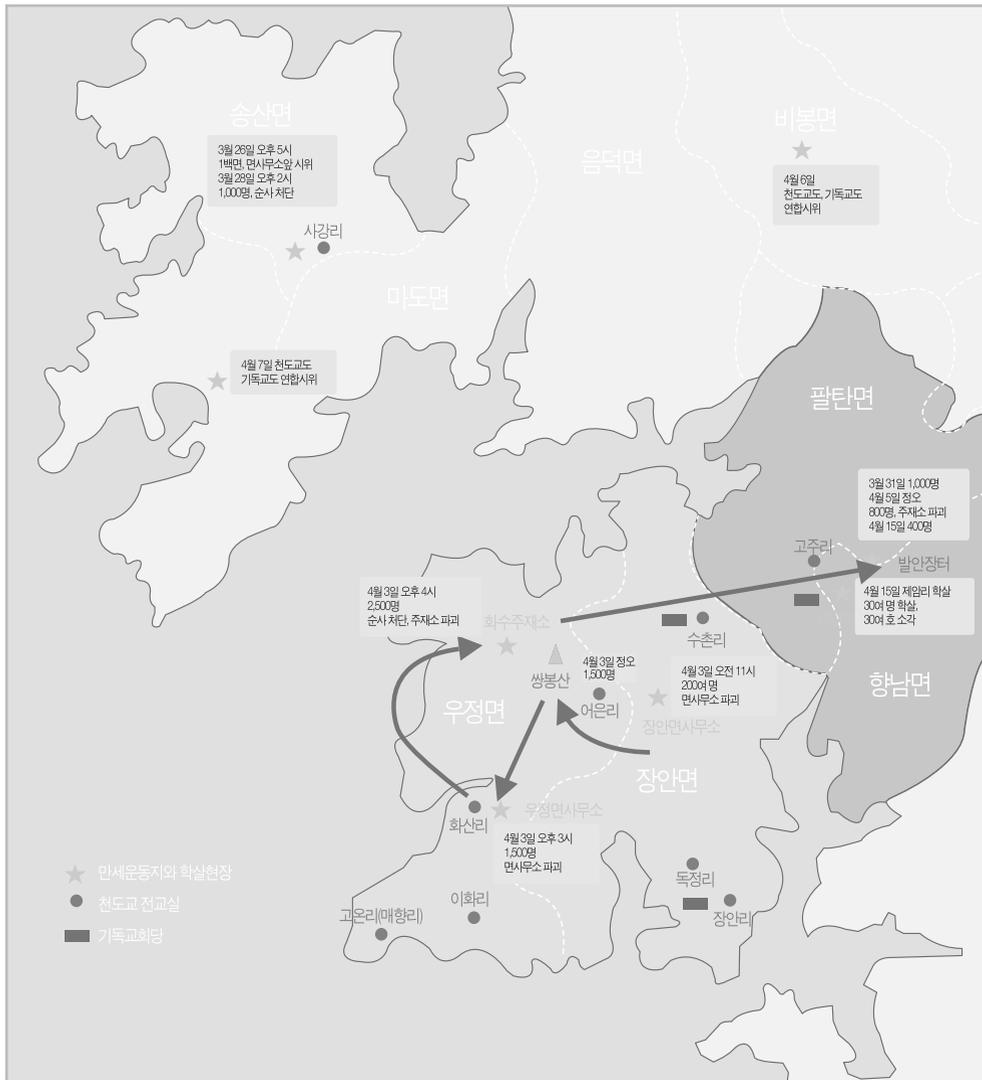
---

발안장   우정   · 장안

---

---





\_\_\_\_\_

기

---

\_\_\_\_\_

\_\_\_\_\_



제암 살

---



---



---





2



혈복단

국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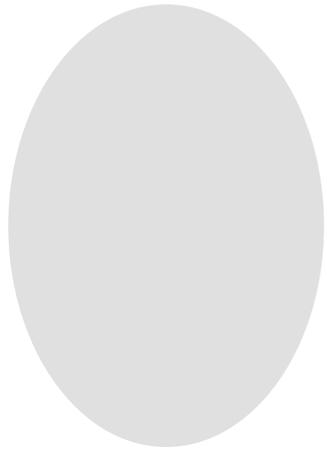
---

# 男女學生의 被促

가된 수식을 하며  
한편으로 구인해

수원청내 북수리김홍근(水原城  
內北水里金興根)은 수일천에 무  
삼형의인지 수원경찰서에 잡거  
되야 취조를 받던바 그후련하여  
사오차의 가된 수식을 행하며  
월십삼일부러리홍근(女一八)을  
시작하여 경찰가 잇는 산부리리선  
경(女一八)은 자동차로 급하인

치하고 광교리 리종상(二〇)남  
창리박선래(二〇)남수리최모순  
(女一六)다섯명이 차례로 구인되  
고 김홍근은 심오일에 방면되얏  
는데 인차된다섯명은 경찰에 투  
합하는 남녀학생이 유사 건은 자못  
중대한듯 하더라(수원)



---





## 判決事件一束

### △救國民團事件

水原邑內司자는男學生李得壽外一名叫同地女學生林順男外二名是救國民團을組織하고大韓民報을配布하였다는事件으로京京城敵地方法院에서裁判을經한바이달四月十二日에左와如히判決되었더라。

李得壽、朴善泰、各役二個年

(未決拘留日數百四十日算入)  
林順男、崔文順、李善卿

各役一個年  
(未決拘留日數百四十日算入并昨年三年間執行猶預)











3



청년

청년





---

## 各地青年團體

### 水原進明俱樂部 當地

南門外聖公會外水原進明俱樂部組織於六月二十八日下午七時發起人總會外已過하였는데其目的은德性을涵養하고體智를發達케하며部員互相간의親睦을圖함에在함다는데發起人の氏名은如左하디다라

具世實(英國人)金仁澤、金顯弼、許榕、安永基、李麟榮  
(水原)

### 水原青年俱樂部 水原

青年俱樂部發起總會의經過는既報와如하거니와本月二日下午五時에水原青年俱樂部創立總會禮華寧殿內風化堂上에서開한바定刻이至함에臨時會長崔相勳氏의式辭와趣旨의說明이有한後滿場一致로部則을通過하고無記名投票로任員을選定하니其被選된任員은部長維弘錫、理事洪思助、學藝課長崔相勳、運動課長金鍾傑、娛樂課長朴盛根、經理課長李光鉉以下諸氏이며라(水原)







































































































































































































































































































































































































































































































































































































































































































































































